

A팀 2017.1.23-2.2

B팀 2017.2.6-2.16

ISRAEL

BIBLE STUDY TOUR



Eugène Burnand(1850-1921)

첫 부활절 아침 무덤으로
주님을 뵈러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프라이스교회 성서대학

인 사 의 말 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순례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세초(歲初)부터 세말(歲末)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순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재현해보고 거기에 서려 있는 지리(地理)와 역사(歷史) 그리고 신앙(信仰)의 요소들을 재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김진산 교수님의 해박하면서도 명쾌하고,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안내와 정연호 교수님(예루살렘 Holy Land University 부총장)과 권혁승 교수님(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 이스라엘 신학포럼 대표)의 특강이 더해져서, 한층 더 깊은 의미와 무게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늘 그래왔듯이, 이번 순례 역시 단순히 성지를 둘러보는 ‘관광 여행’이 아니라 시간 시간 전문가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생활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Bible Study Tour’입니다.

아울러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단체 생활을 통해 서로의 신앙 인격을 연마(鍊磨)하고 섬김을 실습하는 기회임을 유념하셔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잘 소화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틈을 내어 길을 떠나시는 만큼 이번 순례의 여정이 엠마오 도상(途上)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이 내내 동행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여로(旅路)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프라미스교회 평신도성서대학 학장 김남수 목사

김남수

이 책 의 순 서

인사말 (Greetings)	1
일정표 (Daily Schedule)	3
조장 및 조편성	4
조직 / 조장의 임무 / 현지 연락처	6
성지순례를 돕기 위한 참고 지도 자료	7
성지순례 일정에 따른 안내	
1월 24일 / 2월 7일 (화)	22
1월 25일 / 2월 8일 (수)	26
1월 26일 / 2월 9일 (목)	33
1월 27일 / 2월 10일 (금)	43
1월 28일 / 2월 11일 (토)	53
1월 29일 / 2월 12일 (주일)	61
1월 30일 / 2월 13일 (월)	73
1월 31일 / 2월 14일 (화)	90
2월 1일 / 2월 15일 (수)	99
2월 2일 / 2월 16일 (목)	109
순례자의 노래 (Pilgrim's Songs)	125
순례자 방배정표 및 연락처	164

성 | 지 | 순 | 례 | 일 | 정 | 표 |

A 2017.1.23(월)-2.2(목) **B** 2017.2.6(월)-2.16(목)

날짜	요일	일정	숙박
1/23 2/6	월	터키항공편 JFK 출발(13:40)	기내
1/24 2/7	화	텔아비브 도착 (11:30) 아벡/에벤텔/실로/벤엘/아이 방문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	Grand Court Hotel 예루살렘
1/25 2/8	수	히브리대학교/전망산/감람산(승천교회/주기도문교회/눈물교회 겻세마네교회)/시온산(마가의 다락방/다윗왕 가묘/베드로 통 곡교회) 헤로디움(헤롯의 요새 및 무덤)/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기념교회	
1/26 2/9	목	새벽 십자가의 길/예수님 무덤교회/통곡의 벽/다윗성(히스기야 터널) 야드 바셈(홀로코스트 박물관)/이스라엘박물관	
1/27 2/10	금	기브온산당/벤세메스/엘라골짜기/벤구브린 골짜기(마레사) 라기스골짜기/브엘세바	
1/28 2/11	토	엠마오/옘바/가이사랴/갈렐산/악고(돌레마이) 로쉬하니크라(레바논국경) 방문 후 갈릴리 호수로 이동	Leonardo Plaza Tiberias Hotel
1/29 2/12	주일	골란(가말라)/바니아스(가이사랴 빌립보)/단/고라신/가버나움 팔복산/오병이어교회/베드로 수위권교회/선상예배	갈릴리
1/30 2/13	월	갈릴리 가나/찌포리/나사렛/므깃도/텔 이스라엘/하룻샘/사마리아 세겔/야곱의 우물/요셉무덤/그리십 산 방문 후 사해로 이동	Royal Rimonim Dead Sea Hotel 사해
1/31 2/14	화	팀나동굴(아라바 광야)/에세온게벨(엘랏)/미즈페 라몬(바란광야) 벤구리온 무덤(와디 신)	
2/1 2/15	수	마사다/엔게디 자연학습장/쿰란/요단강 세레터/유다광야(에인 마부아) 여리고(삭개오의 돌무화과나무/엘리사의 샘/시험산 전망)	
2/2 2/16	목	텔아비브 출발(8:30) 뉴욕 JFK 도착(6:25 pm)	기내

* 위의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팀			조	직	표
---	---	--	--	---	---	---

단장	강의	순례가이드	팀장	행정 및 기타
허연행 목사	권혁승 교수/ 김진산 교수	김진산 교수	강철웅 안수집사	문 희 집사

A	팀		조	편	성
---	---	--	---	---	---

조	조장	조원
1	오루디아 권사	강병구 집사 송병창 장로 박맹춘 목사 김기준 권사 홍대순 장로 조석순 권사 김선옥 사모 김도윤 사모
2	신정주 집사	신디리 집사 이영훈 집사 제시카리 집사 이주배 장로 민현숙 집사 이숙자 집사 하재희 권사 허연행 목사
3	석은정 권사	이용찬 장로 최병은 집사 유원애 권사 이성실 권사 한연아 권사 유경왕 집사 백대심 권사
4	조혜진 집사	황순해 권사 이영희 권사 김혜정 권사 임금자 권사 오점례 집사 김인영 집사 정소진
5	김숙희 권사	김정희 집사 김미영 집사 김영희 권사 정정숙 권사 양현주 집사 김보현 집사 강영자 집사
6	강철웅 안수집사	이태근 집사 임재연 집사 김원길 권사 장춘화 집사 이혜선 집사 이경희 집사 최원복 권사
7	정희정 집사	조경애 권사 최임선 권사 김혜경 집사 현숙경 집사 김훈주 집사 강순애 권사 성명남 집사 문 희 집사

B 팀 | | | 조 직 표 |

단장	강의	순례가이드	팀장	행정 및 기타
허연행 목사	정연호 교수 / 권혁승 교수	김진산 교수	이정석 집사	문 희 집사

B 팀 | | | 조 편 성 |

조	조장	조 원
1	이준호 장로	박영일 장로 황석진 장로 박상협 안수집사 오복현 권사 이진완 권사 이성기 권사 이인숙 권사
2	홍종례 집사	이은영 사모 조지연 집사 김명자 권사 이성자 집사 손선예 집사 이순실 집사 이해숙 권사
3	황영순 권사	이모경 권사 김윤섭 집사 정창규 장로 권의숙 집사 이재순 권사 장민수 집사 이정석 집사 문희 집사 황홍섭 안수집사
4	최철환 안수집사	김도운 사모 허연행 목사 최성호 장로 최승혁 목사 허옥순 사모 허찬숙 사모 최춘희 권사
5	석성남 권사	정수영 집사 김영길 집사 박영미 목사 석창호 집사 정명숙 집사 김선종 집사 강윤신 집사
6	최경남 집사	선우옥 집사 이항림 집사 구영숙 집사 조홍숙 사모 마이클 집사 콕코렌 집사 오금세 집사
7	백흥식 권사	홍양휘 권사 최은모 권사 장단심 권사 유기선 권사 강죽희 권사 이호영 권사 조영숙 집사

조 장 의 의 무

- 출발에서 돌아올 때까지 **조의 인원을 파악**한다.
- 단체행동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독려하며 모든 일에 협조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단체행동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돕는다.
- 조원들의 **위급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하여 위급사항을 돕는다.
- 변경되는 버스 좌석을 신속하게 배정받아 착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여행팀 서로의 친숙함을 위하여 조원들의 명찰을 항시 부착하도록 돕는다.
- 조원들의 필요를 돕기 위하여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을 한다.
- 매일 매일의 광고 또는 공지사항을 조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 조원들의 수신기를 매일 매일 점검하며, **건전지 교체, 작동 및 회수**를 돕도록 한다.

현 지 연 락 처

- **예루살렘** / Grand Court Hotel
15 Saint George St. Jerusalem 91002 / Tel : 972-2-591 7777
- **갈릴리(티베리아)** / Leonardo Plaza Tiberias Hotel
Habanim Street 1 Tiberias, 14103 / Tel : 972-4-671 3333
- **사해(엔보킵)** / Royal Rimonim Dead Sea Hotel
Ein Bokek, Dead sea / Tel : 972-8-668 8555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6)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be secure (Psalms 122:6)

성지순례 지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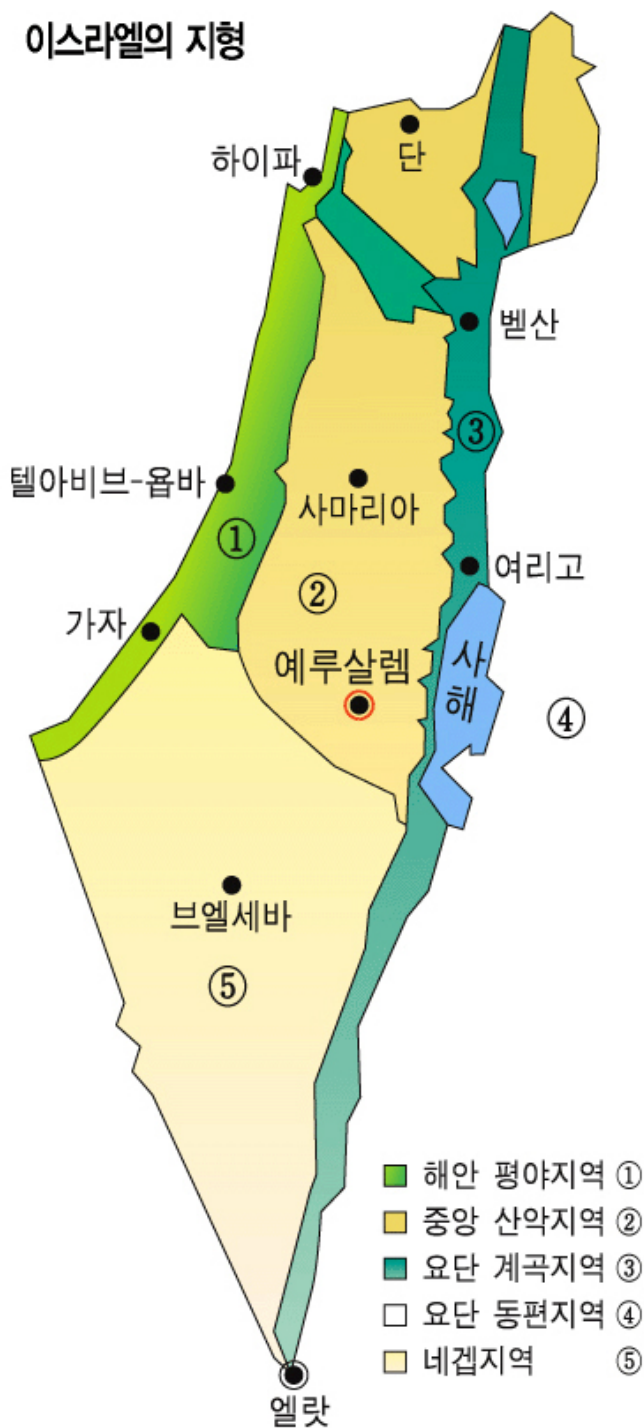


16C 세계지도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비옥한 초생달

이스라엘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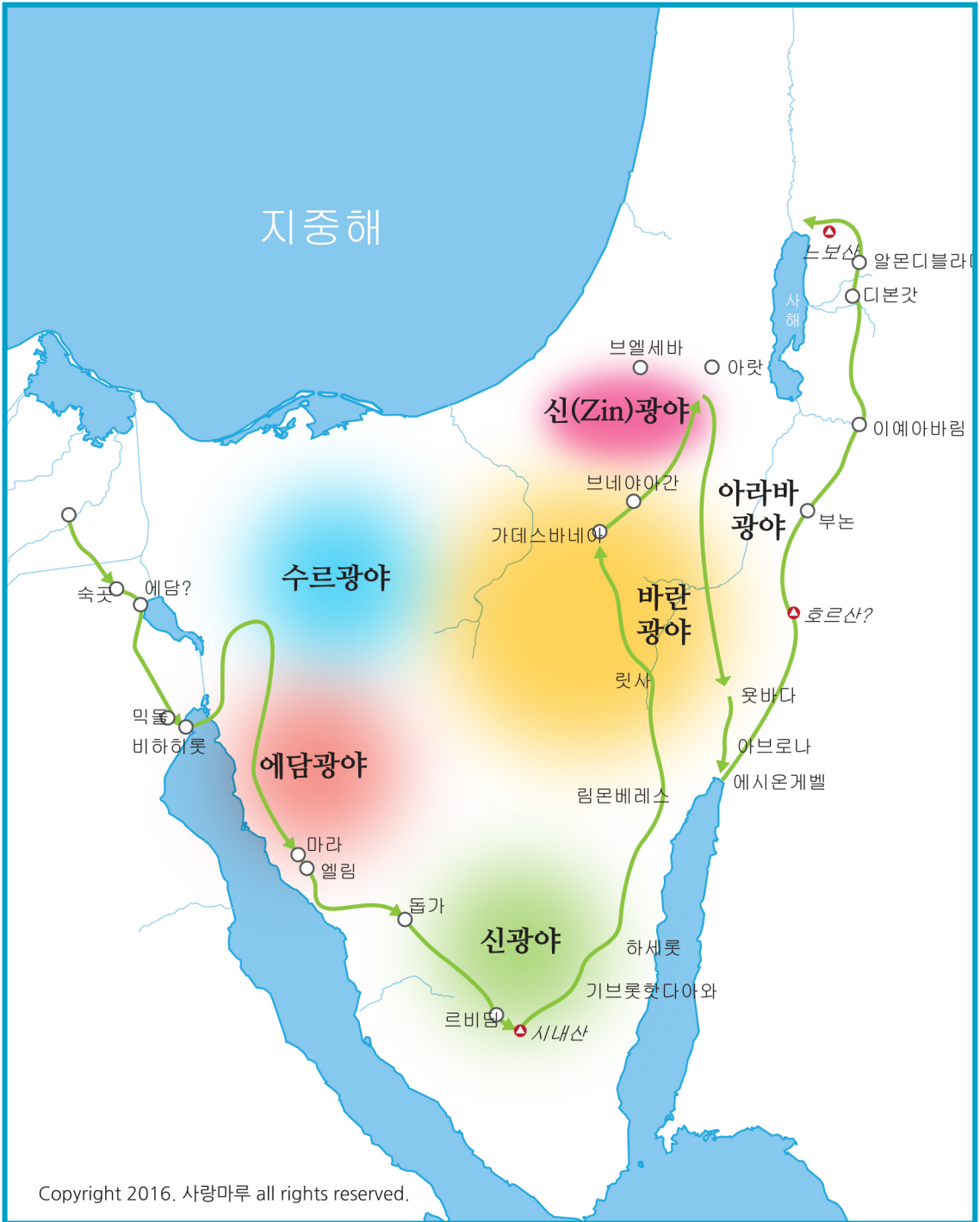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주요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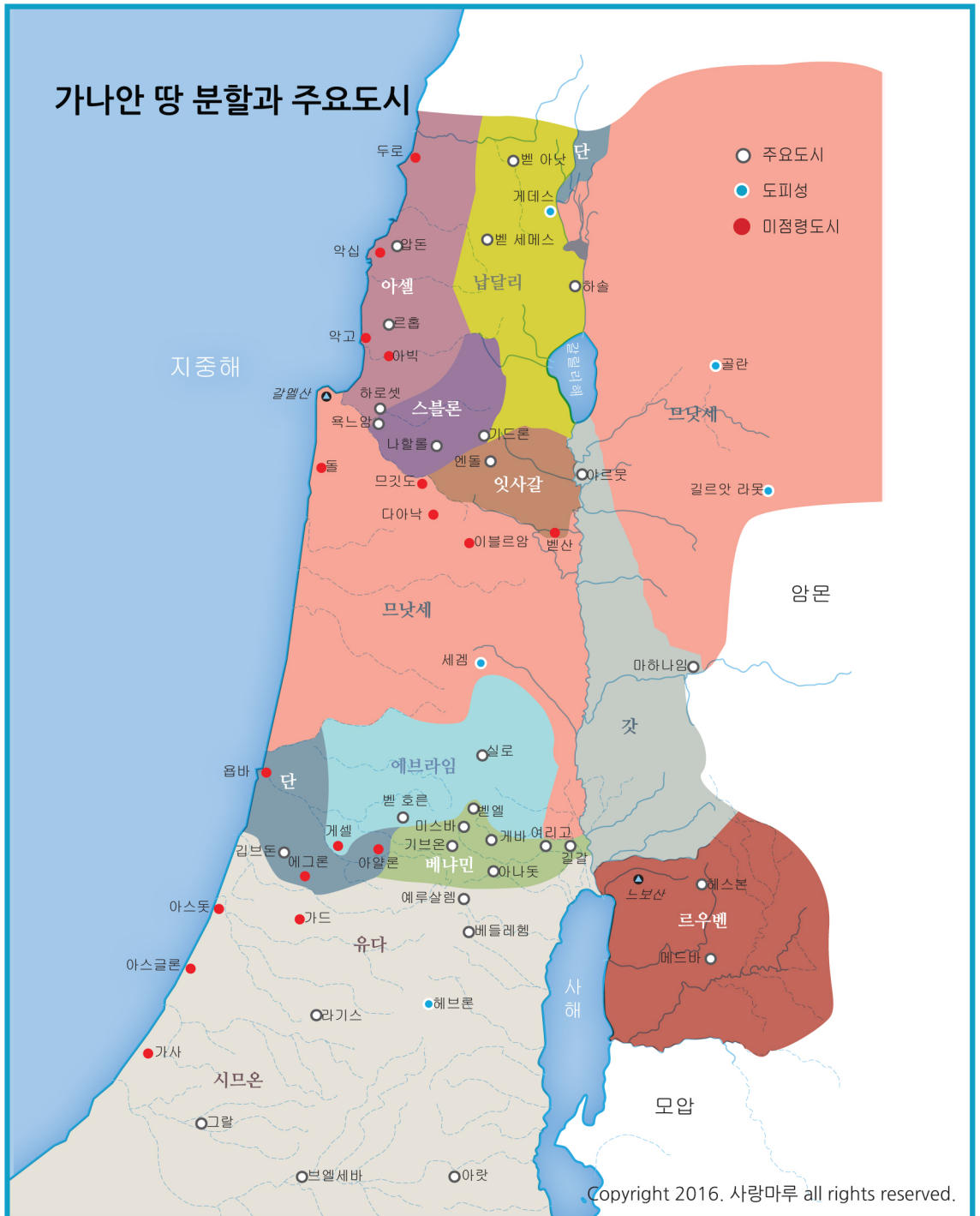
오늘의 이스라엘



Copyright 2016. 사랑마루 all rights reserved.



가나안 땅 분할과 주요도시



하나님의 언약궤 이동 경로

지중해



Copyright 2016. 사랑마루 all rights reserved.

지중해



예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

지중해

■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와 주변 지역 사역

■ 두로와 시돈, 빌립보의 가이사라 그리고 가버나움 사역

■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사역

■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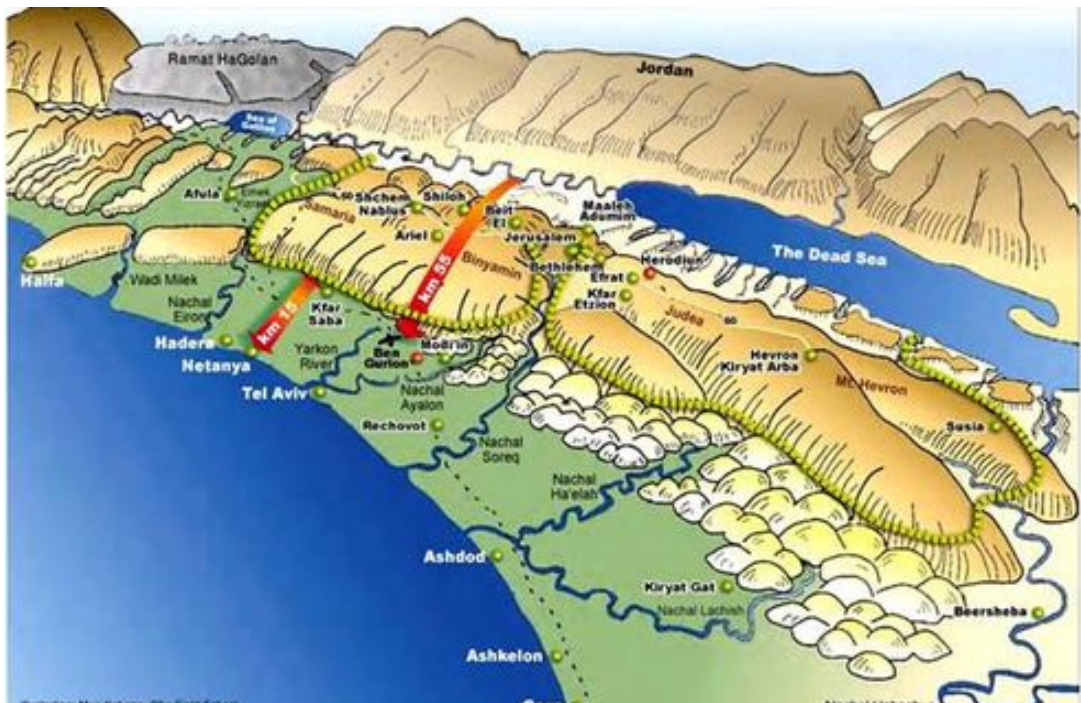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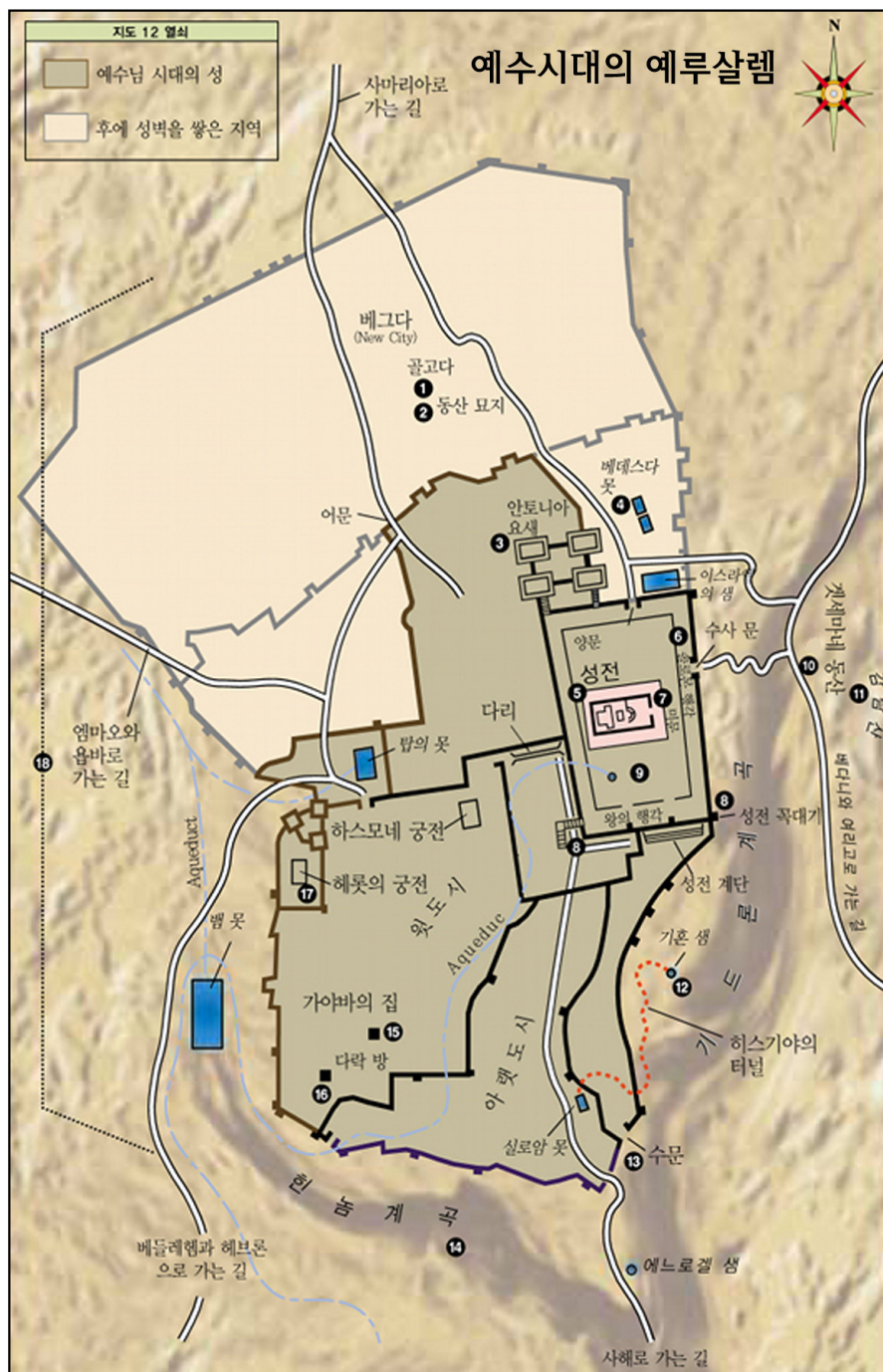
Copyright 2016. 사랑마루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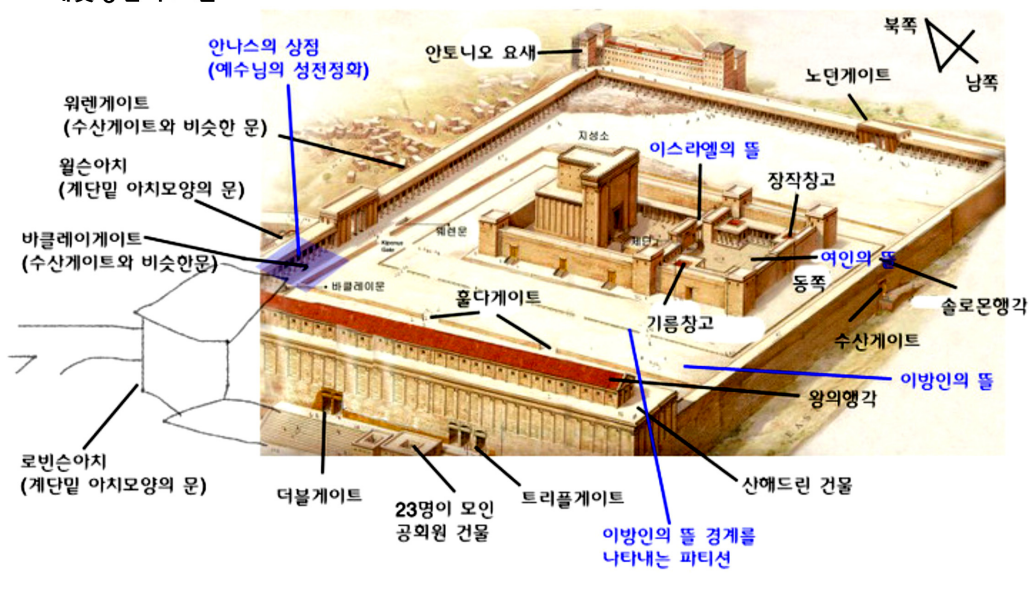
바빌론 시대 세계와 이스라엘

Copyright 2016. 사랑마루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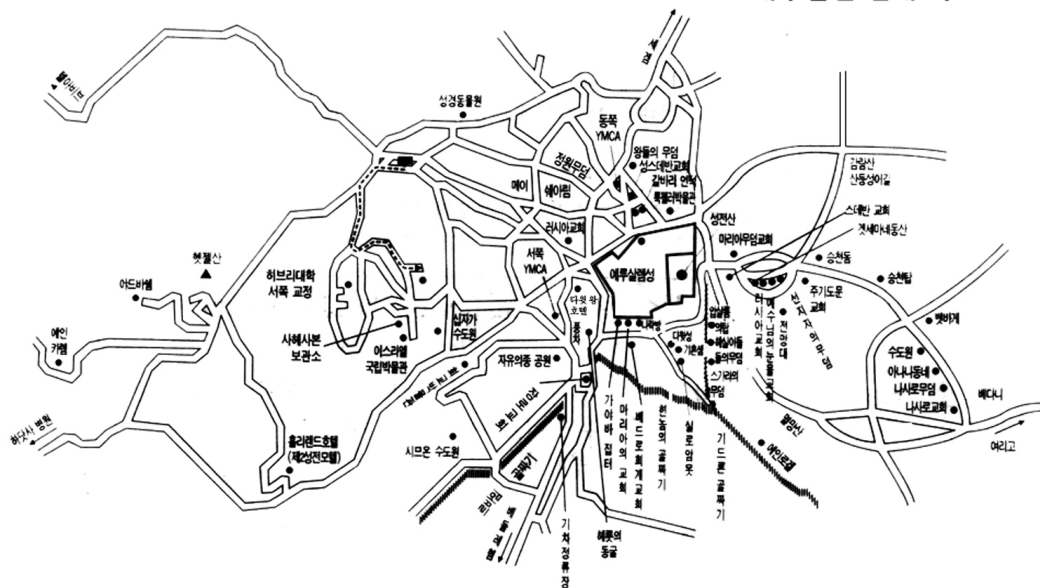




헤롯성전의 모습



예루살렘 현대 약도



오늘의 일정

텔아비브 도착(11:30 am)

아벡/에벤에셀/실로/벤엘/ 아이 방문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호텔 체크인

오늘의 관점

- ◎ 텔아비브는 현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하여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 ◎ ‘아벡’은 성경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 ◎ 가나안 입국 이후 법궤를 실로에 두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 텔아비브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이다.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이며 시내 거주인구는 405,300명으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다. 주변 도시들과 합한 인구는 3,850,000명으로 이스라엘 최대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텔아비브 광역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1880년대 유대인 이주자들이 물가가 비쌌던 옴바를 대체할 곳을 찾는 것으로 도시가 시작되었지만, 점점 도시의 규모는 커졌고 오늘날에는 중동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가 되었다. 텔아비브에서 하얀 색상의 건물이 많기로 알려진 ‘화이트시티’는 200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을 뜻하는 텔아비브는 나훔 소콜로프가 데오도르 헤르츨이 쓴 『오래된 새로운 땅』 (Alt Neu Land)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지어준 이름이다. 이 명칭은 고대 이스라엘의 멸망(‘언덕’을 뜻하는 ‘텔’은 고대 유적이 묻혀있는 유적지를 의미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재탄생(봄; 아비브)을 갈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콜로프는 이 명칭을 에스겔 3장 15절과 연관시키기도 했다. "이에 내가 텔아빕(=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겔 3:15)

옴바를 대신할 지역을 찾아 나선 유대인 이민자들은 1909년 아랍 원주민들에게서 현재의 텔아비브

지역을 구입하여 도시 건설을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터키군에 의해서 옘바와 텔아비브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전쟁 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시작 할 때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1920년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아랍인들과 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옘바를 떠났고 텔아비브의 인구는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중동전쟁인 독립전쟁이 시작되기 며칠 전 옘바에 주둔하고 있었던 아랍군이 텔아비브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하기 이틀 전 유대인들은 다시 텔아비브를 되찾을 수 있었다. 독립전쟁 당시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임시수도가 되었다. 독립전쟁 전 옘바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였다. 대략 7만 내지 8만 명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유대인 민병대였던 ‘이르군’과 ‘하가나’가 침입해서 오직 4천 명의 아랍인들만 옘바에 남았다.

건축적으로 텔아비브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건설된 ‘화이트시티’로 잘 알려져 있다. 하얗고 밝은 색상의 건물들이 많아서 ‘화이트 시티’로 불리었다. 나치 독일을 탈출한 건축가들이 모던주의의 영향을 받아 건물들을 전부 바우하우스식으로 지었다. 2003년 유네스코는 텔아비브의 ‘화이트시티’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1960년대 급속도로 늘어난 이민자들을 위해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에 초고층빌딩들이 늘어나고 있다. 잘 알려진 고층건물로는 샬롬타워와 아즈리엘리센터 등이 있다.

2. 아벡(신약시대의 ‘안디바드리’)

‘강하다’라는 의미의 아벡은 야르콘 강의 수원지에 자리하고 있는 요새 도시였다. 아벡의 위치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으며, 옘바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7km 떨어져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국제도로인 해안길이 예루살렘이나 세겜으로 통하는 국내도로가 교차하기 때문에 고대시대부터 이곳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다. 그런 점에서 아벡을 장악하는 것은 곧바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아벡 왕은 여호수아가 물리친 가나안 왕들 중의 하나였다(수 12:18).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그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도 아벡 근처에서 벌어졌던 전쟁 결과였다(삼상 4장). 로마시대 이 도시를 크게 재건하였던 헤롯대왕은 자신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도시를 ‘안디바드리’(Antipatris)라고 개명하였다. 당시 이 도시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를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로마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 밤중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던 호위병들은 이곳 안디바드리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다(행23:31).

아베크는 지중해로 유입되는 상시천인 야르콘 강의 발원지이다. ‘푸르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르콘’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얄콘’이라고 음역하고 있다(수 19:46). 전체 길이가 약 30km나 되는 야르콘 강은 샤론평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긴 강이다. 이 강은 지리적으로 샤론평야의 남쪽 한계선을 이루고 있다. 이 강과 합류하는 여러 지류들 중에는 실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와디 실로’와 아얄론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와디 아얄론’이 있다. 성경은 야르콘강 유역을 단지파와 에브라임지파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수 19:46).

3. 실로

실로는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실로는 중앙산지의 분수령을 따라 형성된 남북 간 중심도로의 동쪽 편에 자리하고 있다. 성경은 실로의 위치를 “벤엘 북편, 르보나 남편, 벤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편 실로”라고 밝히고 있다(삿 21:19).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후 이곳에 성막을 세움으로 각 지파들이 모일 수 있는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다. 그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이곳에서 실시하였다(수 18:1-10). 엘리가 실로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맡고 있을 때, 사무엘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삼상 1-3장).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면서,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후 실로는 다시 재건이 되기도 하였다(렘 4:5; 7:12; 26:6,9). 여로보암이 북 왕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히아는 실로 출신의 선지자였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실로 출신들이 많이 있었다(느 11:5). 실로는 헬라시대와 로마시대, 비잔틴시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번성하는 도시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중세를 지나면서 실로는 완전히 폐허화된 도시로 남게 되었다. 현재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 지역 개발에 힘쓰고 있다.

4. 벤엘

벤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변에 위치하면서 에브라임의 남쪽 경계지역에 속하는 도시이다(수 16:1-4).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벤엘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도시이다. 이곳은 아브라함 시대에 ‘루스’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와

벤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 야곱은 이곳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곳 이름을 벤엘이라고 개명하였다(창 28:10-22).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하였던 벤엘은 사사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예배장소가 되었다(삿 20:26). 드보라 여사사는 벤엘 근처의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삿 4:5), 사무엘은 정기적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벤엘 지역을 순방하였다(삼상 7:16).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벤엘의 중요성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 이후로는 옛 위치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즉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적 성소를 이곳에 세웠으며(왕상 12:26-33), 아모스 시대에도 벤엘은 북 왕조의 중요한 성소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벤엘은 주전 721년 북왕조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점령당하면서 앗수르의 영토가 되었다. 앗수르는 벤엘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고, 앗수르에 포로가 되었던 제사장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장소로 삼았다(왕하 17:26-28). 그 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벤엘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포로기 이후 벤엘은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재건되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벤엘과 아이 사람들은 모두 223명이었다(스 2:28). 그 이후 헬라시대와 로마시대를 거치면서 벤엘은 크게 번성하였고, 특히 비잔틴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과밀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비잔틴시대 이후 아랍 통치시대가 시작되면서 벤엘은 갑자기 몰락하면서 도시로서의 존재 자체도 사라져 버렸다.

오늘의 일정

히브리대학교 전망산/감람산(승천교회/주기도문교회/눈물교회/갯세마네교회)/시온산(마가의 다락방/다윗왕 가묘/베드로 통곡교회)헤로디움(헤롯의 요새 및 무덤)/베들레헴 예수탄생기념교회

오늘의 관점

- ◎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 예루살렘은 왜 신앙(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 ◎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구유는 어떤 곳이었는가?

1. 예루살렘

A.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유

예루살렘은 지중해로부터 동쪽으로 약 52km 떨어져 있으며, 사해 북단에서는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해발 750m의 유다산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산지는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었다(수 18:11-20).

중앙산지를 남북으로 가로 지나가는 분수령 길의 동쪽 편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절여된 요소는 비옥한 농경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선택한 것에서 비롯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선택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1)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예루살렘의 급수원이다. 예루살렘은 기드론골짜기 안에 있는 기혼샘과 엔로겔이라는 두 수원에서 식수를 공급받았다. 여름철 기혼샘은 매일 227 입방미터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었고, 엔로겔은 이 보다는 적은 양의 물을 공급하였다.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빗물을 모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시설이 사용되면서였다.

2) 두 번째 요인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쉬운 전략적 측면이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러 개의 산과 계곡이 자리하고 있어서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방어에 용이한 지역이다. 북쪽을 제외하면 세 방면은 모두 자연 방어선 역할을 하는 계곡들로 둘러 싸여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취약한 방면은 ‘전망산’(Mt. Scopus‘ 히브리어로 ’하르 하초침’)과 연결되어 있는 북쪽 지역이다. 이곳은 계곡과 같은 자연 방해요소가 없이 직접 산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접근과 공격은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북쪽 지역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3) 세 번째 요소는 편리한 교통로이다. 예루살렘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이점은 이스라엘 내의 중요한 남북 간 간선도로와 동서 간 간선도로가 이곳에서 교차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는 산지의 분수령을 따라 세겜, 예루살렘, 헤브론과 같은 중요 도시들을 거쳐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분수령길이다. 그리고 동서를 잇는 간선도로는 예리고에서 지중해의 해안지방으로 나가는 벤호론 길로서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지난다. 이런 간선도로의 교차점이라는 이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모든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정치, 행정, 종교의 중심적 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4) 네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 지파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도시라는 점이다. 다윗이 이 도시를 점령할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여부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였다. 곧 이곳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되지 않은 중립적 성격의 도시였다. 따라서 다윗이 이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것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다윗은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난 후 도시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도시가 다윗 개인 소유임을 강조한 명칭이었다.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은 지파 간의 갈등이 없는 중립적 지역이면서 다윗 자신의 개인 소유지라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 명칭은 다윗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공식적 이름으로 바뀌었다.

B. 예루살렘의 명칭들

1). 아우샤멤 : 이집트 12왕조 시대, 주전 1900년대

- 2). 우르살렘 : 아카드와 앗수르 문서
- 3). 살렘 (창 14:18; 시 76:2; 히 7:2)
- 4). 예루살렘/ 여부스의 도시/ 다윗성/ 시온/ 아리엘 (사 29:1)
- 5). Aelia Capitolina :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개축
- 6). 엘 쿠스 : 아랍 모슬렘이 사용하는 명칭 (‘거룩한 도시’)

C.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사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래의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은 약 660m 정도 높이의 ‘시온산성’이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였던 살렘왕 멜기세덱의 거처이기도 하였으며(창 14:18, 히7:1), 다윗이 점령하여 ‘다윗성’이라고 개명한 여부스의 요새이기도 하였다(삼 하 5:7).

2) 시온산성 북쪽에는 해발 730m 높이의 ‘모리아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려 하였던 ‘모리아 땅에 있는 산’과 동일시 되고 있다.(대하3:1)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곳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마 당이 있었다.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삼았다(삼 상 24:18-25). 그 후 솔로몬은 이곳에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다. 모리아산은 시온산보다 더 높았지만 현재는 이 두 산 높이 차이가 거의 없다. 그것은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산 정상상을 인력으로 밀어내 이 두 산 사이에 약 23 에이커 정도의 넓고 평평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3) 시온산의 서쪽에는 성경시대에 ‘서산’이라고도 하였던 765m 높이의 언덕이 위치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한 전 승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초기의 예루살렘이었던 다윗성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고

세력을 얻으면서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도시 자체가 확장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시온’이라는 예루살렘 명칭은 북쪽의 성전산을 의미하기도 하였고, 서쪽에 새롭게 확장된 시가지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예레미야 31:39에 서 언급된 ‘가렙산’은 아마도 예루살렘 서편에 있던 이 산을 의미하였을 것이라 본다.

마카비 시대에는 성전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아크라’라는 요새가 이곳에 위치하였다. 십자군들은 다윗의 무덤,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마리아의 운명장소 등을 기념하는 교회들을 모두 이 산 위에 세웠다.

4) 예루살렘 동편의 기드론골짜기 건너편에는 810m 높이의 ‘감람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산은 기드론골짜기와 나란히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산지이다. 감람산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이다.(삼하15:3) 그때 다윗은 감람산을 넘어 요단 동편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의 이 산 위에 외국에서 데려온 왕비들의 신인 그모스와 몰렉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왕상 11:1-7). 이런 이유 때문에 감람산의 남쪽 부분을 ‘멸망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왕하 23:13).

예수께서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감람산을 자주 찾았으며(요 8:1,막 11:1, 26:30), 특히 감람산 밑에 위치한 겐세마네 동산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곳이다(마 26:30). 예수께서는 이곳을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는 것을 일종의 습관으로 삼았던 것 같다(눅 22:39)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감람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행 1:8-12). 오늘날 감람산과 그 주변에는 예수의 마지막 생애 와 관련된 여러 개의 기념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다.

D. 예루살렘 주변의 계곡들

예루살렘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들과 더불어 깊은 계곡들이 삼면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은 마치 삼지창 모양을 하고 있는 세 개의 골짜기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다. 예루살렘 주변의 세 골짜기들은 모두 다윗성 남쪽 부분에서 만나 유다광야 쪽으로 흘러 내려가 사해로 유입된다.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개의 골짜기는 다음과 같다.

1)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계곡은 L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흰놈의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내려온다. 성서시대에 이곳은 좋지 않게 알려진 곳이었다. 아하스와 므낫세 같은 왕들이 바알과 몰록에게 어린아이들을 바치는 의식을 이곳에서 거행하였다(대하28:3, 33:6). 또한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버려진 쓰레 기를 태우는 곳이었다. 그래서 항상 쓰레기 태우는 불과 연기로 이곳에 가득 찼었다. 이 런 이유들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모습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지옥을 의미하는 헬라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헬라어 음역이다.

2) 삼지창 모양에서 가운데 것에 해당되는 골짜기는 ‘티르포에온’ 골짜기이다.

요세푸스는 이 곳을 ‘치즈 만드는 자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이 골짜기는 서편산과 시온산 사이를 가로 지르는 남동쪽 방향의 골짜기이다. 다윗성의 남쪽 부분에서 시작되는 이 골짜기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흰놈의 골짜기와 만난다.

3) 삼지창 모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골짜기는 ‘기드론골짜기’이다.

예루살렘과 감람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골짜기는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의 동편을 지난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다윗성 남쪽에서 다른 두 골짜기와 만나게 된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했던 다윗은 이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삼하 15:23). 요시아왕은 이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불태우기도 하였다(왕하 23:4-6). 예수는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골짜기를 건너 겻세마네로 가서서 기도하였다(요 18:1).

E. 예루살렘의 수원지

고대 예루살렘의 급수 문제는 샘과 물저장 시설과 인공 연못 등으로 해결하였다. 다윗성 아래의 기드론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기혼샘’은 예루살렘의 급수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왕상 1:33-34).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쪽에 ‘엔로겔’이라는 샘이 있다(수 15:7, 삼하 17:17). 이곳은 다윗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오르려 하였던 아도니야가 대관식을 거행하였던 장소이다(왕상 1:9). 앗수르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로 히스기아왕은

기드론골짜기의 기혼샘 입구를 막고, 다윗성 밑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이르는 약 480m 길이의 지하수로를 건설하였다. 이 수로의 마지막 부분에 마련된 인공 연못은 ‘실로암’(왕하 20:20; 대하 32:30) 혹은 ‘실로아’(느 3:5)라고 명명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지하수로를 ‘히스기아의 수로’라고 부른다. 이 수로의 완성으로 유다는 앓수르 군대의 침입과 포위공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식수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대하 32:34). 이곳은 또한 예수께서 눈먼 자를 보내어 이 물에 눈을 씻게 함으로서 그의 눈을 고쳐준 곳이기도 하였다(요 9:1).

고대에 예루살렘에서는 주변에 위치한 샘들을 통하여 충분한 급수를 제공받았지만 예루살렘의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급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석회석 바위를 뚫어 물은 저장하는 저수조 시설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저수조는 대략적으로 그 입구 부분의 둘레가 약 60cm 정도이며, 깊이는 약 4m 내지 6m 정도이었다. 사람들은 이 저수조에 겨울철 우기 동안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길고 건조한 여름철 건기 동안 저장된 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성서시대 예루살렘에는 각 가정마다 개별 저수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공동으로 마련한 많은 인공 연못들도 있었다. 구약에 언급된 연못으로서는 윗 못(왕하 18:17), 아랫 못(사 22:9), 옛 못(사 22:11), 왕의 못(느 2:14), 셀라 못(느 3:15) 등이 있다. 신약성서에는 성전 북편에 위치하였던 양문(느 3:32, 12:39) 결의 베데스다 연못(요 5:2)이 언급되어 있다. 다섯 개의 행각을 갖고 있는 이중 연못으로 유명하였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께서는 38년 간 병들어 있던 병자를 고쳐 주셨다.

예루살렘 남쪽 12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 근처에는 ‘솔로몬의 연못’(전 2:6)이라는 인공 연못이 있다. 이곳은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의 급수를 위하여 근처에 있는 샘물을 모아둔 공동 저수지이다.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돌 수도관을 연결하여 식수공급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당시 예루살렘의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엿보게 한다.

2.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770m의 석회암 산지로 이루어진 베들레헴은 주전 14세기 이집트문서에서 이미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도시가 성경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였다. 다윗의 조상들은 이곳에 오래 전부터 정착하여 살아왔으며, 다윗은 이곳에 태어나 주변 광야의

초지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성장하였다.

베들레헬을 크게 요새화시켰던 왕은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이다. 그는 유다왕국의 동편을 수호하기 위하여 에담, 드고아와 더불어 베들레헬을 크게 증축하였다(대하 11:6). 그 이후 베들레헬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역사에 별로 중요치 않은 주변 도시로 밀려났다. 그러나 베들레헬은 메시아의 탄생지가 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힘입어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미 5:1). 주전 6세기경 바벨론에서 귀환한 123명의 베들레헬 출신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본향에 정착하였을 것이다(스 2:21).

미가의 예언 그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처음으로 기념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339년 콘스탄틴 대제의 생모인 헬레나황후에 의해서였다. 이 기념교회는 그 후 부분적인 변화가 있긴 했지만, 교회가 세워진 본래의 자리나 기본적인 구조에는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베들레헬의 그리스도 탄생기념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는 제롬이 이곳에서 신구약전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일이다. 그는 384년부터 이 베들레헬 탄생교회에 머물면서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그 후 카토릭교회의 공인성서인 ‘별게이트’ 번역본이 되었다.

3. 헤로디움

헤로디움은 베들레헬 남동쪽의 유대광야에 위치한 인공으로 쌓아 올린 758m 높이의 봉우리 형태 요새이다. 좌우로 균형이 잘 잡힌 인공산 헤로디움은 헤롯이 자신의 별궁 겸 요새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전 24~15년 건축되었다. 헤롯은 비상시를 위하여 헤로디움 뿐만 아니라 사해 근처의 마사다와 요르단 쪽의 마케루스 요새들을 건축하였다. 이 곳은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항해 싸울 때 여러 차례 전략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헤롯이 건축한 수영장과 별장터 그리고 경기장 등의 여러 시설들은 헤롯이 자신의 별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하였는가를 보여준다.

2007년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는 헤로디움에서 헤롯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헤롯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의 무덤 발견으로 1세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실체적 인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예수의 역사성도 더불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헤롯은 예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유대인 왕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시 2세 이하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오늘의 일정

새벽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예수님 무덤교회/통곡의 벽/다윗성(히스기야 터널)/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스라엘박물관

오늘의 관점

- ◎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비아 도로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 오늘의 우리들에게 통곡의 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 ◎ ‘홀로코스트’가 인류역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1. 예루살렘의 역사

A. 초기 역사

예루살렘은 이미 주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1세기 유대인 역사를 저술하였던 요세푸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도시는 기원전 2055년에 세워졌다. 고대에 예루살렘은 이집트와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주전 2000년경부터는 가나안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이집트에 예속되는 한 도시국가가 되었다. 주전 14세기경 예루살렘 인근 지역은 히브리인들의 기원과 긴밀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피루’의 지배 지역이 되었다. 이들 ‘하피루’는 주변의 다른 도시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종주국인 이집트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예루살렘왕은 이집트 편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하피루의 동맹국들과 대항하여 싸웠다.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브두헵파’가 이집트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냈는데, 이런 문서들은 ‘아마르나 서신’ 속에 들어있다.

이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합니다. 만약 이 땅이 왕에게 속해 있다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까? 왕께서 수비대를 보내시어 이 땅을 지키게 하소서! 왕에게 속한 땅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엘-아마르나 서신 #289) 다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보십시오. 왕께서 당신의 이름을 예루살렘 땅에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루살렘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엘-아마르나 서신 #287)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피루에 의해 정복되지 않고, 가나안족속의 예루살렘 통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 역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사사기에 의하면,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삿1:8)라고 했지만, 여부스족이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것 같다. 같은 장의 사사기에는 “베냐민자손이 예루살렘에 여부스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삿 1:21)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이후 약 300년이 지난 후였다. 그 이전에는 가나안족에 속하는 여부스가 이 도시를 소유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고고학 발굴 결과로 다윗 이전의 예루살렘 시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때, 그의 군대는 도시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파놓았던 비밀 수로를 이용하였던 것 같다.

수원지인 기혼샘으로 통하는 이 비밀 수로는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인공 지하 비밀 수로이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언급된 ‘치노르’(=수로)는 다윗이 이 도시의 수원지 기혼샘을 장악한 후에 성내로 진입하였던 그 지하 수로로 간주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이곳의 인구는 이스라엘사람과 더불어 아모리인, 가나안인, 그리고 여부스 등의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었다.

B. 제1성전 시대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곳은 베냐민지파와 유다지파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었다. 다윗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지파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중립적 도시인 예루살렘을 새 왕국의 수도로 선택하였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북쪽으로 더욱 확장시켰으며,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비롯한 왕궁과 성벽을 건축하였다. 그 이후 유다의 왕들은 계속하여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북쪽과 서쪽의 방어 문제도 크게 개선시켰다.

19세기말에 발견된 실로암 비문에는 히스기아왕의 명령으로 건축된 지하 수로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지하수로는 예루살렘이 앗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때, 도시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비밀 수로 시설이다. 앗수르의 뒤를 이어 등장한 신흥 바벨론이 이집트와 전쟁을 벌리는

동안 예루살렘은 크게 고통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국력은 극도로 쇠퇴하게 되었다. 마침내 유다왕국과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았다. 제1성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 이 도시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든 잘 알려진 요새화 된 도시였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로서 역할도 중요했다.

다윗왕은 법궤를 이곳으로 옮김으로서 종교적 중요성을 이곳에 영구히 정착시켰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 정복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거룩한 지역으로 받아들여졌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았다(창 14:19).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대하 3:1).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로 여겨진 것은 이스라엘 시대 이전부터였지만, 예루살렘의 종교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것은 다윗의 왕가에 의해서이다. 주전 930년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예루살렘은 유다지파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유다 성읍’이라고도 불렀다(대하 25:28).

이 도시의 종교적 성격은 예언자들의 활동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제1 성전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은 ‘영원한 평화의 도성’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점은 예루살렘을 평화로운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인식하였던 이사야에 의하여 더욱 공고해졌다(사 2:1-4).

C. 제2성전 시대

제2 성전 시대 동안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시온산인 서쪽 지역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궁전 건물들과 요새들, 그리고 아름다운 공공건물들이 세워졌다. 위대한 건축자인 헤롯대왕에 의해 건축된 욥바문 근처의 성채 하단부 석조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통곡의 벽’으로 더 잘 알려진 ‘서쪽 벽’(Western Wall)의 하단부 돌들도 헤롯에 의하여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이다.

이두메 출신으로서 로마의 후원을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확보한 뒤 곧바로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는 일을 착수하였다. 무역과 조세로 얻은 수입으로 그는 상부 도시에 거대한 궁전을 지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궁전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변에 세 개의 거대한 망대도 지었다.

이 세 망대 이름은 각각 ‘파사엘’(그의 형 이름), ‘미리암’(하스모니안 왕족 출신인 부인 이름), ‘히피커스’(그의 친구 이름)이었다. 헤롯은 또한 성전 지역을 두 배로 확장시켰으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에 성벽과 행각을 세웠다. 그는 성전을 증축하면서 성전 자체를 매우 아름답게 꾸몄다. 예수의 제자들도 헤롯이 지은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막 13:1). 성전의 북쪽 구석에는 성전 보호를 위한 목적의 거대한 망대를 세워 그 이름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렀다. 그러한 이름은 당시의 로마의 실권자였던 안토니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헤롯은 또한 부유한 헬라파 유대인을 위해 예루살렘 성안에 거대한 원형극장을 건축하였고, 중앙계곡인 티르포에 온 골짜기 안에는 마차 경주장(히포드롬)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볼 수 있었던 당시의 예루살렘이었다.

헤롯궁전 근처의 성문에서 안토니아 요새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벽은 헤롯시대에 확장된 것이다. 이 두 번째 성벽이 북쪽으로 얼마나 확장됐는지는 고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다. 헤롯 아그립바(40-44년)에 의하여 건축된 세 번째 성벽은 성전의 북쪽에 위치하였던 거주 지역을 성안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의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은 아그립바에 의해 축조된 세 번째 성벽과 대략 일치하고 있다.

헤롯대왕의 건축 사업은 자신의 명성을 후대에 남기고자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가 세운 건축물에는 언제나 길이가 1m 이상 되는 거대한 돌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돌의 주변에는 5cm 내지 10cm 넓이의 장식 부분을 다듬어 만들었다. 헤롯시대의 건축에 사용된 돌들은 현재도 남아있는 성전 서쪽 벽 일부분과 헤롯궁의 피사엘 망대 일부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헤롯의 통치 이후 로마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로마의 직접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자들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이사랴로 거주지를 이전시켰다. 로마가 가이사랴로 수도를 이전하였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모든 면에서 로마에 적대적인 유대인의 중심지였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이사랴가 로마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가이사랴는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연결 시켜주는 해상 교통로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제2 성전 시대 말기의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던 특징은 예루살렘이 로마세계 속에서 상업화 내지 현대화된 도시로 발전하였다는 점과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인구가 불과 몇 천 명밖에 되지 않았던 제1성전시대에 비하여 제2성전시대의 예루살렘은 명실공이 거대한 대도시로 크게 발전하였다.

하시모니안 시대와 초기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커다란 사회적 격변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불멸의 영적 유산을 창출하였다. 이곳에서 유대인의 구전법 기초가 이루어졌고, 후대에 유대교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던 산헤드린과 같은

제도도 확립되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 소망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상징이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루 세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 속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짧으면서도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기도문의 핵심적 내용은 “주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은혜 중에 돌아오소서”이다.

D. 로마와의 전쟁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마지막 10년 동안 로마는 유다 지방에서 증폭되는 유대인 소요에 직면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방인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자들과 충돌하면서 그곳의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면서 66년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한 항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군사령관으로 삼아 로마의 세 군단을 유다 지방으로 파병하였다. 갈릴리 지방을 점령한 베스파시안은 계속하여 유다 지방으로 진군하였다.

69년 봄 베스파시안은 전쟁터에서 로마의 황제에 즉위하게 되었고, 대신에 자신의 장남인 티토가 유다 정복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던 로마군은 70년 8월 28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와 함께 성전을 불태웠다. 그러나 상부 도시를 점령하여 유대인 저항을 진압하는 데에는 한 달이 더 걸렸다. 티토 장군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대부분 건물들은 파괴되었다.

이렇게 폐허화시킨 도시에는 로마의 제10군단이 주둔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견고히 하였다. 유대인들의 로마를 향한 제1차 유대인 전쟁은 제2성전의 파괴와 유대의 독립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후 예루살렘은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렸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재건하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로마를 향한 두 번째 항쟁을 시도하였다.

바르 코흐바와 랍비 아키바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두 번째 유대인 전쟁(132-135년)이 진압된 후, 하드리안 황제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재건하였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실명이었던 ‘아렐리우스’를 사용하여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지었다. 그는 로마의 신이었던 주피터, 유노, 마네르바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신의 카피톨리나’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E. 두 차례의 유대인 전쟁 이후 현대까지의 역사

하드리안 시대 말에서 콘스탄틴 시대에 이르는 약 2세기 동안 예루살렘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콘스탄틴 대제는 이스라엘을 기독교화 시켰으며 예수의 십자가와 무덤 장소를 찾아내도록 명령하였다(326년). 그 당시에 지어진 많은 기념 교회 중의 하나가 오늘날의 성묘교회이다. 469년 유스티니안 황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였고 성벽을 확장시켰는데, 이것은 실로암 못을 비롯한 성 밖의 많은 교회들이 성내에 들어오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저스틴 황제(527-565년) 역시 예루살렘의 많은 건축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건축 사업 중에는 성전 동편에 위치한 황금문과 오늘날의 알락사 사원 자리에 있었던 교회가 포함되었다.

비잔틴시대(330-634년)가 계속되었던 300여 년 동안 팔레스타인지방과 예루살렘에는 비교적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성지가 되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역의 평온함은 때때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깨어지곤 하였다. 614년 페르시아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 지역을 휩쓸었으며, 이때에 예루살렘도 이들 군대에게 점령당하였다.

비잔틴제국의 헤라클리우스는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의 손에서 회복하였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칼립 오마르가 이끄는 신흥 모슬렘 세력에 의하여 새로운 위협을 받았다. 오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638년 이후 예루살렘에는 모슬렘 시대가 시작되었다. 십자군 시대를 제외하면,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터키로부터 탈환하기까지 예루살렘의 실권은 모두 모슬렘제국에게 넘어갔다.

현재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1538년-1540년 오토만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하여 건축된 것이다. 이 성벽의 남쪽은 서편 산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따라서 원래의 시온산성인 다윗성이 성 밖으로 밀려나 있다. 흰놈의 골짜기를 따라 세워진 서쪽 성벽은 헤롯 아그리파가 쌓은 북쪽의 옛 성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편 성벽은 헤롯 시대의 성전산 동편 벽과 일치하도록 이어졌다.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성벽을 쌓으면서 예루살렘을 이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많은 샘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런 샘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예루살렘의 현대 역사가 시작되는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전 지역은 영국의 위임통치 지역이 되었다. 이때 예루살렘은 자연히 영국 식민통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수로 시설이 만들어졌으며, 전력이 도입되고, 도로가 포장되었다. 아직까지 계속되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된 것도 영국의 위임통치가 시작되면서다.

1948년 영국의 위임통치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신생국으로서 독립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유엔의 결정에 의하여 국제도시로 설정이 되어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예루살렘 도심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각각 분할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여러 세계 종교들과 기독교의 여러 교단들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 중심지이다. 모슬렘은 예루살렘을 제3의 성지로 삼고 있으며, 유대교의 최고 랍비회의가 이곳 예루살렘에 주재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 기독교 교단의 주교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유대교의 회당, 회교의 사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희랍정교회, 영국성공회 등 중요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도시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2. ‘디아스포라’란 무엇인가

‘디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트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단어이다. 이는 특정 인종집단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그동안 살았던 기존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다. 성경에서 디아스포라가 처음 언급된 것은 신명기 28:25의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이다. 그러한 모세의 경고는 주전 722년 북왕조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하면서 실제로 일어났고, 뒤 이어 주전 587년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백성의 고위층들이 바벨론에 강제로 잡혀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주전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환을 허락했다.

그에 따라 바빌론의 유대인 중 일부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빌론에 남아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바빌론에 남아 있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동 일대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 주전 4세기 초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제국을 정복하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근동에서 그리스문화가 퍼져나면서 교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것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민정책을 장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주전 1세기 말에는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에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대, 메대, 엘람, 소아시아 지역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애굽의 구레네, 로마, 지중해의 섬나라 그레데(크레타), 그리고 아라비아 등이다(행 2:9-11). 당시의 디아스포라 인구 분포는 로마 제국 내 약 400만 명(로마에 4만 명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반도와 마게도나, 아가야 지방에 100만 명, 소아시아 100만 명, 구레네 10만 명을 포함하여 애굽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100만 명, 바벨론 지역에 1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본토에 거주한 유대인 수는 대략 300만 명으로 추산한다.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중심지는 로마제국의 삼대도시였던 로마,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였다.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정착한 것은 주전 150년 이후였으며, 로마에는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규모가 크고 부유하여 유대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곳은 알렉산드리아였다.

로마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확산에 유리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인들은 로마제국 내의 각지를 여행하면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바울은 세 차례 선교여행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베드로나 주의 동생 야고보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흩어진 지상 교회들을 디아스포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도 당시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약 1:1; 벧전 1:1).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도 한 미국의 정치학 교수 윌리엄 사프란(William Safran)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단순 이주공동체와 구별하였다. 그는 디아스포라란 공동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정 조건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 (1) 디아스포라는 본래 살았던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흩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다.
- (2) 고국에 대한 공동체적 기억과 신념을 보유하고 있다.
- (3)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 (4) 그들이 떠난 고국은 언젠가 조건이 충족되면 되돌아 갈 고향으로 여긴다.
- (5) 떠난 고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 (6) 고국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족적 공동체 의식과 단결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홀로코스트’란 무엇인가?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어 ‘홀로스’(전체)와 ‘카우스토스’(타다)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홀로코스트는 대량 학살을 지칭하는 것에 쓰였지만, 1970년대부터 이것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재앙’을 뜻하는 히브리어 ‘쇼아’(Shoah)를 더 선호하는데, 이는 홀로코스트가 그리스의 종교에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독일 제국과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천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사건을 의미한다.

사망자 중 유대인은 약 6백만 명으로,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백만 명 유대인의 2/3에 해당한다. 유대인 어린이 약 백만 명이 죽었으며, 여자 약 2백만 명과 남자 약 3백만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인과 기타 피해자들은 독일 전역과 독일 점령지의 약 4만여 개의 시설에 집단 수용 구금되어 죽임을 당했다. 나치가 집권한 1933년부터 독일의 항복이 있었던 1945년까지 지속된 홀로코스트는 매일 1,400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한 셈이다.

홀로코스트 학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935년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을 비롯하여 유대인을 사회에서 배척하는 각종 법령들이 세계 대전 발발 전에 제정되었다. 또한 집단 수용소를 지은 후 수감자들은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과로사하거나 병사하였다. 동유럽 점령지의 경우, 특별행동부대라는 불법 무장 단체가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과 정치사범을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군은 유대인과 집시들을 게토에 수용한 후 화물 열차에 실어서 집단 학살 수용소로 이송했다. 화물 열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이들은 차례대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 학살에는 독일 관료제 전체가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 홀로코스트 학자는 이 때문에 독일의 제3제국을 ‘학살국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4. ‘야드 바셈’(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

‘야드 바셈’은 세계2차 대전 중 나치스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운 추모 박물관 이름이다. 1953년 처음 설립된 ‘야드 바셈’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하여 10년 공사 끝에 2005년 3월 15일 재개관하였다. 재개관식에는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15개국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재 건물은 이스라엘 태생의 유명 건축가인 모셰 사프디(Moshe Safdie)에 의해 설계되었다. ‘야드 바셈’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각종 자료와 260만 명의 희생자 사진 및 이름이 전시되어 있다.

‘야드 바셈’은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말로 ‘야드’는 ‘손’(hand)으로 ‘기념물’을 의미하고, ‘바셈’은 ‘그리고 이름’이란 뜻이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야드)과 이름(바셈)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사56:5)

‘야드 바셈’은 역사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학습센터, 영상센터, 회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박물관은 180m의 길이에 선형 모서리와 뾰족한 지붕을 가진 프리즘 형태의 외형 건물이다. 유물 및 사진, 생존자들의 증언 자료, 희생자들의 소지품 등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1953년 설립된 이래 50여 년 동안 수집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1억 3800만 페이지의 문서자료가 보관하고 있다. 생존자 10만여 명의 증언과 사진 40만 여 장도 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the Nürnberg trials)에 관한 법적 문서를 포함하여 나치의 공식 문서, 나치 만행 조사위원회의 문서, 이스라엘 기관의 문서 등이 망라되어 있다.

자료들은 1930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 생존자들의 삶에 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어 홀로코스트의 배경과 이후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끝에 있는 '이름의 홀(Hall of Names)'이 유명하다. 원뿔형 탑으로 희생자 260만 명의 사진과 이름이 20개 이상의 언어로 둥근 벽면 전체가 채우고 있다. 이 홀 발코니에서 예루살렘의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다.

오늘의 일정

기브온 산당/벤세메스/소렉골짜기/엘라골짜기/벤구브린 골짜기(마레사)/라기스 골짜기/브엘세바

오늘의 관점

- ◎ 세펠라(평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 세펠라(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다섯 개의 골짜기는 어떤 것인가?
- ◎ 네게브의 경계는 어디이며 이 지역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1. 세펠라(평지)

A. 세펠라의 지형적 특징

유다산지와 해안평야 사이에 위치한 세펠라는 유다산지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일종의 완충지역이다. 이곳은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다(수 15:33-47). ‘세펠라’의 어원적 의미는 ‘낮은 지역’인데, 그런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말 개역성경에서는 ‘평지’라고 번역하고 있다.

세펠라는 해안지방의 블레셋평야와 유다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얄론골짜기에서 네게브의 경계 부근까지 긴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펠라는 동서 폭이 16~20km이며, 남북 길이는 72km가 넘는다. 지형적으로 세펠라는 해안지방과 연결되는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는 구릉지역으로 높이는 지역에 따라 100m에서 450m가 된다.

세펠라는 유다산지에만 발견되는 독특한 지형이다. 유다산지에 바로 위쪽에 인접한 에브라임산지에는 세펠라와 같은 야산구릉지대가 없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세펠라 산지들 사이에는 백악 성분의 깊고 좁은 계곡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곡들은 서쪽에서 침입하는 외적들을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펠라의 석회암은 유다산지의 석회암과는 달리 비옥하지 못하며 잘 부식된다.

이것은 세펠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강우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고대시대 이곳에는 수목이 우거진 지역이었다(왕상 10:27).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세펠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다 왕들은 세펠라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르호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의 공격에 대비하여 이곳에 견고한 요새들을 세우기도 하였다. 세펠라의 중요한 지형구조는 해안지방에서 산지 깊숙한 내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곡들이다. 이 지역의 대부분 계곡들은 해안 가까운 지역에서는 폭이 넓은 비옥한 계곡이 되지만,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산지 내부로 들어오면 계곡은 점차적으로 좁아지게 된다. 세펠라에는 다섯 개의 중요한 계곡들이 위치하고 있다.

1) 아얄론계곡

아얄론계곡은 유다산지에서 해안지방에 이르는 중요 교통로였다. 이 계곡은 벤호론길과 연결되어 베냐민산지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다(수 10:10-15, 삼상 14:31). 실제로 아얄론계곡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중심도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애굽의 바로 시삭은 르호보암의 통치기간이었던 주전 924년 아얄론계곡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아얄론계곡의 남쪽 입구에는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게셀이 위치하고 있다.

2) 소렉계곡

소렉계곡은 아얄론계곡에서 남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은 삼손의 활동으로도 유명하다(삿 16:4). 소렉계곡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 중 벤세메스와 소라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소렉계곡으로 이어지는 유다산지의 두 계곡은 르바임계곡과 케살론계곡이다. 이 두 계곡들은 모두 예루살렘 근처에서 시작되는 계곡들로서 소렉계곡을 통하여 해안지방으로 이어진다. 블레셋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르바임에서 그들을 두 번이나 격퇴시킨 적이 있다(삼하 5:17-25).

3) 엘라계곡

엘라계곡은 소렉계곡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맞아 싸웠던 곳이다(삼상 17:2). 이 골짜기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가에서 다윗은 물땃돌을 준비하여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다. 베들레헴으로 직접 이어지는 이 계곡 주변에는 아세가와 소고 같은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다.

4) 구부린계곡

구부린계곡은 엘라계곡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성서시대에는 ‘스바다골짜기’라고 불렸다(대하 14:10). 이곳에는 해안지방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나있었으며, 마레사라는 요새가 이 계곡을 방어하였다. 마레사는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계곡에서 이스라엘은 유다산지를 공격하려는 구스사람 세라와 전쟁을 한 적도 있다(대하 14:9-15).

5) 라기스계곡

라기스계곡은 구부린계곡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세펠라지역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계곡인데, 라기스라는 국경도시가 이 지역을 방어해 주었다. 삼손이 가사의 성 문짝을 헤브론까지 가져온 것은 이 계곡을 통해서일 것으로 추측된다(삿 16:3). 주전 791년 산헤립과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은 각각 이 라기스계곡을 통하여 유다산지를 공격하였다(렘 34:7 왕하 18:4).

B. 세펠라의 중요 지역들

1) 게셀(Gezer)

구약시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고 중요했던 도시 중의 하나였던 게셀은 아얄론계곡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게셀은 해안길이 아얄론계곡과 만나는 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요새였다. 게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약 150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게셀이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이었다.

너비가 3m나 되는 거대한 돌들로 만들어진 성벽은 도시를 견고하게 지켜주었다. 그러나 게셀왕 호람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였다.(수 10:33) 비록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사람들을 게셀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였지만(삿 1:29), 이 도시는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었다(수 21:21).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게셀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이 되었다.

그것은 이집트의 바로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이곳을 솔로몬에게 선사하였기 때문이다(왕상 9:15-17). 솔로몬은 게셀을 벧호론과 함께 크게 요새화시켰다. 그것은 베냐민산지로 올라오는 중심도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그는 유다산지를 침공하기에 앞서 먼저 게셀을 공격하였다.

그의 이곳에서의 승리는 곧 유다산지로의 침투를 가능하였으며, 결국 예루살렘의 항복을 얻어내어 유다에게서 조공을 받게 되었다(대하 12:1-12).

현재 게셀에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유적은 솔로몬 시대의 성문이다. 이 성문은 하솔과 므깃도의 성문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 세 도시의 성은 모두가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되었다. 이곳에서는 또한 일 년 동안의 농사활동을 기술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일명 ‘게셀 월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게셀은 십자군시대까지 도시로서의 존재가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폐허로 남아 있다. 1873년 이곳은 재발견되었고, 금세기 초 본격적인 고고학 발굴 작업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2) 벤세메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벤세메스는 소렝계곡을 관장하는 전략적 도시였다. 이곳은 유다의 북쪽 경계선으로서(수 15:10), 레위인에게 분배된 도시였다(수 21:16).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의 벤세메스는 그곳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블레셋의 접경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소라는 삼손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의 아내를 얻었던 블레셋의 도시 팀나도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는 이곳 소렝계곡의 벤세메스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되돌아왔다(삼상 6:12).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다. 주전 1050년 경 이 도시는 파괴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윗시대에 이르러 이곳은 다시 이스라엘의 도시로 재건되었으며, 르호보암은 시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이곳에서의 요새화를 추진하였다(대하 11:5-12). 한때 이곳에서는 유다왕 아마시아와 이스라엘왕 여호아스 사이에 전쟁이 있기도 하였다(왕하 14:11-13). 아하스시대에 벤세메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였다(대하 28:18). 주전 586년 유다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벤세메스는 그 중요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3) 소라

소라는 벤세메스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소렝계곡 안에 위치하고 있다. 아마르나서신에서는 소라가 게셀왕국에 속한 도시로 되어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소라는 단지파에게 분배되

었다. 소라는 아스다올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단지파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고향이기도한 이곳에서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은 이곳에 묻혔다(삿 13:2; 16:31).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도 소라와 아스다올 사이에서였다(삿 13:25).

단지파가 북쪽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이곳은 유다지파 땅으로 합병되었는데(수 15:33), 유다지파 중 기랴트아림 자손이 이곳에 거주하며 살았다(대상 2:54-55). 소라는 르호보암 시대 요새화된 세펠라지역 도시들 중 하나였다(대하 11:10).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 중 일부가 이곳에 정착하였다는 증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느 11:29).

4) 아제카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제카는 100m 정도 높이의 언덕 위에 위치하면서 엘라계곡을 내려다 볼 수 전망이 좋은 곳이다. 여호수아는 벤호론길에서 하나님에 의한 우박의 도움으로 아모리족속을 일차 패배시킨 후에 아제카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수 10:10-11).

블레셋은 사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아제카와 소고 사이에 집결하였으며(삼상 17:1), 이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아제카 근처의 계곡에서 무찔렀다. 아제카는 르호보암이 요새화하시킨 도시 중의 하나였다(대하 11:5-9). 이곳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에 함락 당한 유다의 마지막 두 도시 중 하나였다(렘 34:7).

라기스에서 발견된 문서 가운데서도 아제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다왕국 말기에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아제카 역시 바벨론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정착하였던 유대 도시 중의 하나였다(느 11:30).

5) 라기스

라기스는 헤브론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라시스계곡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라기스왕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방어하기 위하여 싸웠던 아모리 다섯 왕 중의 하나이다(수 10:3). 라기스왕은 여호수아군대에 의하여 막게다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라기스성은 정복되었다(수 10:22-32). 이 도시는 왕정 초기 다윗이나 솔로몬에 의하여 재건되었다. 후에 르호보암은 시삭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라기스를 요새화시켰다(대하 11:19).

주전 701년 산헤립은 유다의 항복을 얻어내려는 압박으로 라기스를 포위 공격하였다(왕하

18:13-17). 니느웨에 있는 산헤립의 궁궐 벽에는 라기스를 공격하는 앗수르군대의 모습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후 앗수르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라기스는 다시 한 번 유다의 전략적 중요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다시 포위되어 점령당하게 된다. 라기스는 아제카와 더불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령하였던 도시이다.

라기스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 ‘라기스 서신’이 유명하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서신은 주전 6세기의 히브리 문자와 어휘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서신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이 세펠라지역의 대부분 도시를 점령하였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2. 네게브(남방)

A. 네게브의 지형적 특징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히브리어로 ‘네게브’는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지만, 지역적 위치가 남쪽이기 때문에 ‘남방’이라는 부차적 의미가 생겼다. 한글 개역성경에서 네게브를 모두 ‘남방’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네게브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경계를 자연 경계선이나 지형적 차이로 규정되지 않는다. 네게브지방에는 자연 경계를 설정할 만큼 두드러진 지형이 없기 때문이다.

네게브는 지형적 차이가 아니라 연중 강우량이 얼마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즉 네게브는 연간 평균 강우량의 분포가 300mm에서 100mm 사이의 지역이다.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유다산지 최남단지역은 연간 평균 강우량이 300mm 정도이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 지역의 연간 강우량은 대략 100mm 정도이다.

그러므로 네게브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약 48km 내외의 지역을 말한다. 네게브 중심부가 되는 브엘세바 주변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200mm 정도이다. 네게브 이남지역은 본격적인 사막이 시작되는 곳으로 시나이사막에 속한다.

연간 평균 강우량이 200mm인 브엘세바 지역은 특별한 인공적 도움 없이 자연적 방법으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최소한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거주가 가능한 마지막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한계를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규정하는 것은 곧 인간의 거주 한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게브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토양은 사막에서 불어온 로에스 황토이다.

이 토양은 물만 적절하게 공급되기만 하면 비옥한 농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농작물 재배에 넉넉하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자주 찾아오는 가뭄으로 생활이 불편한 곳이다. 더구나 사막 민족들의 잦은 침입은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네게브 지역에서의 안정된 정착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했다.

하나는 사막민족들의 침입을 적절히 막아 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도움이고, 다른 하나는 잦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리관리제도의 보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네게브 지역의 사람들은 북부에 위치한 큰 하천들 주변을 따라 정착하였다. 이런 하천 주변에는 샘이나 우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네게브 지방에 내리는 빗물들은 오래 동안 말랐던 와디를 통하여 하천으로 흘러온다. 이때에 주변의 사막들과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과 합류하여 때로는 급작스러운 홍수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급류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갑자기 생기는 홍수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시편 126:4의 ‘남방의 시내들’은 이런 급류의 홍수를 의미하였다.

‘아랏’이나 ‘호르마’와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네게브의 북동쪽 지역은 비교적 지대가 높으며 로에스 황토가 넓게 덮여있는 평야지역이다. 비록 강우량은 많지 않아 건조한 지역이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농경과 목축이 가능하였다.

브엘세바 이남 24m 지점부터는 황량한 사막이 시작된다. 성경에서는 이런 네게브에 인접한 사막지역으로서 신광야, 바란광야, 시내광야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서 언급된 가나안땅 남쪽 경계는 신광야이다. 네게브의 남부 광야지역은 주로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산지 중에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곳도 있다.

신광야와 바란광야의 중심부에는 각각 신강과 바란강이 흐르고 있다. 신강을 경계로 하여 네게브산지는 비교적 높은 남부산지와 낮은 북부산지로 나뉘어 진다.

바란강은 에일랏의 남서쪽 시내광야에서 발원하여 아라바계곡으로 흐르는 강이다. 바란강의 전체의 길이는 무려 240km나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강이기도 하다. 강이 흐르는 계곡의 넓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넓은 곳은 무려 3km 이상 되는 곳도 있다. 네게브의 강들은 일년 중 대부분 마른 상태이지만, 갑자기 내리는 겨울철의 폭우로 인하여 강 전체가 범람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현대 이스라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게브는 홍해변의 에일랏까지 포함되는 거대한 지역이다. 그 모양은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밑변이 되고 있는 북쪽지역은 유다산지의 외곽으로 가사에서 브엘세바의 북쪽지역을 지나 사해의 남단까지 이른다. 동쪽 경계는 아라바계곡이며,

남서쪽의 경계는 가사지역에서 에일랏에 이르는 이집트와의 국경선이다.

삼각형 모양의 네게브지방에서 꼭지지점은 홍해의 에일랏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적 개념의 네게브 전체 면적은 약 12000km²로서, 현대 이스라엘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네게브는 이스라엘에게 개발이라는 도전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에서 네게브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홍해를 통하여 인도양 연안 국가들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B. 네게브의 중요 지역들

1) 브엘세바(Beershe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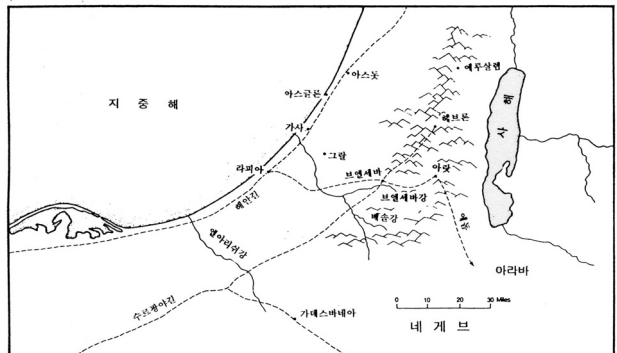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브엘세바는 네게브의 중심도시이다. 성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 역할을 하였던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는 블레셋과 아말렉의 침공을 자주 당하였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동서 교통로와 남북 교통로가 만나는 곳으로 경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연평균 강우량이 200mm 정도인 이곳은 우기에 제한적인 농업도 가능하지만, 주된 생활경제는 목축에 의존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브엘세바 근처에는 농사와 목축을 겸하는 반유목민들이 주로 정착하여 살았다.

현대의 브엘세바는 15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현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4 km 떨어진 곳에는 고대 브엘세바인 ‘텔 세바’가 위치하고 있다. 텔아비브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아하로니에 의하여 이곳이 발굴되면서 ‘텔 세바’는 성서시대의 브엘세바였음이 확인되었다.

1969년-1976년 사이에 있었던 발굴 작업의 결과로 ‘텔 세바’ 언덕에서 사사시대부터 유다왕국의 멸망 때까지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흔적을 찾아내었다.

당시의 브엘세바는 튼튼한 성벽을 갖추고 있던 도시였다. 왕국시대 브엘세바는 단, 벤엘, 길갈 등과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으며(암 5:5; 8:14), 요시아의 종



교개혁은 이곳 브엘세바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왕하 23:8) 브엘세바는 앗수르의 산헤렘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것 같고, 그 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이곳에 정착하였다(느 11:27). 그러나 이스라엘의 변방지역에 위치하였던 브엘세바는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이두메인들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2) 아랏(Arad)

아랏은 성경에 단지 네 번 밖에 언급되지 않는다(민 21:1; 33:40; 수 12:14; 삿 1:16). 그러나 아랏은 성경시대 변방을 방어하는 요새이자 행정의 중심지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도시였다. 동부 네게브에 위치하고 있던 아랏은 에돔으로 내려가는 간선도로 상의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한 아랏의 역사적 중요성은 왕국시대 동안 무려 여섯 번이나 파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재건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아랏을 통치하였던 가나안왕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아다라임길을 따라 북상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랏왕을 호르마에서 크게 격파하였다(민 21:1-3).

1962년-1967년 사이 히브리대학교의 주도하에 진행된 아랏에서의 고고학 발굴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시대의 신전을 발견한 것이다. 구조나 방향 면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형태의 아랏 신전은 내부에 중앙 거실과 더불어 지성소가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산당과 세운 돌(마체바)이 안치되어 있었다.

신전의 외곽 뜰에는 진흙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있었다. 아랏에 예루살렘 성전과 유사한 형태의 신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가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에 경쟁적이었던 지방 신전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3) 가데스바네아(Kadeshbarnea)

가데스바네아는 시나이반도의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신평야에 위치한 한 오아시스지역이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바위를 두 번 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상실하였다(민 20:2-13).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두 장소가 옛 가데스바네아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 두 장소는 모두가 지리적 위치나 풍부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가데스바네아의 후보지로서 손색이 없다.

약 8km 정도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후보지는 ‘아인 쿠데이스’와 ‘아인 쿠데이랏’이다. 이 두 곳은 연중 계속 물이 솟아나는 좋은 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곳 주변에 천막을 치고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오아시스 근처에 형성된 목초지는 가축들을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곳 가테스바네아에서 죽어 장사되었다(민 20:1).

‘아인 쿠데이랏’ 오아시스 근처 텔에서 한때 고고학 발굴 작업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유다왕국시대의 요새가 발견되었는데, 여호사밧이나 웃시아시대에 유다의 남부 경계지역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의 일정

엠마오/욥바/가이사랴/갈멜산/악고(돌레마이)/로쉬 하니크라(레바논 국경)

오늘의 관점

- ◎ 이방선교와 관련하여 욥바와 가이사라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 ◎ 므깃도가 마지막 전쟁터인 아마겟돈으로 예언된 배경은 무엇인가?
- ◎ 엘리야가 갈멜산을 바알-아세라 선지지들과의 신앙대결 장소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십자군시대 역사와 관련하여 악고가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 샤론평야

A. 샤론평야의 지역적 특성

샤론평야는 갈멜산에서 욥바 근처의 야르콘강까지 약 80km 길이의 해안평야지역이다. 해안에서 서쪽의 중앙산지까지 폭은 비교적 넓어 평균 16km가 된다. 대부분의 지역을 덮고 있는 붉은 색깔의 모래는 물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거대한 습지대로 만들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샤론을 사막 같다고 한 것은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붉은 색 모래 때문이었다.(사 33:9) ‘샤론’의 어원적 의미는 ‘숲이 우거진 지역’ 이지만, 그것은 습지대에 형성된 잡목 숲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샤론의 수선화’(아 2:1)나 소와 양들을 방목하였던 ‘샤론의 들’(대상 5:16; 27:29; 사 65:10)에 관한 내용은 모두가 이 지역에 형성된 습지대와 관련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샤론평야의 대부분은 잡목과 수풀로 뒤덮여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농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곳을 지나는 해안길 역시 평야의 중심지역이 아닌 산지 쪽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샤론평야의 울창한 잡목 숲은 1차 세계대전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였던 터키가 기차연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부분 벌목되었다. 1920년대 시온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매입하여

유대인 이민자들의 정착지로 삼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대로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대인 이민자들은 늪지대의 물을 말려나가면서 이 지역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과수재배 단지로 만들었다. 특히 이곳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오렌지의 주 생산단지가 되고 있다.

샤론평야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이 지역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였다(수 17:12-13; 사 1:27-28). 성경 내용에 따르면, 샤론지역에는 레위인에게 속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수 21:8-42; 대상 6:54-66). 다윗시대에 이르러 샤론의 일부지역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역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솔로몬은 이곳을 ‘헤벨의 땅’(왕상 4:10)이라고 불렀으며, 벤헤셋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관장하게 하여 왕궁에서 쓸 한 달간의 물건들을 매년 조달시켰다(왕상 4:27). 헤롯시대 이곳에 가이사랴 항구가 건설되면서 샤론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이사랴를 통하여 로마와의 교역이 증대되면서 가이사랴와 다른 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 도로들이 샤론평야 내에 건설되었다.

B. 샤론평야의 중요 지역들

1) 룯다

룯다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여호수아의 정복이 있기 약 200여 년 전인 주전 15세기 이미 이 도시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남긴 기념비에는 룯다가 오노와 읍바 사이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룯다는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 등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도시이다. 단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등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역대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오노와 룯다와 그 향리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대상 8:12). 룯다는 에브라임산지와 유다산지에서 서쪽의 해안지역과 남쪽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도 읍바로 가는 길은 룯다를 지나고 있었으며, 이 길은 이집트로 가는 국제도로인 해안길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곳은 여러 시대를 거쳐 해안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산지로 올라가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로마시대에도 세 개의 주요도로가 룯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었다. 하나는 ‘벤호론’을 경유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엘 쿠베이바’(El-Kubeibah)를 경유하는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엠마오’-‘기르얏 여아림’-‘모짜’를 경유하는 길이다. 세 번째 도로는 현재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이어주는 고속도로 길이기도 하다.

룻다의 주변 지역은 비옥한 룻다평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이곳은 과수 재배와 농작물 재배로 유명하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후 룻다는 유대인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근처의 주요도로와 비옥한 토양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로마시대에 룻다지역은 행정적으로 더 넓게 확장되었다. 즉 룻다의 북쪽은 안디바드리까지, 동쪽은 예루살렘까지, 서쪽은 야브네와 옴바까지, 그리고 남쪽은 아스돗까지 확장되었다. 로마인은 룻다의 편리한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예루살렘-옴바 길을 통제하기 위하여 룻다에 그들의 전략적 요새를 세우기도 하였다

2) 옴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옴바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해안길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세워진 옴바는 주변을 잘 전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옴바는 해안 주변에 바위와 암초로 둘러싸인 작은 규모의 항구였다. 옴바는 비록 규모가 작은 항구였지만 역사적 역할이나 영향력은 다른 어느 곳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컸었다.

경제적으로 옴바는 유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이었다. 무엇보다도 옴바는 국제도로인 해안길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뿐 아니라 이곳은 바다를 통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는 국내도로가 시작되는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곳에서부터 샤론평야, 쉘펠라, 유대산지 및 에브라임산지 등으로 통하는 크고 작은 도로들이 잘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옴바 주변의 토양은 농작물 재배에 적합하였다. 이러한 편리한 지리적 위치와 유리한 경제적인 여건에 힘입어 옴바는 샤론지역의 중심적 도시가 되었으며, 지중해의 다른 연안도시들과의 교역도 성행하였다.

옴바에서 실시되었던 고고학 발굴 결과에 의하면, wn전 2000년 옴바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았다. 당시 옴바는 가나안의 전체 해안지역을 총괄하는 이집트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옴바의 역사는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여 겪었다.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 옴바는 헬라화 된 도시로 발전하였고, 로마의 폼페이상은 이곳을 자유도시로 만들었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는 옴바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었지만, 그 후 안토니아는 이곳을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주었다. 헤롯이 유다의 통치자가 되면서 그는 옴바를 유대지방에 예속시켰고, 그런 상황은 66년의 유대인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헤롯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옴바의 유대인들 때문에 헤롯은 가이사랴에 옴바를 대체 할 수 있는 항구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항구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의 하나인 옴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다. 옴바는 비록 단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수 19:46),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토가 되질 못했다. 그러나 해안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던 다윗시대에 이르러 옴바는 이스라엘의 실제적 영토가 되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짓기 위하여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 재목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옴바 항구를 적극 활용하였다(대하 2:16).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도 이곳 옴바였다(욥1:3). 신약시대 베드로는 옴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다(행 9:36-43).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곳에서 이방선교를 위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넬로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선교의 실제적 문을 열게 한 사건이 되었다(행 10장).

3) 가이사랴

샤론평야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랴의 역사는 주전 3세기 중엽 뵈니게 사람들이 이곳에 요새화된 작은 규모의 정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스트라토의 탑’이라고 불렀다. 로마시대 이 도시가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항구도시가 된 것은 주전 22년 이곳에 헤롯이 대규모의 항구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다. 그는 이곳을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가이사랴’라고 개명하였다. 헤롯의 가이사랴 건설은 고대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인공 항구 건설이었다.

헤롯의 건축가들은 나무로 만든 통을 만들어 그 속에 콘크리트를 부어 바다에 두개의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었다. 가이사랴는 로마식의 원형극장, 마차경주장, 로마식 목욕탕,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 등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로 유명하였다. 이 도시에는 자연 식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헤롯은 갈멜산 기슭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12km의 도수로를 건설하였다.

가이사랴는 로마시대 유다지방을 통치하던 로마총독의 주재 도시였다. 예수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도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다. 로마는 또한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로마군단을 가이사랴에는 주둔시켰다. 베드로가 방문하였던 고넬로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단 소속의 백부장이었다. 당시의 가이사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도시였다. 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생긴 충돌은 66년 전국적 규모의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했다.

전도자 빌립은 가이사랴서 복음을 전하였고(행 8:40), 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다(행 21:8). 가이사랴는 또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로가

살았던 곳이다(행 10:1). 바울은 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 이곳 가이사랴를 방문하였고(행 18:22, 21:8),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는 약 2년 간 이곳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가이사랴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인 3세기 경 이미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다. 오리겐은 이곳에서 기독교를 가르쳤고, 그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세비우스는 이곳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저술하였다. 가이사랴가 다시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은 비잔틴시대였다. 그러나 640년 가이사랴는 아랍에게 점령당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도시가 되었다.

십자군시대 가이사랴는 다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현존하는 가이사랴 성채는 1251~1252년 십자군왕국의 루이 9세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십자군이 물러가면서 아랍의 마므룩군대는 십자군의 재 침입을 우려하여 가이사랴 성채를 모래에 완전히 묻어 버렸다. 그 이후 지금까지 가이사랴는 모래 속에 묻혀있는 폐허의 도시가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가이사랴에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 갈멜산과 기손강

A. 갈멜산

중앙산지의 이블레암 부근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 24km 뻗어 나온 갈멜산은 현대도시 하이파에서 지중해와 만나고 있다. 갈멜산은 가장 높은 곳이 552m에 불과한 낮은 지형의 산지이다. 갈멜산의 이러한 낮은 산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중요한 도로들은 대부분 갈멜산을 지나고 있다. 이곳을 통과하는 도로로서는 욱네암, 무깃도, 다나악 등을 지나는 통로 등이 유명하였다.

‘갈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의미인데,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가를 설명하는 명칭이기고 하다. 특히 갈멜산의 서쪽 기슭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습도 높은 서풍으로 인하여 매우 비옥한 지역이 되고 있다. 이곳의 년 평균 강우량은 약 700mm 이상이다. 옛날부터 이곳의 울창한 숲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사 35:2; 렘 46:18; 아 7:5). 샤론과 에스드리엘론의 두 평원 사이에 높이 솟아있는 갈멜산은 석굴이 많고 수목이 울창하며 산 아래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 이곳은 아셀지파에게 분배되었다(수19:26). 엘리야는 이 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신앙대결을 벌렸다(왕상 18:20-40). 엘리야 승천 후 그의 제자 엘리사는 잠시 이곳에 머물렀었는데, 그가 이 산에 있는 동안 수넬 여인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왕하 4:25-35).

갈멜산 남동쪽에는 1868년에 세워진 '므흐라카' (Muchlaka, 불의 제단)라 불리는 갈멜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본래 십자군의 성채가 있었던 곳으로 주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북동쪽으로는 이즈르엘 계곡평원이 내려다 보인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산지를 조망할 수 있다. 수도원 뜰에는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엘리야의 석상이 세어져 있다.

B. 기손강

현재는 아랍어로 '나할 엘무콤타'라고 불리우는 기손강은 무깃도 근처의 북부 사마리아 산지에서 시작되어 이즈르엘평야와 악고평야를 거쳐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이다. 기손강은 이즈르엘계곡을 거치면서 길보아산과 나사렛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다른 지류들과 합류한다. 성경에서는 '기손 시내'(왕상18:40, 시83:9) 혹은 '기손강'(삿5:21)이라고 불렸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는 '무깃도 물가'라고 하여 그 강의 위치가 무깃도 근처임을 보여주고 있다(삿5:19). 또한 스블론지파의 땅에 속한 지역으로서 '욕느암 앞 시내'라고도 하였다(수 19:11).

이 강은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 하구에서부터 내륙 쪽으로 약 10km 정도까지만 일 년 내내 물이 흐르는 상시천이고, 나머지 상류 지역은 우기인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는 계절천이다. 건기인 여름철에는 기손강의 수원을 이루는 샘물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는 강물이 거의 말라있다. 그러나 겨울철 우기가 되면 갑자기 강물이 늘어나면서 강 주변의 부드러운 토양은 진흙 뿔로 변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시스라의 강력한 마병이 패전하게 된 원인도 폭우로 인하여 생긴 강 주변의 진흙 뿔 때문이었다(삿 5:20이하).

기손강과 관련된 성경의 역사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와 싸움을 펼친 것(삿 4:7,13,5:21)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신앙 대결을 벌린 후 이곳에서 그들을 처형시킨 일(왕상 18:40) 등이다.

3. 악고평야

A. 악고평야의 지형적 특성

악고평야는 로쉬-하니크라와 갈멜산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체 길이는 약 40km가 된다. 해안에서 갈릴리 산지까지의 폭은 평균 약 12km이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은 더욱 좁아져서 북쪽 한계점인 로쉬-하니크라에서는 산지와 바다가 서로 만나 일종의 절벽형 산지를

이루고 있다.

성경시대 이 지역은 바닷가의 모래언덕으로 인하여 늪지대를 이루었다. 특히 오늘날의 하이파(Haifa)가 위치하고 있는 해안은 모래침전이 심하여 바다의 수심이 매우 얇으며, 이 모래 퇴적은 멀리 악고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래 퇴적은 항구 건설에 불리한 여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다로 유입되는 강물의 흐름을 막아 넓은 늪지대를 형성하였다. 이런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이 지역을 지나가는 주요 도로나 이 지역에 형성된 농경지는 바다 쪽이 아닌 내륙 안쪽으로 형성되었다.

악고평야는 아셀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수 17:11; 19:26),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삿 1:31-32). 따라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곳의 중심도시인 악고는 프톨레미왕조 통치 때 ‘돌레마이’라고 개명되어 신약시대까지 유지되었다. 갈멜산과 지중해가 만나는 해안에는 현재 이스라엘의 삼대 도시 중하나인 하이파 항구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B. 악고평야의 중요 지역들

1) 로쉬-하니크라 (Rosh-hanigrah)

악고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로쉬-하니크라라는 갈릴리산지의 한 산줄기가 서쪽으로 뻗어져 나와 지중해와 만나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일명 ‘두로의 사닥다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명이 붙게 된 것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북쪽에 두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중해로 뻗어 나온 절벽형 산 모양이 마치 계단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닥다리’(ladder)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술람’은 오히려 계단을 의미한다(참조. 창 28:12). 히브리어 명칭인 ‘로쉬-하니크라’는 ‘깨어진 틈이 있는 산 정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로쉬-하니크라 절벽 밑에는 바다 파도로 형성된 커다란 석회암 동굴들이 위치하고 있다.

로쉬-하니크라라는 레반트지역의 해안평야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자연 경계선이다. 이곳은 또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해안에서의 북쪽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마카비시대 시몬이 통치하는 지역의 북부 경계선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고 있다.

2) 악고 (Acco)

악고는 악고평야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옛 악고는 현재의 악고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자리잡고 있었다. 악고는 이스라엘 북부지역에서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릴리와 이즈르엘 평야로 통하는 관문역할을 하였다. 악고는 비록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다윗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토가 되지 못하였다. 솔로몬의 통치 때 이곳은 두로의 영역이 되어 있었고(왕상 9:10-13), 알렉산더의 정복이 있기까지 이곳은 뽀니게 지방에 속하였다.

헬라시대에 이르러 악고는 중요한 항구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프톨레미 2세는 이곳을 ‘돌레마이’(Ptolemias)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었다. 바울은 그의 제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치는 기원 57년경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여행하는 도중 여기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여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다.(행 21:7)

바울 당시 이곳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일단의 퇴역군인들을 정착시킨 지역이었으나, 기원 64년 이곳은 로마의 직접 식민지로 격상되었다.

십자군시대 악고는 십자군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항구도시였다. 1187년 ‘히틴의 뿔 언덕’ 전투에서 십자군이 살라딘 군대에게 패배한 이후 악고는 약 100여 년 동안 쇠퇴하는 십자군왕국의 수도 역할을 하였다. 1291년 43일간에 걸친 마므룩군대의 포위공격으로 악고는 마침내 함락되었다. 당시 미처 성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탈출할 배를 기다리고 있던 악고의 3만여 주민들은 무참히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려갔었다. 악고의 함락으로 팔레스타인에서의 십자군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의 일정

골란/바니아스(가이사랴 빌립보)/단/고라신/가버나움/팔복산/오병이어교회/베드로 수위권교회
/선상예배

오늘의 관점

- 갈릴리바다는 담수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라고 불리는가?
- 신약시대 갈릴리바다 주변 지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 예수께서는 왜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는가?
-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 상부 요단강의 세 근원지는 어디인가?

1. 갈릴리바다

골란고원(바산)과 하부 갈릴리산지로 둘러 싸여있는 갈릴리바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연 담수호이다. 이곳은 일반 바다가 아닌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바다 개념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바다와 다르기 때문이다. 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얌'은 바다와 호수의 구분 없이 많은 양의 물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한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뜰에 있었던 물두멍을 '바다'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왕상 7:23)

A. 갈릴리바다의 명칭

역사적으로 갈릴리바다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신약성경에서도 갈릴리바다를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1) 갈릴리바다(Sea of Galilee)

신약성경에서 이 바다는 주로 '갈릴리바다'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이 명칭은 갈릴리산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2) 긴네렛바다(Sea of Kinneret)

구약성경에서는 갈릴리바다를 ‘긴네렛’이라고 불렀다. 이 명칭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 바다에 대한 공식 명칭이다. ‘긴네렛’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확실치 않다. 일부에서는 하프 모양을 띄고 있는 갈릴리바다와 연관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하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키노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갈릴리바다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였던 ‘키나로트’라는 도시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이곳에는 빈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키나르’라는 신을 섬겼다.

3) 디베라바다(Sea of Tiberias)

갈릴리바다의 또 다른 명칭은 ‘디베라바다’이다. 이것은 갈릴리바다의 서쪽 해안에 안티파스에 의하여 건설된 ‘티베리아스’에서 기원된 명칭이다. 안티파스는 당시 로마왕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가져와 이곳 이름을 붙였다. 신약성경 뿐 아니라 유대인 경전에서도 이곳을 ‘티베랴’라고 불렀다. 오늘날 아랍사람들이 이곳을 ‘바하르 타바리아’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4) 게노사렛바다(Sea of Gennosaret)

신약성경에서 언급된 갈릴리바다의 네 번째 명칭은 ‘게노사렛’이다. ‘게노사렛’은 ‘지방장관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명칭은 갈릴리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노사르평원에 서 연유된 명칭이다. 신약시대와 동시대인이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갈릴리바다를 ‘게노사렛’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릴리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은 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 이름들과 연관이 있다. 헬라의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Strabo)는 갈릴리바다 남동쪽 야르묵강 근처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곳을 ‘가다라’(Gadara)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

B. 갈릴리바다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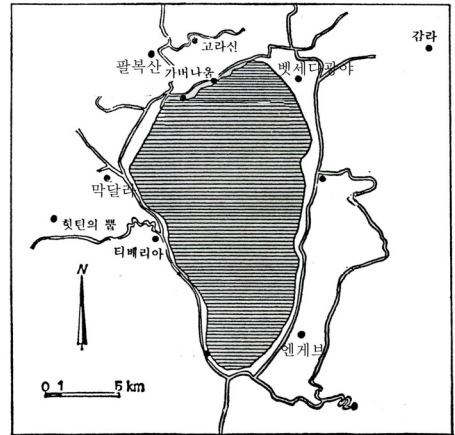
갈릴리바다의 남북간 최장 길이는 21km이며, 가장 넓은 폭은 12km이다. 갈릴리바다 전체 면적은 약 165km² 이다. 갈릴리의 해수면은 지중해보다 210m가 낮다. 그러나 갈릴리바다의 해수면 높이는 계절과 연간 강우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갈릴리바다의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49m인데,

서쪽보다 동쪽이 더 깊으며 남쪽보다 북쪽이 더 깊다. 이것은 동쪽에 있는 골란고원의 경사면이 서쪽에 있는 갈릴리산지 경사면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갈릴리바다의 전체 수량은 약 45억6천2백만m²에 달한다.

갈릴리바다로 유입되는 요단강을 비롯한 그 외의 다른 유입 물줄기들은 모두가 깨끗한 담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바다에는 약간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1리터의 물속에 약 250-400mg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염분 농도는 건조기에는 조금 더 높아지고, 우기에는 다소 낮아진다. 갈릴리바다 물에 포함된 염분은 바다 주변과 바다 밑바닥에 있는 광천수 샘들에서 나오는 염분성분 때문이다. 그런 요인과 더불어 건조한 날씨로 인한 물의 증발도 염분 형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샘들에서 나오는 염분을 갈릴리바다 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 수로를 만들어 갈릴리바다 아래 지역으로 배수시키고 있다.

갈릴리바다 주변지역은 언제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다. 제2 성전시대 갈릴리 주변에는 어림잡아 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갈릴리바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노사렛평원은 특별히 비옥한 곳으로 유명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유대전쟁사 3:7-8), 이곳의 비옥하고 좋은 토양 덕분에 잘 맺지 못하는 과실이 없을 정도였으며, 주민들은 모든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며 살았다. 이곳은 기후도 알맞아 많은 종류의 생물이 서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연의 놀라운 혜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요인이 되었다. 헬라시대와 로마시대에 갈릴리바다 근방에는 많은 도시들이 세워졌다. 바다 주변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식으로 지어진 궁전, 원형 경기장, 극장, 그리고 목욕탕의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가버나움, 타브가, 고라신, 아르벨, 벳세다, 수시타, 엘하마, 가다라 같은 도시들의 유적은 당시 이 지역이 얼마나 번창하였던 지역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높은 문명 수준을 지녔던 헬라와 로마시대의 번영과 갈릴리바다 주변에서 꽃피었던 신약성경 및 초기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탈무드와 같은 경전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의 영적 유산은 갈릴리바다 주변의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크게 발전했음이 분명하다.

갈릴리바다 주변은 300m 이상 되는 가파른 산지로 둘러 싸여 있어 마치 깊은 분지 속의 바다를



갈릴리바다 주변 지역들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지의 급경사는 주변 산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급작스러운 돌풍으로 바뀌게도 한다. 이러한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는 특히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나무가 별로 없으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골란고원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돌풍현상은 바다 물을 크게 요동시켜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부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예수께서도 이런 돌풍으로 일어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바가 있다(마 8:26).

갈릴리바다에는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울리는 소리를 내는 메기종류인 ‘바르부트’도 이곳에서 서식한다. 호수에서 서식하는 여러 종류의 고기를 잡아들이는 어업은 주변의 비옥한 평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함께 이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었다. 이러한 좋은 여건 때문에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바다 가까운 주변 지역에 정착하였다. 신약성경과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헬라와 로마 통치시대에 갈릴리 해변에는 많은 유대인 어부들이 정착하여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갈릴리 주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살았던 어부들이다.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곧 바로 소금에 절이는 방법으로 상품화되었는데, 그렇게 말린 고기는 로마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유명했다.

C. 갈릴리바다 주변의 비옥한 계곡 평원들

갈릴리바다 북쪽 해안의 양단에 위치하고 있는 게노사렛평원(Gennesaret)과 벳세다평원(Bethsaida)은 바다 주변의 산지에서 씻겨 내려온 충적토로 이루어진 비옥한 평원 지역이다. 이곳의 충적토는 석회석, 백악, 현무암 등이 풍화되어 생긴 토양으로서,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옥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두 평원에는 갈릴리바다로 유입되는 수원들이 흐르고 있다. 게노사렛평원을 통과하여 유입되는 수원으로서 ‘나할 아무드’ ‘나할 잘몬’ ‘나할 아르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나할 아무드’와 ‘나할 잘몬’은 상시천이지만, ‘나할 아르벨’은 우기에만 흐르는 마른 개울 와디이다. 벳세다평원을 통과하여 갈릴리바다로 유입되는 강은 유입 물량이 가장 많은 요단강이며 그 외에도 몇 개의 작은 강들이 있다.

두 개의 계곡 평원이 위치하고 있는 북부 해안지역을 제외한 갈릴리바다의 다른 지역은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산지와 인접하여 있다. 이런 지형적 이유 때문에 갈릴리바다 주변의 도로들은 대부분이 북쪽 해변을 따라 형성되었다. 게노사렛평원의 남쪽 지역은 하부 갈릴리산지에 속하는 아르벨산이 갈릴리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 산과 해변 사이는 불과 수 미터밖에 되지 않는 좁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다메섹에서 내려오는 해안길은 아르벨산 밑을 지나 하부 갈릴리산지

내부로 연결된다. 벳세다평원의 남쪽 지역 역시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골란고원이 갈릴리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좁은 해안을 이루고 있다. 특히 ‘쿠르시’(Kursi) 근처는 높은 절벽모양의 해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벳세다 평원에서 갈릴리바다의 남단에 이르는 동편 해안은 지역에 따라 100m 내지 1.6km 넓이의 해안지역을 이루고 있다.

D. 갈릴리바다 주변의 중요지역들

1) 가버나움(Capernaum)

‘나훔의 동네’라는 의미의 가버나움은 갈릴리바다로 유입되는 요단강 하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갈릴리바다 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예수께서 갈릴리바다를 중심으로 벌렸던 복음사역의 중심지였다(마 4:12-14). 예수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들을 행하였다(막 2:1-12; 눅 4:23; 요 4:46-54). 그리고 이곳의 회당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중요한 장소였다(막 1:21-22).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서 기원 3세기 초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건물이 유명하다. 최근에 있었던 발굴 작업에 의하면, 3세기의 회당건물 아래에서 초기시대의 회당건물 바닥이 발견되었다. 이 초기 회당은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셨던 회당일 것으로 보고 있다.

회당과 바닷가 사이에서는 비잔틴시대의 팔각형 교회건물이 발굴되었다. 이 교회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로 알려져 있다.(마 8:14) 381-384년에 이스라엘을 순례한 수녀 에게리아(Egeria)의 성지순례기에 의하면, 당시 이곳에 교회로 바뀐 베드로의 집이 보존되어 있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벽은 옛 모습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에서 주님은 중풍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셨다.”

2) 벳세다(Bethsaida)

갈릴리바다의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었던 벳세다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었다(요 1:44; 12:21). 신약시대 벳세다는 ‘줄리아’라는 도시와 인접하여 있었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줄리아는 원래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지만, 분봉왕 빌립은 이 도시를 ‘폴리스’(헬라의 도시)로 격상시키면서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줄리아를 이 도시 이름으로 삼았다. 로마식 도로가 벳세다와 줄리아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을은 마치 한 마을처럼 여겨졌었다.

예수께서 벳세다 근처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었다(막 8:22). 후에는 그는 벳세다 사람들의 불신앙을 크게 책망하기도 하였다.(마 11:21)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푼 곳은 벳세다와 줄리아의 남동쪽에 있는 빈들로 전해오고 있다.

3) 고라신(Korazim)

고라신은 갈릴리바다 해변의 가버나움에서 산 위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로마시대에 이곳은 크게 번성하였던 유대인 도시였다. 이곳은 갈릴리바다에서 북상하는 해안길이 지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다. 고고학 발굴작업에 의하면, 고라신의 면적은 약 17에이커 정도의 작은 규모이었다. 이곳에서도 예수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신앙을 예수는 크게 책망하였다(마 11:20-21).

고라신의 건물들과 거리들은 근처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무암으로 건설되었다. 고라신에서 발굴된 유적 중에서 유명한 것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된 옛 회당건물이다. 이 회당은 서기 2, 3세기의 갈릴리지역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회당건물 모양과 유사하다. 가버나움의 회당건물이 유다지방에서 생산되는 밝은 석회석으로 건축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라신의 회당은 근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현무암으로 지어졌다. 회당 안에서 발견된 것 중에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모세의 자리’(마 23:2)가 유명하다. 이 좌석은 회당예배에서 토라를 읽는 자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4) 티베리아(Tiberias)

갈릴리바다 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티베리아는 주후 18-22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이 도시를 건설하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의 로마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라고 하였다. 안티파스는 티베리아를 건설하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갈릴리지방과 베뢰아지방의 행정적 수도를 세포리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안티파스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곳에 당시 유명한 온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는 이 도시가 유대인의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이곳을 부정한 도시라고 여겼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곳에 거주하는 것을 꺼리는 유대인들 대신 가난한 소작인들, 풀려난 노예들, 퇴임한 군인들을 강제로 이곳에 살게 하였다. 그러나 서기 2세기초에 있었던 유대인의 로마를 향한 두 번째 항쟁인 바르코흐바전쟁 이후에는 티베리아가 유대인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3세기 초 미쉬나를 집필한 랍비 유다가 이곳에서

살았고, 4세기 말경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이곳에서 완성되기도 하였다.

6-7세기에는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자음본문에 붙이는 모음체계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며, 히브리어 본문이 필사되었고, 성경 본문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마소라’ 체계가 발전하기도 하였다.

2. 바산(골란고원)

A. 바산의 지형적 특징

바산의 경계는 북쪽의 헬몬산에서 남쪽의 야르묵강까지이다.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의 ‘바산’은 그 명칭 자체가 암시하고 있듯이 산지의 정상이 평평하게 이루어진 고원지대이다. 산지의 평균 높이는 약 600m 정도이며,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고, 남쪽과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바산은 두 가지 면에서 요단동편의 다른 지역과 다르다.

(1) 첫째는, 바산의 서쪽 경사지가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런 지형적 조건 때문에 바산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비바람의 영향을 많은 받아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 되고 있다. 그 결과로 바산지역과 연결된 사막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동쪽으로 훨씬 들어간 곳에서 시작된다. 즉 요단계곡에서 122km 떨어진 곳에,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약 200km 떨어진 지역에서 사막이 시작된다. 또한 바산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우란산지는 최고봉이 해발 1820m나 되는 높은 산지인데, 이 산지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막아주어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극소화시켜 준다.

(2) 바산이 다른 지역과 다른 두 번째 요소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곳은 현무암층이 두텁게 덮여있는데, 그런 현무암에서 풍화된 비옥한 흙들이 주된 토양을 이루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로 인하여 바산은 고대로부터 레반트지역에서 유명한 곡창지대였다. 특히 바산의 밀농사는 로마제국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바산의 살진 암소들’이라는 성서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산에서는 밀농사 뿐 아니라 가축을 위한 목축지로도 유명하였다(암 4:1; 시 22:12). 잘 부식되지 않은 현무암들 때문에 집약적인 농업이 어려운 곳에서는 소나 양들이 방목되었다. 오늘날에도 바산에서는 비육우들을 대량으로 방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B. 헬몬산(Mt. Hermon)

이스라엘의 최고봉인 헬몬산의 높이는 2814m이다. 헬몬산이 높이 솟기되면서 동반적으로 주변에는 계곡이나 분지 등과 같은 낮은 지역이 생겼다. 즉 북서쪽의 리타니계곡, 남서쪽의 이온계곡, 남쪽의 홀레계곡, 그리고 북동쪽의 다메섹분지 등은 모두가 헬몬산 주변에 위치한 낮은 지역들이다. 헬몬산은 지형적으로 북쪽의 안티레바논산지에 속한다. 헬몬산은 그 폭은 약 30km이며, 연중 약 150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되는 지역이다.

헬몬산의 강우량은 대부분 눈으로 내리는데, 겨울 동안 내린 눈은 이른 여름철까지도 녹지 않고 쌓여 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서 서서히 녹게 되는데, 그렇게 녹은 눈들은 지표면 아래로 스며들어 헬몬산 주변의 샘들을 통하여 다시 분출된다. 이러한 샘들은 남쪽의 요단강, 북쪽의 리타니강, 그리고 동쪽의 다메섹으로 흐르는 강들의 수원지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었다.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헬몬산은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이었다.(신 3:8; 4:48; 수 11:17; 사 3:3) 아모리사람들은 헬몬산을 ‘스닐’(Senir)이라고 불렀으며, 시돈사람들은 ‘시론’(Sirion)이라고 불렀다(신 3:9). 이러한 지명들은 이집트의 저주문서나 우가릿 문서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주전 1330년경 히타이트왕국과 수리아왕국 사이에 체결된 계약 문서에는 계약 체결의 증인으로서 레바논의 신들과 시리온의 신들과 더불어 헬몬산이 언급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헬몬산 주변의 우거진 숲들, 산기슭에 위치한 여러 수원들, 그리고 눈으로 덮여있는 정상 모습 등은 고대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경외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었다. 성경에서 헬몬산과 관련하여 유명한 성소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사람들이 신탁을 얻으려고 찾아 왔던 ‘벤마아가 아벨’(삼하 20:15, 18)도 헬몬산 근처에 있다. 여로보암 시대에 거대한 신전이 세워진 단(왕상 12:29; 왕하 10:29; 암 8:14)이나 헤롯이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세운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던 가이사랴빌립보 등도 모두가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C. 요단강의 세 근원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인 요단강은 헬몬산 기슭에서 발원하는 세 개의 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요단강은 갈릴리바다를 중심으로 상부의 요단강과 하부의 요단강으로 나눌 수 있다. 강물이 발원하는 헬몬산 기슭에서 홀레호수를 거쳐 갈릴리바다까지 이르는 상부 요단강은 그 길이가 약 90km이다. 그리고 갈릴리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하부 요단강의 길이는 약 320km가

된다. 그러므로 상부와 하부 요단강을 합친 요단강 전체의 길이는 무려 400km가 넘는다. 홀레계곡에서 서로 만나는 요단강의 중요한 세 근원은 다음과 같다.

1) 나할 헬몬(나할 바니아스)

홀레계곡의 북동쪽에 위치한 헬몬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나할 헬몬’은 헬몬산 기슭의 바위들 사이를 뚫고 나오는 거대한 샘에서 시작된다. 나할 헬몬의 주변에는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들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헬라시대 이곳에는 ‘판’이라는 자연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었다. 그런 것과 관련하여 현재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부른다. 신약시대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다. 좁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나할 헬몬은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폭포를 이루기도 한다. 이 강은 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나할 단’을 만나게 되고, 다시 ‘나할 스닐’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할 헬몬을 요단강의 가장 중요한 본류로 간주하기도 한다.

2) 나할 단

‘나할 단’은 홀레계곡의 북쪽 지역인 헬몬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이다. 이 강의 근원이 되고 있는 샘물은 수정같이 맑은 물로 유명하다. 이 샘물은 헬몬산의 눈이 녹아 흘러 내려온 것이어서 한 여름철에도 차가움을 유지하고 있다. 나할 단은 남쪽으로 흘러내려 가면서 여러 개의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으며, 옆으로 흘러나간 물줄기들이 곳곳에서 조그만 물웅덩이를 이루기도 한다.

3) 나할 스닐(나할 하즈바니)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세 강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강인 ‘나할 스닐’은 현재 레바논 국경 내에 있는 헬몬산의 북서쪽 기슭에서 발원한다. 나할 스닐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인 메톨라에서 북동쪽으로 약 52km 떨어진 지역에서 시작되며,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홀레계곡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온 나할 스닐은 남쪽으로 약 6.5km 더 내려와 나할 헬몬과 나할 단과 합류하여 상부 요단강을 형성한다. 나할 스닐은 샘물과 관계없이 흐르는 지표면 물줄기라는 점에서 큰 규모의 샘물에서 시작되는 다른 두 강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나할 스닐은 여름철에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겨울철 우기에는 갑작스러운 빗물의 유입으로 홍수를 이루며 흐르기도 한다.

D. 바산(골란고원)의 중요 지역들

1) 단(Dan)

본래의 이름이 ‘라이스’(삿 8:29) 혹은 ‘레센’(수 19:42)이었던 이곳은 단지파가 정착하면서 이 지파의 이름을 따라 ‘단’으로 개명되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후, 단지파는 읍바 근처의 해안지역을 분배받았다(수 19:40-6). 그러나 단지파는 철제 무기로 무장되었던 블레셋의 위협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포기한 채 북쪽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곳 단에 정착하였다. 단은 성경에서 소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고대 도시이다. 단은 기원전 19세기 이집트 저주문서나 기원전 15세기 중엽 투트모세 3세가 정복한 도시 명단에 들어있다.

단지파가 이곳을 정복한 것은 기원전 11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나, 이 도시가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도시로 등장한 것은 솔로몬의 이후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이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은 자기의 지역 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벧엘과 단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도록 하였다(왕상 12:28-9). 여로보암은 또한 기원전 1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성벽밖에 제2의 요새벽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요새화 된 단이었지만, 유다왕 아사(주전 908-867년)의 요청에 따라 이곳을 침공한 아람왕 벤하닷에 의하여 파괴되었다(왕상 15:20). 단을 재건한 왕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오므리왕과 아합왕이다. 주전 732년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 단은 다시 파괴를 당하여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잊혀버린 도시가 되었다.

2) 가이사랴 빌립보(Caesarea Philippi)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나할 헬몬의 물근원 주변에 세워진 도시이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나할 헬몬은 홀레호수를 거쳐 갈릴리바다로 유입된다. 베드로는 이 근처에서 위대한 신앙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였다(마 16:13; 막 8:27).

이곳은 헬몬산으로 인하여 기후가 쾌적할 뿐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홀레계곡의 비옥한 지역이 잘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이다. 헬라시대에 이 도시는 ‘판(자연의 신)의 도시’라는 뜻에서 ‘파네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 명칭은 오늘날 아랍식 발음을 따라 ‘바니아스’라고 부른다. 구약에서는 이곳을 ‘바알갓’(수 11:17; 12:7; 13:5) 혹은 ‘바알 헤르몬’(삿 3:3; 대상 5:23)으로 언급하였고, 신약시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였다. 주전 198년 이곳에서 안티오커

스 3세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군대를 패배시킴으로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획득하였다. 주전 20년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지역을 헤롯대왕에게 넘겨주었다. 그 대가로 헤롯대왕은 이곳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

헤롯왕이 죽고 난 뒤 그의 영토는 그의 세 아들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바니아스를 포함하여 갈릴리바다 북부지역은 헤롯 빌립의 몫이 되었다. 헤롯 빌립은 이곳을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거대한 건축 공사를 벌렸다. 그리고 로마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인 헤롯왕이 건설한 지중해 해안의 항구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였다.

신약시대에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에 대한 신앙고백을 물으셨을까? 그러한 예수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진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이곳은 요단강의 본류로 간주되는 나할 헬몬이 시작되는 근원지로서 이스라엘의 어느 곳보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곳은 가까이에 위치한 비옥한 홀레게곡과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의 환경 자체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능케 하였던 지역이다. 그래서 헬라사람들은 이곳에 자연을 주관하는 신인 ‘판’을 위하여 신전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한 풍요로운 지리적 환경 속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초라한 모습의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신 것이다.

둘째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오래 전부터 판 신전이 세워졌을 뿐 아니라 로마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헤롯이 건축한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 흰색 대리석으로 호화롭게 장식된 황제숭배의 신전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황제의 위용답게 거대한 신전이었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서면 위압당하는 자연의 신전 혹은 로마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다.

3) 하술(Hazor)

하술은 갈릴리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16km, 그리고 상부 요단강에서는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구약시대에 하술은 북부 갈릴리지역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도시였다.

고고학 발굴 결과에 의하면, 하술은 상부와 하부의 두 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부 도시의 크기는 25에이커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하부 도시는 거의 2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였다. 하술은 성서시대 초기에 팔레스타인에 건설되었던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였다.

하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와 관련이 있다. 갈릴리바다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해안길은 하술에서 북상하는 도로와 동쪽의 요단강을 건너는 도로로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주전 2000년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정치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하술이지만, 성경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였다.

당시 여호수아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결성된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메롬 물가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수 11:1-11). 후에 하술은 솔로몬에 의하여 요새화가 되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북쪽 입구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다(왕상 9:15). 당시 솔로몬이 세운 다른 요새인 무깃도나 게셀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비밀 지하수로와 여러 겹으로 건축된 성문이 발견되었다. 성경에서 하술과 관련된 마지막 역사적 사건은 디글랏빌레셀이 이곳을 점령하였다는 기록이다(왕하 15:29).

오늘의 일정

갈릴리 가나/찌포리/나사렛/므깃도/텔 이스라엘/하롯샘/사마리아/세겔/야곱의 우물/요셉무덤/그림신산 방문 후 사해로 이동

오늘의 관점

- ◎ 나사렛이 예수님의 성장지로 적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 성경에 언급이 없는 치포리는 어떤 곳이었는가?
- ◎ 사마리아성이 건설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 ◎ 요셉의 유골이 세겔(오늘날의 나블러스)에 묻히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1. 갈릴리산지

A. 갈릴리산지의 일반적 특성

갈릴리산지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갈릴리산지는 동서간의 거리가 약 40km, 남북간의 거리는 약 80km이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갈릴리산지는 북쪽의 리타니강, 남쪽의 이스르엘계곡, 서쪽의 악고평야, 동쪽의 홀레계곡과 갈릴리 바다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었다. 갈릴리산지의 북쪽경계를 레바논 중심부를 흐르는 리타니강으로 보기도 하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던 실제 영토는 홀레계곡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키리앗 쉬모나’ 이남지역이었다. 요세푸스도 갈릴리의 북쪽 한계를 홀레계곡으로 기록하고 있다.



갈릴리산지는 악고에서 갈릴리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로쉬 피나’로 이어지는 ‘벤케렘 계곡’을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로 나뉜다. 요세푸스 역시 갈릴리를 상부와 하부로 구분하고 있다. 갈릴리산지를 상부와 하부 구분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이기보다는 지형적 차이에서 생긴 것이다.

하부 갈릴리는 대부분 지역이 600m 이하의 낮은 산지인 반면, 상부 갈릴리는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이다. 상부산지는 높을 뿐 아니라 산세의 기복이 심하여 통행에도 매우 불편하다. 상부 갈릴리산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메롬산(제벨 야르묵)은 그 높이가 1,200m로서 중앙산지 중에서의 가장 높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갈릴리’는 상부 갈릴 리가 아니라 하부 갈릴리를 의미한다. 갈릴리와 관련된 성경 역사는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된다. 여호수아는 하솔왕의 지배아래 있던 상부 갈릴리 정복을 시도하였다. 그는 메롬 물가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북부지역을 점령하였고, 후에는 이 지역을 아셀, 납달리, 잇사갈, 스블론 지파에게 분배하였다(수 19:10-39).

그러나 가나안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살았다. 성경시대 갈릴리지역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였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는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유입되면서 유대인들은 자연히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였다. 구약성경에서 상부 갈릴리를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

즉 기복이 심한 산세와 여러 지역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지형적 상황 때문에 이 지역은 어느 한 민족에 의하여 전체가 지배되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여러 민족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

B. 갈릴리의 역사

‘갈릴리’는 ‘굴러가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둥근 모양의 ‘원’이나 ‘고리’ 등을 지칭했다. 여기에서 ‘갈릴리’는 둥근 원 안에 들어있는 ‘잘 구획된 지역’이라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구약성경에서 ‘갈릴리’는 지역의 한계가 분명하게 주어진 지역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이사야 9:1의 이방의 ‘갈릴리’는 개역성경 난외주에서 ‘지경’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고 있다. 그런 의미의 갈릴리가 고유명사화 되어 사용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다. 신약시대 갈릴리는 갈릴리산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을 지칭하는 고유한 지역명칭이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갈릴리는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당시 갈릴리지역은 가나안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곳을 분배받았던 아셀, 납달리,

잇사갈, 스블론 지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 힘이 약한 지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사람들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공존해 살았다. 솔로몬시대에 이르러 갈릴리지역은 솔로몬의 행정구역으로 재편되었다(왕상 4:12, 15-16).

솔로몬은 갈릴리의 일부인 가불 땅을 성전건축의 협력 대가로 두로왕 히람에게 넘겨주기도 했다.(왕상 9:11-1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당시에 갈릴리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한 변방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전 732년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는 갈릴리 지역들을 점령하여 앗수르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자치지역에 소속되지 못한 채 변방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갈릴리는 행정적으로 사마리아지방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헬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에 많은 헬라인들과 베킴니게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규모이긴 해도 유대인 공동체가 이곳에 존재하였다.

마카비혁명운동이 일어나면서 갈릴리지역의 유대인들은 주변 이방인들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마카비혁명의 지도자들은 그곳의 유대인 대부분을 남쪽의 안전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 후 기원전 104-103년 하시모니안 왕조의 히르카누스가 갈릴리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유다지방으로 이주시켰던 유대인들을 다시 갈릴리지역에 재정착시켰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정통성을 강조하는 유다지방의 유대인들은 변방의 갈릴리지역 사람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갈릴리의 그런 상황은 폼페이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주전 6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로마의 후원으로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통치하게 된 헤롯 대왕은 자연스럽게 갈릴리지역을 자신의 확고한 영토로 삼을 수가 있었다.

C. 하부 갈릴리산지의 지형

지질학적으로 상부와 하부 갈릴리는 지형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띠는 지역이지만, 하부 갈릴리의 동편산지는 기복이 심한 상부 갈릴리의 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하부 갈릴리의 중앙부와 서편 산지는 전체 중앙산지 중에서 가장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하부 갈릴리산지의 지형적 특성은 동서방향으로 평행을 이루며 형성된 산등성이들이다. 이런 산등성이 사이에는 넓고 얕이 트인 분지형 평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성경에서 그런 계곡평원들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거명하지는 않지만, 네 개의 골짜기와 분지가 산등성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최북단에는 상부와 하부 갈릴리를 구분해주는 벤케레계곡이 위치하고, 그 아래로는 하라준분지와 벤네투파계곡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나사렛산지의 북쪽에

는 투란분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계곡과 분지들은 지중해와 갈릴리바다를 쉽게 오고갈 수 있는 도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하부 갈릴리의 계곡과 분지들은 바닥 자체가 평평하고 낮아서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는 도로들은 계곡 자체가 아닌 산지 쪽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겨울 우기에는 계곡을 지나다니는 것이 더욱 불편하였다. 그러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곡물 재배에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유리한 여건이 되었다. 하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밀 재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 헬라시대와 로마시대 하부 갈릴리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마을들이 세워졌다.

D. 하부 갈릴리산지의 중요 지역들

1) 나사렛

치포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렛은 북쪽의 투란분지와 남쪽의 이스라엘 계곡평원 사이의 나사렛 산지에 세워진 도시이다. 나사렛 산지는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지로서 길이는 약 12km이며 폭은 약 3km이다. 산지의 평균 높이는 약 400m로 비교적 낮고 산지 밑의 계곡에는 부드럽고 비옥한 토양들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계곡평원 쪽으로의 경사는 비교적 가파른 편이다. 이 산지 위에서는 이스라엘 계곡평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전망이 아주 좋다. 이스라엘 계곡평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파른 절벽형의 산봉우리를 ‘케두밈’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이곳으로 끌고 와 산 아래로 떠밀어 죽이려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눅 4:28-30).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 이집트에서 돌아와 이곳에 정착하였다(마 2:19-23). 이곳에서 예수는 그의 유년기와 청년기 대부분을 보냈다. 그러나 신약시대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다나엘의 그러한 발언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아니라 메시아와 관련되어 어떠한 성경말씀도 없었던 동네라고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 곧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 내용을 지칭한다. 그런 것과 나사렛은 무관하다는 의사표시였다. 나사렛은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런 면에서 나사렛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건설된 시골동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에 쓰여진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에서도 나사렛은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비잔틴시대에 이르러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비잔틴시대 이곳에 처음으로 거대한 규모의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636년 아랍에 의해 나사렛기념교회는 파괴되었다가 십자군시대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었다. 그 후 1730년 옛 교회 터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1877년 그 교회를 다시 증축하였다. 그리고 1955년에 이르러 천주교는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현재의 ‘성수태고지교회’(Annunciation Church)를 신축하였다.

나사렛에는 예수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전승을 입증할 만한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마을의 공동 샘터가 있을 뿐이다. 이 샘은 최근까지도 나사렛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었다. 예수와 그의 가족도 분명 이 샘에서 식수를 길러 갔을 것이다. 이 샘터 위에는 현재 ‘성가브리엘교회’라는 희랍정교회 소속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교회가 주장하는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곳 샘터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2) 치포리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치포리는 해발 250m 높이의 넓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치포리 자체는 별로 높지 않은 언덕 위에 있지만 주변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돋보이는 곳이며 방어에도 용이한 지역이다. 치포리 언덕 아래에는 비옥한 들판이 자리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치포리는 ‘새’를 의미하는데,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지역이 마치 새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주변지역을 조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는 치포리는 성경과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치포리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인 역사책에서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103년 하시모니안 왕가의 알렉산더 야나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치포리는 로마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요세푸스의 고대사 8. 338).

헬라시대부터 존재하였던 치포리는 주전 64년 폼페이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폼페이는 갈릴리지역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치포리를 갈릴리지역의 행정중심지로 삼았다. 이때부터 치포리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 관리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치포리의 원주민들은 로마의 통치를 환영하지 않았다. 헤롯이 통치하는 기간동안은 별문제가 없었지만, 헤롯이 죽게 되자 갈릴리지역에서는 소요가 일어났으며 치포리 역시 그런 영향을 받아

이곳에 있던 헤롯의 별궁이 약탈되기도 하였다. 그 후 갈릴리의 통치자가 되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소요 때에 불타버린 도시를 재건하여 자신의 왕국 행정수도로 삼았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그가 티베리아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까지 계속되었다.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유대인전쟁 기간 동안(66-70년) 치포리는 로마를 지지하는 자들의 거주지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당한 후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치포리는 유대인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인 사회의 공식적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곳에서 모이기도 하였다.

베스파시안은 치포리에 로마의 정식 자치시(포리스)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하드리안 황제는 이곳을 가이사라 명칭과 관련된 이름인 ‘테오카이사레아’라고 개명하여 자치적인 독립도시로 삼았다. 이 명칭은 그 후 비잔틴시대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비잔틴시대 치포리는 군사 전략 상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으며, 큰 규모의 비잔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3) 가나

신약시대 가나의 정확한 위치로는 두 곳이 주장되고 있다. 한 곳은 교회 전승에 근거를 둔 곳으로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케파르 카나’ (Kefar Kanna)이다. 이 도시에 위치한 희랍정교회는 돌로 만들어진 두개의 향아리를 보관하고 있다. 이 교회가 주장하는 전승에 의하면, 그 돌 향아리들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사용하였던 여섯 개 돌 향아리 중 남은 것이라고 한다. 신약시대 가나의 또 다른 위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키르벳 카나’(Kirbet Kanna)이다.

벤네프타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도 ‘갈릴리 가나’라고 불린다. 가나의 두 후보지 중 후자가 더 정확한 장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후자가 요세푸스에 의한 가나 설명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는 갈릴리지방에서 로마군과 교전할 때 가나를 그의 군대 본부로 삼기도 했다. 아직까지 키르벳 카나에서 본격적인 고고학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신약시대 당시로 추정되는 로마시대의 도자기들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가나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곳이고, 후에는 왕의 병든 신하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였다(요 2:1-11; 4:46-54). 가나는 또한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다(요 21:2). 그는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나다나엘보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2. 이스라엘 계곡평원

A. 이스라엘 계곡평원의 지리적 특성

이스라엘 계곡평원은 하부 갈릴리산지와 사마리아산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지중해와 요단계곡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지역이다. 신약시대에는 이곳을 ‘에스드라엘론 골짜기’ (Valley of Esdraelon)라고 불렀다.(마카비1서 5:52; 12:49; 유딧서 1:8; 3:9; 4:6; 7:3 등) 길보아산 밑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도시에서 연유된 이 골짜기의 명칭은 ‘하나님의 식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비옥한가를 표현해주기도 한다. 이스라엘 계곡평원은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진다.

1) 동부지역(하룻계곡)

이스라엘 계곡평원의 동부지역은 외관상 긴 통 모양을 하고 있다. 벤산과 이스라엘 도시 사이의 지역인 이곳의 동서 간의 길이는 18km이며, 길보아산과 모레산 사이의 남북 간의 폭은 약 5km 정도이다. 이곳의 중심부로는 하룻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길보아산 밑의 하룻샘에서 발원하여 요단계곡 쪽으로 흐른다. 이 강 때문에 동부지역은 ‘하룻계곡’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기도 하다. 이 계곡의 시작지점인 북서쪽은 해발 40m이지만, 끝 부분인 남동쪽 벤산 근처에서는 해저 115m의 낮은 지역이 되고 있어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높이 차이가 심한 편이다.

이 계곡에는 북쪽 산지에서 내려온 현무암 성분의 토양과 남쪽 산지에 내려온 석회암 성분의 토양이 함께 섞여 있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보다도 토양이 비옥한 곳이다. 또한 하룻샘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상시천인 하룻강은 년 중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원활하게 물 공급을 가능케 해준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쟁들이 벌어졌던 곳이다.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이곳에서 물리쳤으며(삿 7:1), 사울이 블레셋을 맞아 싸우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맞았던 길보아산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삼상 29-31장)

2) 서부지역(므깃도계곡)

이스라엘 계곡평원의 중심부분이기도 한 서부지역은 외형상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되는 지역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렛산지이며, 서쪽의 욱네암과 동쪽의 다불산이

양쪽 끝 지점을 이루고 있다. 삼각형의 정점은 현재 아랍도시인 제닌 근처의 이블레암이다. 삼각형 모양의 각 변 길이는 각각 32km 정도가 되는 상당히 넓은 계곡평원이다.

때로는 이곳을 ‘므깃도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서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므깃도이기 때문이다.(수 12:11) 이 계곡의 지대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발 20~50m의 낮고 평평하다. 주변의 산지에서 씻겨 내려온 검붉은 충적토는 점토질 성분의 비옥한 토양으로서 물을 잘 흡수할 뿐 아니라 흡수한 물을 오래 보존하는 토질이다.

특히 계곡의 중앙부는 지대가 낮아 다른 지역보다도 충적토가 더욱 두텁게 덮여있다. 또한 계곡을 가로질러 흐르는 ‘기손강’과 더불어 비교적 많은 양의 강우량은 이 지역을 더욱 비옥한 평야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옛적부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로 알려져 왔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곳을 ‘빵 바구니’라고 표현한다.

이스라엘 계곡평원은 지형적으로 해안평야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으로는 중앙산지에 속하는 거대한 계곡형 평원이다. 산지가 교통에 불편한 장애적 요소가 된다면, 산지 사이의 거대한 계곡은 도로 형성에 많은 이점을 지지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고대부터 중요한 도로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 지나갔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스라엘 계곡평원을 중심으로 적어도 일곱 개의 크고 작은 도로들이 다섯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갈멜산 기슭을 따라 악고와 뵤니게로 향하는 도로가 있었고, 동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계곡평원의 중앙부를 통과하여 다불산을 거쳐 갈릴리바다로 나아가는 해안길이 있었다.

이 길은 갈릴리바다를 거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었다. 동쪽으로는 역시 중심부를 통과하여 하룻계곡을 거쳐 벤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다. 이 도로는 겨울철 우기 때 다불산을 거쳐 지나가는 해안길이 통행에 불편할 경우 대체 도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남쪽으로는 도단을 거쳐 세겜과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다. 마지막 남서쪽으로는 갈멜산으로 넘어 해안평야로 나아가는 세 개의 통로 곧 욱네암 통로, 므깃도 통로, 다아낙 통로가 있었다. 이 세 통로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길은 해안길의 간선도로 격인 므깃도 통로였다.

B. 이스라엘 계곡평원의 중요 지역들

1) 므깃도 (Megid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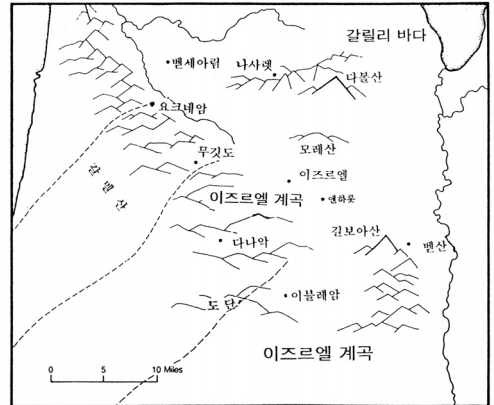
이스라엘계곡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므깃도는 가나안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고대 도시중 하나이다. 오늘날의 하이파에서 남동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는 므깃도는 이스라엘계곡을

거쳐가는 해안길이 갈멜산을 넘어 해안평야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도시였다. 이곳은 또한 북서쪽에 위치한 악고로 가는길과 남동쪽에 위치한 벤산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므깃도는 지형적으로 전략적인 도시로서, 많은 전쟁이 이곳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므깃도에서 있었던 가장 오래된 전쟁의 기록은 기원전 15세기 가나안 군대를 패배시킨 투트모세 3세의 연대기에 나오고 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므깃도는 강력한 가나안의 한 도시국가였으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므깃도를 점령하지 못하였다(삿 1:27).

그 후 다윗시대에 이르러 므깃도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솔로몬은 이곳에 요새화된 자신의 병거성을 건설하였다(왕상 9:15). 후에 아합은 므깃도를 더욱 요새화시켰다. 현재 남아 있는 므깃도의 거대한 지하 수로시설은 아합 때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므깃도는 기원전 733년 앗수르에게 점령당하였고, 그 후 요시아왕은 기원전 609년 이곳에서 이집트의 느고를 맞아 싸우는 중에 전사하였다.



성경시대 이후에도 나폴레옹이 1799년 터키군과 더불어 이곳에서 전쟁을 벌였고, 세계 1차대전 중 연합군을 이끌었던 알렌비 장군 역시 이곳에서 터키군을 패배시켰다. 이러한 계속적인 전쟁의 역사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계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계 16:16). 아메겟돈은 ‘므깃도 언덕’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르 메기도’를 헬라어로 음역 표기한 것이다.

므깃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고학 발굴작업이 있었다. 1925-1939년 사이에 시카고대학 고고학팀이 이곳을 처음으로 발굴하였고, 1960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갈 야딘(Yigal Yadin)은 이곳을 재차 발굴하였다. 므깃도에서 발굴된 고고학 유물들 중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청동기 초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나안사람들의 산당;
- (2) 하솔과 게셀에서도 같은 형태로 발견되었던 솔로몬시대의 성문. 이 성문은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여러 겹의 방어벽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 (3) 지방장관의 거주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궁전;
- (4) 솔로몬시대의 마구간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길쭉한 형태의 돌 구유통들(왕상 10:26);

(5) 아합왕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규모의 수로시설. 이것은 외적들이 성을 포위하였을 때 성 밖에 있는 샘으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지하수로시설이다. 이 지하 수로의 길이는 약 66m나 된다.

2) 벨산 (Beth Shean)

고대도시 벨산은 하롯계곡과 요단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요단계곡을 지나가는 남북교통로와, 이스라엘과 요단동편 지역을 지나가는 동서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벨산은 주전 15세기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 시대의 역사자료에 이미 언급이 되고 있다. 벨산은 다낙, 므깃도, 이블레암 등과 더불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에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의 도시들이었다(삿 1:27). 사울 시대 이 도시는 블레셋의 통치아래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벨산 성벽에 못박아 달아매었다(삼상 31: 10,12).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이 도시를 점령한 것 같고, 그 후 솔로몬은 벨산을 자신의 다섯 번째 행정 구역에 포함시켰다(왕상 4:12).

벨산은 주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원지, 그리고 온화한 날씨로 인하여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하였던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랍비 중 한사람은 벨산을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만약 에넨동산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면, 벨산은 그 문이 될 것이다.”

전략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벨산은 주전 700년경부터 방치된 폐허가 되었다. 헬라시대에 이곳은 ‘스키토폴리스’ (Scythopolis)라는 이름으로 재건되었다. ‘스키토폴리스의 도시’라는 의미의 이 도시명은 아마도 프톨레미 2세 (주전 285-246년) 통치 때에 용병으로 있었던 스키토폴리스와 관련된 것 같다. 당시 스키토폴리스는 프톨레미왕조의 용병으로 이곳 벨산에 주둔하였다. 벨산이 최대의 번영기를 누린 것은 주전 63년 폼페이가가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이다. 이 도시는 데가볼리 도시들 중 요단강 서편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 도시연맹의 중심적 수도가 되었다.

벨산에는 발굴된 대표적 유물로는 보존 상태가 좋은 로마시대의 대규모 원형극장이다. 2세기 후반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원형극장은 약 5000여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갖추어져 있다.

3) 다볼산 (Mt. Tavor)

다볼산은 나사렛산지의 북쪽 지맥으로 이스라엘 계곡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은 정상이

580m 높이가 되는 아담한 봉우리의 산이다. 산 자체는 석회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의 동쪽은 검은 현무암 토양으로 덮여있고, 서쪽은 흰색의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다불산 주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다불산은 검고 둥글게 솟아있는 모습이며, 산 주위 계곡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모습은 신비로운 경외심과 위엄을 자아내는 산이다. 5세기의 교부였던 제롬은 이 산을 “경이롭도록 둥글고 높은 산”이라고 극찬하였다.



산들은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에게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에게 산은 신의 거처이며, 신적인 권능이 존재하는 곳으로 비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올라 신에게 기도와 경배를 드리며 구원을 간구하였다. 가나안시대의 사람들 역시 다불산을 신성하게 여겼었던 것 같다. 산 아래 기슭에서 발견된 가나안인들의 성소 관련 유물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불’의 ‘배꼽’ 혹은 ‘중심’이라는 의미 역시 고대시대 이곳이 예배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한다.

이 산을 신성시하였던 경향은 스블론과 잇사갈을 향한 모세의 기도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스블론이여,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잇사갈이여, 장막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들은 열국 백성들을 산으로 부를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의의 제물을 바칠 것이니라”(신명기 33:18-19).

여기에서 언급된 ‘산’은 이스라엘계곡에서 중심적인 산인 다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산의 자연적 조건 자체가 ‘의의 제사’를 위한 예배 중심지로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시대에 이 산 위에는 ‘다불’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는 잇사갈과 스블론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었다(수 19:22).

하부 갈릴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불산은 이스라엘계곡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인접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띠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사람들과 벌린 전쟁에서 다불산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기손강 근처에 진을 치고 있던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급습하였다(삿4:7).

전망을 넓게 볼 수 있는 다불산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명히 전략적인 이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여사사 드보라는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일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삿4:6-7).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발락은 일 만 명의 부하들과 함께 가나안 군대를 급습하여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대파시켰다(삿4:15).

다불산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산 중의 하나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 시편의 기자는 세상에 드러나 있는 여호와와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산으로서 이 산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나이다”(시편 89:13). 유대인의 미드리쉬적 해석에 의하면,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을 때 다불산은 마치 시내산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다불산 정상에서 율법이 자기에게도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청했다고 한다.

이 산은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역시 신성시되는 장소이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자신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시킨 장소가 곧 다불산이었다는 교회의 전승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전승에 근거하여 비잔틴시대와 십자군시대에 다불산 정상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오늘날에도 다불산 정상에는 프린체스코 수도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변화산기념교회가 세워져있다. 드보라시대 이후에도 이곳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

특히 유대인의 로마를 향한 일차 반란운동 때에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로마군과 대항하여 싸웠다. 당시 유대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요세푸스는 다불산을 요새화하였고, 그 위에 마을을 세워 로마와의 싸움에서 버티어 나가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앞선 로마군은 다불산을 점령해 버렸다. 중세에는 십자군과 이슬람간의 긴 전쟁이 이 산을 중심으로 벌어지기도 하였다. 십자군들은 필사적으로 이 산을 방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슬람에게 패배하였고, 산 위에 있던 교회 건물은 모두 파괴되었다.

4) 모래산 (Giv't Ha-more)

다불산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모래산은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540m의 높이의 산이다. 현무암과 백악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은 그 정상이 원형으로 되어있고, 산의 전체 둘레는 4.8km 정도이고, 산의 직경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2.4km이다. 이스라엘과 하룻계곡 사이의 도로와 티베리아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모래산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였

다.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에 미디안족은 이 산의 북쪽 계곡에 진을 치고 있었다. 기드온이 선발한 300명 정예용사들은 모래산 건너편에 있었던 하룻 샘가에서 이곳 모래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던 미디안을 향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면서 출전하였다.

요세푸스는 이 산을 ‘작은 헬몬산’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아마도 갈릴리바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과 이 산의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졌던 것 같다. 이 산 정상에 위치하였던 십자군요새는 나폴레옹 군대가 터키군대와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래산의 북쪽과 남쪽 기슭에는 성경과 관련된 중요한 두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남쪽 기슭에는 구약시대의 도시인 수넴(Shunem)이 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위하여 이곳에 진을 쳤던 적이 있다(삼상 28:4). 나이가 많아 늙게된 다윗의 몸을 덥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수넴여인 아비삭은 이곳 출신이었다(왕상 1:3).

또한 이곳에서 한 수넴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하였고, 엘리사는 그 수넴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곳이기도 하다(왕하 4:8-37). 그런가 하면 모래산의 북쪽 기슭에는 신약시대 도시인 나인(Nain)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예수 아들을 살려준 장소로 유명하다(눅 17:11-17). 현재도 ‘나임’(=나인)이라는 아랍동네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네 한가운데 희랍정교회 소속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3. 사마리아 산지

고대 이집트 문서에서는 사마리아산지를 ‘세겔산지’라고 불렀다. 성경은 이곳을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부르고 있다(수 17:15; 19:50; 삿 3:27; 4:5; 삼상1:1; 9:4; 왕상 4:8; 왕하 5:22; 렘 31:6 등). 그러나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지파가 차지하였던 지역은 사마리아 산지의 남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한 것은 역사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역할이 컸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산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북 왕조 이스라엘 시대부터였다.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새로운 수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겔 북서쪽에 위치한 430m 높이의 산언덕을 세멜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구입하였다. 그리고 이 산 위에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를 건설하였다(왕상 16:24).

사마리아 산지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등의 세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북쪽지역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고(수 17:7-13), 남쪽지역의 대부분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좁은 분지형태의 비교적 낮은 산지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은 세 지파의 이름과 관련지어

므낏세 산지, 에브라힘 산지, 베냐민 산지라고 구분되었다.

A. 사마리아 산지의 지형적 특성

사마리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는 지형적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자연 경계선은 없지만 이 두 지역 사이의 지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사마리아 산지는 유다 산지와 달리 산 높인들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형적인 변화도 비교적 심한 편이다. 이곳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풍화 작용이 유다 산지 보다는 심한 편이며 깊은 계곡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계곡들은 대체적으로 서쪽, 북쪽, 남쪽 방향으로 열린 형태인데, 그런 지형은 외부 세력들이 쉽게 사마리아 산지의 중심부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사마리아 산지가 역사적으로 폐쇄적인 유다 산지보다 외부로부터 정치-문화-종교적 영향을 쉽게 수용하였던 것도 이런 지형적인 조건들과 관련이 있었다.

사마리아 산지는 남북방향으로 형성된 분수령을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양분된다. 이 두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서쪽은 완충적인 중간지역 없이 완만한 경사를 이룬 채 곧바로 해안평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쪽 경사지는 포도를 비롯한 각종 과일나무들 재배에 적합하였다. 그리고 계곡지역에서는 곡물재배가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쪽은 급한 경사지로서 산세가 험하여 외부의 접근이 어렵다.

서쪽보다는 강우량도 급격히 떨어져 이 지역에서의 농작물 재배는 거의 불가능한 편이고, 단지 목축을 위한 초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사마리아 산지의 동편은 지형적으로 요단계곡 지형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곳은 요단계곡 방향으로 거의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급경사 지역에는 여러 개의 계곡들이 남서방향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 계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디르사에서 시작하여 요단강으로 연결되는 와디 파라가 흐르는 계곡이다.

사마리아 산지의 남쪽지역은 벤엘 산지와 만나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하룻 계곡과 인접하여 있는 북쪽지역은 길보아산을 중심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북쪽지역에서 대표적인 계곡은 거대한 평원형태를 띄고 있는 도단계곡이다. 이러한 도단지역은 넓고 비옥한 토양을 가진 평원이기 때문에 집약적인 농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계곡이라는 이점으로 통행에 편리한 도로가 발달하였다. 이곳에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내려가던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다.

므낏세 산지와 에브라힘 산지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사마리아 산지의 중앙부분에는 세겔계곡이

위치하고 있다. 이 계곡의 중심부에는 세겜(Shechem)이 위치하고 있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940m 높이의 에발산과 남쪽에는 881m 높이의 그리심산이 자리하고 있다.

해안평야와 인접한 소고(Socoh)에서 시작되는 세겜계곡은 산지 중앙부의 세겜을 거쳐, 디르사(Tirzah)에서 시작되는 파라계곡으로 이어진다. 세겜계곡은 파라계곡과 더불어 사마리아산지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그런 면에서 이 계곡은 사마리아 산지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앙산지의 중앙부로 진입하는 좋은 교통로가 되기도 한다.

사마리아산지의 남부지역에는 주로 규모가 작은 계곡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급경사 산지에 둘러 싸여있는 레보나계곡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이 계곡은 실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로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계곡이다(삿 21:19).

사마리아산지는 지형, 기후, 재배작물 등에서 갈릴리산지와 유다산지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비옥한 충적토인 테라로사로 이루어져 있는 산지와 계곡은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중해 지역의 전통적 작물인 밀, 올리브나무 등을 비롯하여 포도 등 다양한 과일나무들이 재배되고, 또한 양과 염소들이 방목하기도 한다.

B. 사마리아 산지의 중요 지역들

1)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오프리 왕에 의하여 건축된 북 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오늘날은 아랍 동네인 사바스티야(Sabastiya)가 위치하고 있는 언덕을 의미한다. 오프리 왕은 세멜의 소유지이었던 이 언덕을 은 두 달란트에 구입하여 북 왕조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였다(왕상16:24). 사마리아는 아합왕 때에 아람왕 벤하닷이 중심이 된 연합군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지만(왕상 20장), 이스라엘은 그들을 성공적으로 몰아내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시대에 벤하닷은 재차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였다(왕하6:24-7:20). 주전 8세기에 이르러 사마리아성은 크게 번영하였다. 특히 여호보암 2세 때 사마리아성의 번영은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왕하14:23-87). 그러나 8세기말 경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왕하 15장)은 결과적으로 앗수르제국의 공격을 불러들였다(왕하15:29-31).

마침내 사마리아는 사르곤 2세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다(왕하18:9-12). 앗수르는 외국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 혈통적으로 혼합되게 하여 사마리아인의 출현을 가져왔다.

페르샤시대(준전 6세기-4세기)에 사마리아는 총독이 거주하는 행정적 중심지가 되었다. 사마리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생각했었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부하였다(스 4:1-3). 주전 331년 알렉산더대왕이 레반트지역을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알렉산더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헬라의 통치에 반발하여 알렉산더가 세운 총독을 살해하였다. 알렉산더를 대항하여 싸우던 사마리아인의 지도자들은 후에 와디 달리에에 있는 동굴 속으로 피신하였다. 그 때 그들이 남겨 놓았던 개인적인 파피루스 문서들이 금세기에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마카비시대 하시모니안 왕조의 히르카누스는 사마리아를 점령하여 자신의 영토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면서 폼페이는 사마리아를 재건하였다. 후에 헤롯대왕은 그 도시의 이름을 시저 아우구그투스(세바스토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헬라식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를 ‘세바스토스’로 개명하였다.

2) 세겜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위치하고 있는 세겜계곡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서, 산지를 관통하는 남북의 도로와 세겜계곡을 통하여 해안지역과 요단계곡을 잇는 동서간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란에서 가나안지역으로 이주하여 올 때, 그들이 처음 도착하였던 가나안지역이 세겜이었다(창 12:6-7).

후에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여 이곳에서 가나안족들과 얼마간 함께 지냈다(창 33:18-20).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세겜에서 정복을 위한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은 없다. 아마도 이곳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흡수되었던 것 같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 하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다(수 8:30-35).

요셉의 유언에 따라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시체를 이곳 세겜에 장사하였다(수 24:32).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유대인과 모슬렘에게 거룩한 장소 중 하나로 보존되고 있다. .

세겜은 하시모니안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하여 파괴되었는데(주전 129년), 그 이후 이 도시는 다시 재건되지 못하였다. 주전 72년에 이르러 세겜에서 동편으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네오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다. 세겜이 오늘날에는 ‘나블러스’라는 이름은 불리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은 수가성은 현재의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이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 그곳은 ‘아스칼’이라는 아랍동네로 알려져 있다. 신약시대 이후 세겜은 역사 속에 잊어진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발굴에 의하여 옛 세겜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3) 도단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북쪽의 이스라엘 계곡과 연결되는 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므낫세 산지 중에서 가장 큰 계곡평원이기도 한 도단 주변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고고학발굴에 의하면, 석기시대와 초기 청동기시대에 이미 이곳에는 큰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후기 청동기시대에는 매우 번성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헬라시대까지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이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성경에서 도단이 언급된 것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이야기 속에 나온다(창 37:17 이하). 후에 선지자 엘리사의 중심 활동지역이었던 이곳은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한 곳이기도 하였다(왕하 5장). 한때 아람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많은 군대를 보내어 도단성을 포위한 적도 있었다(왕하 6:13 이하).

오늘의 일정

팀나동굴(아라바 광야)/에시온 게벨(엘랏)/미쯔페 라몬(바란광야)/벤구리온 무덤(와디 신)

오늘의 관점

- 이스라엘이 40년간 방랑생활을 하였던 사막은 어떤 곳인가?
-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 사막 개발에 앞장선 이유는 무엇인가?

1. 아라바계곡

A. 아라바계곡의 지형적 특징

아라바계곡은 사해와 홍해의 에일랏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길고도 좁은 계곡이다. 이 계곡은 실제로 동쪽의 에돔산지와 서쪽의 네게브산지를 나누어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해에서 홍해까지의 아라바계곡 전체 길이는 176km이며, 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7km 내지 18km가 된다. 오늘날의 아라바계곡은 사해에서 홍해에 이르는 제한된 지역을 지칭하지만, 성경에서는 중앙계곡 전체를 ‘아라바’라고 불렀다. 따라서 중앙계곡 내에 위치한 사해를 ‘아라바 바다’ 혹은 ‘아라바에 있는 바다’라고 하였다(신 3:17; 겔 47:8).

‘아라바’는 히브리어로 ‘건조하고 황량하다’라는 의미이다. 아라바계곡은 실제로 사막과 유사한 자연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곳의 대부분 지역은 물이 부족하며 오아시스가 있는 몇 곳을 제외하면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다. 아라바계곡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약 25mm 정도이다. 겨울철 우기 때에 내리는 빗물이 지나가는 와디 주변에는 사막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싯딤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 나무들은 강한 사막바람의 영향으로 나무의 꼭대기가 마치 우산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 극히 적은 양이긴 하지만, 비가 내리는 겨울철동안 이 지역에는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들은 강한 일사량으로 인하여 오래 견디지는 못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라바계곡은 별 효용가치가 없었다. 다만 사막생활 경험이 많고 적은

양의 물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던 나바티안족들은 이 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를 시도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대에 아라바계곡은 누비안사암층에서 구리가 생산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고대 이 지역의 중심적 구리광산들은 아라바 북동부에 위치하였던 푸논과 이르 나하쉬, 그리고 아라바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팀나계곡 등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아라바계곡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하여 더 중요시되었던 것은 이곳이 남쪽지역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었다. 고대시대 이 지역은 중앙산지와 네게브산지에서 남쪽의 에일랏만과 동쪽의 에돔산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아라바지역을 관할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이었다. 그러나 왕국의 힘이 쇠약해졌을 때에는 에돔이나 나바티안과 같은 주변 민족들에게 이 지역의 관할권을 빼앗겼다. 철기시대 이후로 로마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는 홍해로 내려가는 길목을 지켜주는 요새들이 중요한 지역마다 세워졌었다.

아라바계곡은 주변의 산지에서 흘러 내려온 충적토 모래와 자갈들이 두텁게 덮여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양편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에는 거대한 바위산들이 높은 벽을 이루며 둘러서 있다. 아라바계곡을 중심으로 양쪽편에 위치한 산지는 지형적으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라바계곡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게브산지는 동쪽의 에돔산지와는 달리 계속 이어지는 산지가 아니며, 바위산들도 높은 벽을 이루고 있지 않는다.

서쪽의 경사지는 지역에 따라 높이가 다른데, 계곡의 바닥에서 약 300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다. 에일랏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지점까지는 주로 수정암과 누비안사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의 침전물로 형성된 바위들이 그 사이에 섞여 있다. 그러나 그 윗쪽의 북쪽 지역에는 세노마니안 석회석과 백운암, 그리고 세노니안 백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아라바계곡의 동쪽 지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계곡의 바닥에서 약 1000m이상 높이 솟은 바위벽들이 아라바계곡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있으며, 산지의 지표면 위로는 붉은 색을 띤 누비안사암층과 수정암층이 드러나 있다.

겨울철 우기에는 계곡의 양편에 있는 산지로부터 빗물들이 일시적인 홍수를 이루며 계곡 안으로 유입된다. 비록 유입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양의 바위 부식토들을 계속적으로 실어 내려와 산기슭에는 부채꼴 모양의 크고 작은 삼각주들이 형성되어 있다. 동쪽의 에돔산지에서는 서쪽의 산지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므로 서쪽보다 더 많은 빗물을 내려보내고 있으며, 자연히 침식의 영향력도 서쪽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편의 삼각주지대는 서쪽의 것보다 규모가 크며 충적토의 두께도 더 두텁다.

사해의 남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계곡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차적으로 지대가 높아져 사해에서 48km 떨어진 지역에서는 지중해의 해면과 같은 위치로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28km를 더 내려가게 되면 아라바계곡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해발 230m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 이후로는 다시 지역이 낮아져 에일랏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 홍해에 이르게 된다.

B. 아라바계곡의 중요 지역들

1) 소돔 (Sedom)

성경에서 소돔은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가나안 지역의 남쪽 경계로 취급되었다.(창 10:19) 그러나 소돔의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대체적으로 사해의 남단에 위치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사해의 북단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현재의 사해 바다 밑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세 가지 견해가 그 동안 주장되어 왔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옛 소돔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해 남단에는 사해 바닷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질을 추출하는 사해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사해공업단지는 원래 1930년 사해 북단에 위치한 ‘칼리야’(Qalya)지역에 포타슘을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짐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34년 사해 남단인 옛 소돔지역에 두 번째 포타슘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1948년 독립전쟁의 결과로 사해 북단지역이 요르단의 영토에 편입됨에 따라 사해 북단의 공장은 폐쇄되고, 그 대신 사해 남단의 공업단지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2) 욗바다 (Yotvata)

욗바다는 에일랏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아라바계곡 내의 한 오아시스 지역이다. 이곳은 아라바계곡 내에서 규모가 큰 오아시스 중의 하나이다. 이 샘의 근처에는 고대에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은 특히 에일랏으로 내려가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여정 중 이곳을 지나갔으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는 욗바다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신 10:7)

이곳에는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요새 유적이 남아있으며, 로마시대에는 다이아나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1957년 이곳에는 ‘요트바타’라는 기브츠가 세워졌으며, 1960년대에는 ‘바이 하르’라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만들어져 성경시대 이 지역에서 서식하던 동물들을

자연상태에서 보호하며 기르고 있다.

3) 팀나계곡 (Valley of Timna)

팀나계곡은 에일랏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에 의하여 형성된 계곡이다. 이곳에는 고대 이집트시대의 구리광산 유적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솔로몬이 개발한 구리광산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집트에 의하여 개발되었던 구리광산임이 고고학 발굴 결과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곳의 구리광산들은 주로 후기 청동기시대에 개발되어 사용하였던 광산들이다. 팀나계곡은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아름다운 바위 모양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2. 에일랏과 에시온게벨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홍해변의 항구도시 에일랏과 에시온게벨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성경은 아카바만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 항구도시를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한다(왕상 9:26). 에시온게벨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요르단의 아카바 항과 이스라엘의 에일랏 항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대 엘랏의 위치는 현재 요르단의 아카바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요단동편지역으로 들어가지 전 마지막 광야 여정지로 언급된 곳이다(신 2:8; 민 33:35). 솔로몬시대에 이르러 에시온게벨은 아라비아(오빌), 아프리카, 인도와의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솔로몬은 이곳에 대외무역을 위한 무역선단들을 가지고 있었다(왕상 9:26-28). 그리고 여호사밋 시대에도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배들을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배들은 사용하기도 전에 파선됨으로 무역에 대한 그의 기대가 무산되었다(왕상 22:48; 대하 20:36, 37). 여호사밋의 아들이었던 요람시대 이곳을 에돔에게 빼앗겼지만 아마시아 시대에는 다시 되찾았다(왕하 8:20-22). 아마시아의 아들인 웃시아는 부왕이 되찾은 에시온게벨과 엘랏을 재건하였다(왕하 14:22). 아하스왕 때에 이르러 다시 아람왕 르신에게 빼앗기면서 이곳은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왕하 16:6).

헬라시대 초기 이집트의 프톨레미왕조는 이곳에 ‘베레니케’라는 이름의 항구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주전 2세기 나바티안족들이 침략하면서 이곳은 네게브 모든 지역과 더불어 나바티안족의 영역이 되었다. 로마시대 이후 이곳은 ‘아일라’라는 이름의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특히 아라바계곡을

통하여 북쪽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로가 건설됨으로 이곳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엘랏의 중요성은 로마가 이곳에 로마군단을 주둔시켰던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로마 제3군단 소속의 예하부대가 주둔하였지만, 후에는 로마의 제10군단 본부가 주둔하기도 하였다.

에일랏만은 기후나 조류 흐름의 조건이 산호 서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각종 진기한 모양의 산호가 많이 자라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오늘날에는 일 년 연중 높은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겨울수영을 즐기는 유럽인들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곳에는 1975년부터 해저 4.5m에 수중관망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산호바다 홍해의 모습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일랏 항구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이 만나는 ‘타바’가 있다. 1967년 6일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 전체를 점령하였지만, 캠프 데이비드협정에 의하여 1982년 대부분의 점령지를 이집트에게 반환하였다. 이때부터 타바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국경지역이 되었다. 에일랏만(아카바만)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네 개 나라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3. 스테 보케르 키브츠와 벤구리온 생가

A. 스테 보케르 키브츠

스테 보케르 키브츠는 1952년 네게브 사막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키브츠이다. ‘스테 보테르’는 ‘목자의 들판들’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1953년 이스라엘 수상 다비드 벤구리온이 정계를 은퇴하고 이곳 키브츠에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하면서 유명해졌다. 그가 이곳 키브츠에서 생활한 것은 평소 네게브 사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이 몰려올 이민자들은 아랍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버려진 땅인 네게브에 정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스테 보케르 키브츠는 그들에게 개척자 역할을 하면서 훌륭한 개척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벤구리온은 1955년 다시 정계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973년 87세의 나이로 작고할 때까지 이곳에서 부인(파울라)과 함께 생활하였다. 벤구리온은 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이곳에 그의 부인과 함께 묻혀있다.

벤구리온은 다른 키브츠 멤버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 그가 죽은 후 그가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개인주택은 기념박물관이 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변 모습 대부분 바뀌었지만, 박물관이 된 벤구리온의 집만큼은 그가 사망했던 1973년 당시의 모습 그대로이다. 전시물들은 러시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시온주의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생애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그가 맡았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보여준다.

B. 벤구리온의 중요 연보

1. (1886년) 벤구리온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폴란드에서 출생했다.
2. (1900년) 그는 종교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히브리어를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청년 단체인 에즈라(Ezra)를 결성하였다.
3. (1903년) 최초의 사회주의-시온주의 정치 단체인 포알레이 시온(시온의 노동자들)에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그의 지도력 하에서 수 십 년 동안 시온주의의 사회-정치 조직을 주도하였다.
4. (1906년)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기 위해 폴란드로부터 이주하여 제 1차 시온주의 정착민(1882-1903년)들에 의해 건설된 유대인 농업 정착촌 갈릴리에 있는 오렌지 농장과 포도주 저장소의 노동자로 일했으며, 그곳의 파수꾼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것만이 시온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며, 이 이외의 방법은 단지 자기기만이라고 말했다.
5. (1906-1910년) 벤구리온은 시온주의 정치와 정책 확립에 헌신하여 유대인 자기방어 단체인 '하쇼메르'(Hashomer)를 결성하였다. 또한 그는 포알레이 시온의 중앙위원회 일원으로서 정당정치(노동당의 전신)에 관여하였다.
6. (1908년) 오스만 터키에서 젊은 터키당(Young Turks) 혁명이 발생한 후, 벤구리온과 일단의 포알레이 시온 행동주의자들은 이스탄불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이 동안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시온주의에 적대적이었던 오스만 터키는 이듬해 그와 이츠하크 벤 즈비(Yitzhak Ben Tzvi, 제 2대 대통령)를 포함한 포알레이 시온의 행동주의자들을 추방하였다.
7. (1910년) 예루살렘에서 발행된 당 기관지 편집장으로 임명되어 이때부터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8. (1915년-1917년) 벤구리온은 미국에서 시온주의 노동당의 미국지부를 결성하기 위해 헌신하였다. 이 후 그는 제에브 야보틴스키(Ze'ev Jabotinsky)가 창설한 영국군대의 예하 부대인 유대인 재향군인회의 일원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다. 그는 원래 영국군대 소속의 유대인 부대를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방식의 부대편성이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인 공동체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 (1917년) 영국의 발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 이후 입장을 변경했으며, 터키로부터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영국군대 내에 유대인 부대를 창설했던 아보틴스키의 계획에 동참하였다.

10. (1921년) 벤구리온은 1920년 창설된 히스타드루트(Histadrut: 노동자총연맹)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히스타드루트의 조직 강화 시기인 1935년까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였다. 그가 통제하고 지배했던 기간 동안 히스타드루트는 단순한 무역연맹에서 탈피하여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조직들과 문화 단체 그리고 협력 단체들을 창설하였다. 이렇듯 히스타드루트는 새로운 국가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조직체를 제공해 주었다.

11. (1930년) 벤구리온은 노동연맹과 젊은 노동자당을 마파이(Mapai, 노동당)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마파이의 공식 명칭은 이스라엘 노동당(The Party of the Workers of the Land of Israel)이었으며, 이 당은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을 수립하여 초대 총리직을 맡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통치했던 집권당이었다. 마파이에서 벤구리온은 민족주의적-사회주의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였다.

12. (1935년) 마파이 이스라엘 노동당의 시온주의는 세계 시온주의자 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마파이에서 벤구리온은 유대인 집행부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집행부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준 정부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국가가 창설된 1948년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벤구리온은 시온주의 역사의 과정과 자신의 위치, 그리고 유대인 국가의 성격을 정립하였다.

13. (1937년) 필(Peel)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땅의 분할을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는 아랍인들에게는 1922년 트랜스요르단 창설 이후 위임통치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전 세계 유대인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벤구리온은 시온주의 운동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모든 영향력과 지도력을 동원하였다. 한편 시온주의 지도부가 마지못해 이 계획을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영국이 이 계획의 실행을 반대하였다.

14. (1939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이 이주하는 것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을 구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벤구리온은 이를 발표어 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유대인 이주와 정착 문제에 대한 영국의 제한과 영국이 나치 독일과 전쟁 중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사안으로 고심하던 벤구리온은 시온주의 정책을 친 영국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그는 “우리는 마치 백서가 없었던 것처럼 영국을 지원할 것이며,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는 영국의 백서에 분연히 저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 만 명의 유대인들이 영국군대에 자원했으며, 영국의 백서에 상관치 않고 유대인의 이주와 정착도 계속되었다.

15. (1942년) 벤구리온은 시온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침인 빌트모어(Biltmore) 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계획은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추진하였으며,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의 창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16.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Holocaust)의 비극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백서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국과 이스라엘의 대결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17. (1946년) 벤구리온은 유대인 준 행정부의 국방장관직을 맡았으며, 유대인의 대규모 이주 계획에 대한 영국의 봉쇄 조치에 대항하는 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는 영국 정부에 불법적인 대규모 이주의 실행으로 도전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 유대인 정착지를 건설함으로써 유대인 국가를 위한 사실상의 국경선을 설정하였다. 그는 유대인 정착 계획을 확대함과 더불어 유대인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 무기의 구입을 추진하였다.

18. (1947년) 팔레스타인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되자,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11월 27일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분할 안을 의결하였다.

19. (1948년) 영국의 위임통치가 끝나자, 유대인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언했으며, 유대인 망명자들의 대규모 이주 계획을 단행하였다.

20. (1953년) 벤구리온은 건강의 악화로 2년 동안 정부 직책으로부터 사임하였다. 사임 후 그는 네게브(Negev)의 스테 보케르 기부츠(Sde Boker Kibbutz)에서 생활하였으며,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모범적인 인물로 간주되었다.

21. (1954년) 정보관련 대 실책인 라본(Lavon) 문제가 발생한 후, 벤구리온은 다시 국방장관으로 정치 일선에 복귀하였다. 같은 해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한 벤구리온은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였다. 그는 국방 정책을 재평가한 후 국경 근처의 테러 활동에 대한 보다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였다. 그는 프랑스와의 긴밀한 협조에 근거한 군사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양국의 관계는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22. (1956년) 시나이 전쟁에서, 비록 이스라엘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이집트로부터 철수했지만, 그는 팔레스타인 남부의 유대인 정착지에 대한 아랍인들이 테러 공격과 파괴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며, 홍해로 항해하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이집트의 봉쇄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23. (1963년) 벤구리온은 1954년의 라본 사건이 다시 거론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시 총리직에서 사임하였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13년을 포함한 거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24. (1965년)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새로운 정당인 라피당(Rafi)의 창당을 지지하며 새로운 정치 인생을 계획하였으나, 라피당은 크네셋(Knesset: 이스라엘 국회) 선거에서 10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1970년 84세로 공직 생활에서 은퇴할 때까지 크네셋의 의원으로 남아 있었다.

25. (1973년) 이스라엘의 현대 시오주의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벤구리온이 서거하여, 그가 처음으로 공직에서 사임한 후 찾았던 네게브의 스테 보케르에 묻혔다.

오늘의 일정

마사다/엔게디 자연학습관/쿰란/요단강 세레터/유다광야(에인 마부아)/여리고(삭개오의 돌무화과나무/엘리사의 샘/시험산 전망)

오늘의 관점

- 마사다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 쿰란공동체는 신약시대 초대기독교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 유다광야와 관련된 성경역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여리고와 관련된 성경 내용은 무엇인가?

1. 사해지역

A. 사해지역의 지형적 특성

중앙계곡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사해는 남북 길이가 약 80km이며, 동서간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약 16km 정도이다. 사해의 해수면은 지중해 해면보다 395m가 낮으며, 가장 깊은 중앙부의 수심은 약 400m가 된다. 성경에서 이곳은 주로 ‘염해’라고 알려져 있으며(창 14:3; 민 34:3; 신 3:17; 수 15:2; 18:19), ‘아라바 바다’(신 3:17; 수 3:16; 12:3; 왕하 14:25) 혹은 ‘동해’(겔 47:18; 욥 2:20; 숙 14:8)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해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인 단과 최남단인 에일랏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사해는 리산반도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두 바다로 나누어진다. 리산반도는 사해의 동남부에 붙어있는 약 15 km 길이의 반도형 지역이다. '리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반도 모양이 마치 혀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혀를 ‘리손’이라고 한다.

북쪽의 사해는 남쪽의 사해보다는 훨씬 크고 수심도 깊다. 그에 비하여 남쪽의 사해는 수심이 얕으며 크기도 북쪽보다 훨씬 작다.

북쪽 바다의 넓이는 761km² 인 반면 남쪽 바다의 면적은 254km²에 불과하다. 그리고 바다의

깊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남쪽 사해 수심은 5m 내지 10m이다. 리산반도에서 사해의 동쪽과 서쪽 해안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그런 지형 때문에 고대부터 사해를 건너는 나루터가 이곳에 있었다. 현재는 사해의 수면이 계속 낮아져서 리산반도와 서쪽 해안 사이가 완전히 물으로 드러나 있는 형편이다.

사해는 요단강을 비롯하여 주변의 산지로부터 많은 양의 강물과 빗물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므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출구가 없어 모여든 물이 그대로 고이게 된다. 그리고 사해 주변은 고온 건조한 사막형 기후를 띄고 있어서 사해로 유입된 물들 중 상당히 많은 양이 자연적으로 증발된다. 이런 증발 현상이 오랜 세월 계속되면서 사해 물속에는 막대한 량의 광물질들이 남게 되었다.

현재 사해의 광물질 함유량은 28-33%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염분의 함유량도 일반 바다보다 6배 이상 높아 3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광물질의 함유량 때문에 사해에는 어떤 종류의 생물도 살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 사해(死海)가 되었다.

사해 주변은 이스라엘에서 강우량이 가장 적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곳의 강우량은 년 평균 50mm 이하이다. 그러나 겨울철 우기에는 주변의 산지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급류가 사해로 유입되고 있다. 사해의 서쪽 해안에는 두 개의 중요한 오아시스가 위치하고 있다.

하나는 사해 북쪽의 쿨란 근처에 있는 ‘아인 페시카’이며, 다른 하나는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엔게디’이다. 서쪽 해안의 최남단에는 거대한 소금 바위들로 이루어진 ‘소금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 소금 바위산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금 기둥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 이야기를 연상시켜 준다(창 19:26).

사해의 북단과 남단 해안은 낮은 평지를 이루고 있지만, 동쪽과 서쪽의 해안은 수직형의 바위 절벽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급경사는 동쪽 해안이 더욱 심한 편이다. 이러한 경사지에는 고대에 형성된 암석들이 드러나 있다. 서쪽 해안에는 세노니안 백악암층 아래에 형성된 세노마니안 백운석이 드러나 있으며, 동쪽에는 검붉은 누비안 사암층들이 드러나 있다.

사해의 서쪽은 비록 좁은 해안이긴 하지만 동쪽 해안과는 달리 도로 형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반면에 사해의 동쪽 해안은 바다와 연결된 급경사의 절벽형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아르논강 계곡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해의 동편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B. 사해 주변의 중요 지역들

1) 소돔 (Sedom)

성경에서 소돔은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가나안 지역의 남쪽 경계로 취급되었다.(창 10:19) 그러나 소돔의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대체적으로 사해의 남단에 위치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사해의 북단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현재의 사해 바다 밑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세 가지 견해가 그 동안 주장되어 왔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옛 소돔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해 남단에는 사해 바닷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질을 추출하는 사해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사해공업단지는 원래 1930년 사해 북단에 위치한 ‘칼리아’(Qalya)지역에 포타슘을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짐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34년 사해 남단인 옛 소돔지역에 두 번째 포타슘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1948년 독립전쟁의 결과로 사해 북단지역이 요르단의 영토에 편입됨에 따라 사해 북단의 공장은 폐쇄되고, 그 대신 사해 남단의 공업단지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2) 마사다(Masada)

마사다는 전체가 자연 바위로 이루어 있는 사해 서쪽 해변에 위치한 천연요새이다. 자연적인 용기현상으로 생겨난 마사다는 사면이 모두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의 직각에 가까운 400m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사다는 그러한 독특한 지형 때문에 주변의 산들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 그러나 마사다 정상에는 20에이커 정도 크기의 평평한 돌바닥으로 되어있다. 마사다는 ‘요새’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 지냈던 ‘황무지의 요새’는 곧 ‘마사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삼상 22:4; 24:22).

마사다가 처음으로 요새화 된 것은 하시모니안왕조의 요나단 시대(주전 103-76년)였다. 그 이후 헤롯은 권력투쟁의 와중에 잠시 동안 마사다를 가족들의 피난지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주전 37년 헤롯이 로마의 후원으로 유다의 정식 통치자가 된 후, 그는 마사다를 완벽한 요새로 재건하였다. 그가 이곳을 요새화 시킨 것은 외적의 침입이나 유대인의 반란과 같은 위기상황이 생길 때 그곳을 도피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헤롯은 마사다 정상에 두 겹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훌륭한 궁전을 비롯하여 저수조와 창고들과 같은 부대시설을 건축한 것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였다. 헤롯이

죽고 난 후 로마는 작은 규모의 군대를 이곳에 상주시키면서 마사다 요새를 유지하였다. 유대인 역사와 관련하여 마사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로마와의 제1차 유대인 전쟁을 주도하였던 열심당원들이 이곳을 마지막 항쟁지로 삼으면서였다. 전쟁 초기 열심당원들은 이곳에 주둔하던 로마군인들을 모두 축출한 바가 있었다. 그러다가 전쟁 말기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직전 1000여명의 열심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곳 마사다로 옮겨와 로마와의 항쟁을 계속 이어갔다.



이때부터 마사다는 유대인항쟁의 상징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토는 실바장군에게 마사다에서 항쟁을 계속하고 있던 열심당원들을 섬멸할 것을 명령하였다.

로마군대는 3년 동안 마사다를 포위하고 정상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워낙 난공불락의 천연요새인 마사다를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다. 로마군대는 마침내 마사다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대한 인공 축대를 마사다 서쪽에 쌓았다. 그리고 73년 5월 2일 드디어 로마군은 인공축대를 완공하여 마사다 정상을 공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로마군이 마사다의 정상을 점령하기 직전에 마다사 정상에 남아 있던 열심당원들은 모두 집단 자결을 결행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엘리아셀 벤야일’의 제안대로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로운 몸으로 자결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정상을 정복한 로마군인들은 승전의 축배를 마시기 전에 마사다 정상에서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한 960여명의 열심당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사다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들은 요세푸스의 유대인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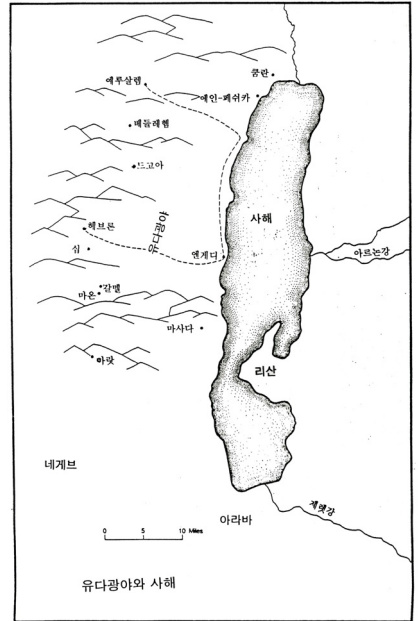
3) 엔게디(Ein Gedi)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엔게디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루곳 시내(Nahal Arugot) 어귀에 자리 잡고 있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란 뜻으로서 이 지역의 풍부한 수원을 갖고 있는 오아시스 샘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엔게디는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다(수 15:62).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 다닐 때, 그는 ‘엔게디 요새’에서 숨어 지낸 적이 있다(삼상 23:29).

이곳은 또한 ‘엔게디 황무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삼상 24:1), 그것은 엔게디 근처 지역이

유다광야에 속하는 황무지이기 때문이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로 들어왔던 일도 이곳 엔게디에서 일어났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삼상 24:3-7). 다윗의 엔게디 동굴에서의 그러한 경험은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엔게디는 고대로부터 아름다운 땅, 향기가 좋은 몰약, 그리고 비옥한 포도원 등으로 유명하였다(아 1:14). 요세푸스는 가장 좋은 종려나무와 발삼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엔게디는 또한 광야를 통하여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길 입구가 된다. 여호사밧 통치 시대에 암몬과 모압은 유다왕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광야길 곧 엔게디를 거쳐 산지로 올라왔다(대하 20:1 이하).



4) 쿰란 (Qumran)

쿰란은 예리고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사해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유적지이다. 쿰란 주변에는 예루살렘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건천인 와디쿰란이 자리하고 있고, 사해 쪽으로는 ‘아인 페시카’ 오아시스가 있다. 이곳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유다지파 소속의 ‘염성’(수 15:62)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1947년 이 지역에서는 금세기 성서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사해사본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성경사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구약성경사본보다 무려 천년 이상 앞선 고대 사본들이다. 주로 주전 200년에서 주전 100년 사이에 쓰여진 쿰란의 성경사본들은 마소라성경사본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쿰란에 있었던 공동체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교 종파 중 하나인 에세네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쿰란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대한 요세푸스의 설명과 잘 부합된다.

다만 요세푸스가 소개한 에세네파는 독신주의자들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곳 쿰란공동체에는 여자들도 함께 살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던지 아니면 에세네파와 유사한 공동체이었던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헌을 통하여 볼 때,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정통 유대교와 결별한 채 사해근처에서 수도원 형태의 공동생활을 하며 다가오는 종말을 기다렸던 묵시종파의 사람들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 형태를 보여주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필사하여 철저히하게 보관하였다.

쿰란공동체는 유대인 전쟁 초기인 68년 로마군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로마군인들의 공격을 예상하였던 쿰란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관하여 왔던 문서와 성경사본들을 항아리 속에 담아 근처의 동굴 속에 감추어 두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가 떠나가면 다시 돌아와 숨겨 놓았던 문서들을 되찾으려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감추어 두었던 문서들은 그 후 2000년 가까이 동굴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한 쿰란문서들은 1947년 근처에서 양들을 돌보던 한 베드윈 소년에 의하여 우연하게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양피지에 기록되었지만, 일부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도 있다. 여기에서 발견된 성경사본은 에스터를 제외한 모든 구약성경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 내용 전체가 완전히 보존된 사본도 있지만, 일부만 남아있는 조각형태의 사본이 대부분이다.

쿰란 근처는 황량한 사막지역이다. 그러나 쿰란의 남쪽에는 큰 규모의 오아시스 ‘아인 페시카’가 위치하고 있다. 1958년 이곳을 발굴하였던 드보(R. de Vaux)는 근처의 쿰란과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러한 발견은 쿰란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생활과 이곳 오아시스 지역이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식수를 이곳에서 얻었을 뿐 아니라 오아시스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유다광야

유다광야는 서쪽으로 유다산지를 끼고 남북으로 긴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유다광야는 지리적으로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유다산지의 동쪽 경사지는 사해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즉 유다산지에서 사해까지의 직선거리는 25km 밖에 되지 않지만, 두 지역의 높이 차이는 무려 1200m나 된다. 이러한 경사는 완만하거나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단층을 거쳐 내려가는 급경사이다.

유다산지에서 사해까지 평균 높이가 300m 이상 되는 단층이 5개나 존재하고 있다. 엔게디 근처에서는 직선거리가 2km도 안되지만 두 지역의 높이 차이가 무려 600m가 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절벽형 급경사로 인하여 유다광야에는 케년 형태의 깊은 계곡들이 발달되어 있다.

우기 겨울철 동안 유다산지로부터 빗물이 사해로 흘러 내려온다. 이러한 겨울철의 물줄기들은 지형을 따라 방향을 바꾸면서 흐르게 되는데, 사해 가까운 지역에서는 절벽형으로 이루어진 좁은 계곡을 지나게 된다. 이런 곳은 대개가 급한 격차 때문에 홍수와 같은 급류를 이루기도 한다. 유다광야의 사막 환경은 다음과 같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생겨났다.

우선적인 것은 극히 적은 강수량이다. 사해 근처에서는 연간 100mm 정도의 극히 적은 비가 내린다. 사해지역은 지중해 수면보다 400m가 낮은 지역인데, 유다산지에서 사해 쪽으로 형성된 급경사는 이곳에 비를 거의 내리지 못하도록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사막에 가까운 광야지역이 되었다. 또 다른 요인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양이다. 주로 백악질의 연성석회암으로 이루어 이곳 토양은 물을 잘 흡수하고 땅을 쉽게 건조시킨다. 그런 토양 때문에 이곳은 물과 식량이 늘 부족한 지역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정착하여 거주한 흔적이 거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유다광야는 다른 광야나 사막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유다광야의 크기는 폭이 실제로 25km를 넘지 못하고 있는 제한된 지역이다. 사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22km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인근의 유다산지와는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드고아, 헤브론과 같이 비교적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중심도시들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이러한 중요한 도시들과의 인접성이 곧 유다광야가 네게브나 시나이와 같은 사막지역과 구별되는 점이다. 곧 유다광야는 다른 중심 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여러 거주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더구나 동쪽으로는 사해와 그 건너편 모압지역과도 인접하여 있어 지리적으로는 서쪽과 동쪽의 두 번성한 거주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유다광야는 네게브나 시나이 사막처럼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한 중간 거점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유다광야에는 중요한 거주 지역들을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발전되어있지 않다. 단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길들이 있을 뿐이다. 물론 성경시대나 로마시대에 유다광야를 지나 사해의 리손반도를 통해 모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사해 북쪽에 위치한 여리고를 거쳐 요단동편지역으로 건너가는 길이 더 안전하였다. 단지 위급한 시기가 닥쳤을 때에만 대체 도로로서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유다광야는 이와 같은 독특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문명의 중심권에서 벗어난 불모의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도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피신처를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유다광야가 거주지역과 격리된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접한 주변의 도시들로부터 손쉽게 일용품들

을 조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피신하였던 ‘엔게디 요새’(삼상 23:29)는 유다광야 가운데 위치한 지역이었다. 세레요한이 자신의 영적 훈련과 사역을 위하여 선택한 곳도 유다광야였으며(눅 1:80), 예수께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곳역시 여러고 근처의 유다광야였다(마 4:1-11).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될 때마다 유다광야는 국가를 위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의 마지막 항쟁지가 되었다. 마카비전쟁이나 마사다의 항쟁, 그리고 바르코흐바의 항쟁 등은 그에 대한 좋은 예들이다.

유다광야는 광야를 배경으로 목축에 종사하는 유목민들의 거주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목민 이외에도 당대의 통치자들에게 저항하는 정치적 반란 세력들, 사회를 떠난 은둔자들, 그리고 수도원 형태의 공동체를 이룬 종교적 집단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비잔틴시대를 거쳐 중세에 이르는 동안 유다광야에 수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던 이유도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과 연관이 있다.

1) 유다광야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

- (1)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역사,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연상시키는 장소
- (2) 다윗의 은신처(삼상 17-27장)
- (3) 종말사상과 관련된 장소(겔 47장)
- (4) 세레요한의 전도활동 중심지
- (5) 예수의 40일 금식장소
- (6)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장소인 겿세마네와 인접한 유다광야

2) 마부아

마부아(Maboa)는 유대광야 중 와디켈트 계곡 안에 자리하고 있는 샘(오아시스)이다. 이곳에서는 매 20분마다 정확하게 지하 샘물이 땅위로 분출한다. 이곳을 ‘에인 파와르’라고도 하는데, ‘파와르’는 아랍어로 ‘땅 속에서 솟아나다’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분출하는 샘물은 본래 유다산지에 내리는 비가 석회암층으로 스며들면서 형성된 것이다.

일 년 내내 서서히 스며드는 빗물이 카르스트 지형 동굴을 채우게 되고, 그렇게 채워진 물은 20분 간격으로 반복하여 동굴 밖으로 분출한다. 마부아 샘은 물이 절대 부족한 유다광야에서

물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3. 여리고

사해 북단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요단강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는 주전8000년경에 이미 정착사회를 이룬 인류 최초의 정착지였다. 해저 258m의 요단강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이다. 여리고와 그 인근 지역의 연간 강우량은 100mm 내외의 매우 건조한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다. 그러나 여리고 자체 내에는 적어도 세 군데의 물 근원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어서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여리고가 묻혀있는 언덕인 ‘텔 에스 술탄’ 아래에는 ‘엘리사의 샘’으로 알려진 물 근원이 있다. 엘리사는 여리고 주민들을 위하여 이곳에서 나오는 쓴 물을 단 물로 변화시켜 주었다(왕하 2:19-25). 여리고의 오아시스는 식수와 더불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오래 전부터 물을 관리하는 관개시설들이 조직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여리고에는 아열대성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과일나무는 종려나무이다. 성경에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다(신 34:3; 사 3:13).

구약시대의 여리고는 현재의 여리고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고대의 여리고는 견고한 성벽을 자랑하였고, 약 2000명의 주민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리고를 처음으로 발굴한 것은 1868년 고고학자 와렌(C. Warren)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리버풀대학 고고학연구소의 지원으로 가르스탕 (J. Garstang)이 7년(1930년-36년)에 걸쳐 진행한 것이다. 그 후 영국의 캐년(K. Kenyon)은 1952-58년 예루살렘 소재의 영국 고고학연구소 후원으로 재 발굴을 시도하였다. 여리고에 대한 여러 차례의 발굴 작업으로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탑과 동석기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무덤들, 그리고 청동기시대 이후의 여러 성벽들이다. 이 성벽들 중 하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나팔을 불음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리고 앞쪽에는 사해로 유입되는 요단강 하구가 위치하고 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양쪽 편에는 여리고평지와 모압평지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여리고평지와 모압평지 사이의 요단강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이다. 모압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으로 입국하였다.

그 후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 앞에서 하늘로 승천한 곳도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가이다. 신약시대 세례요한은 이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께서도 이곳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현재 여리고 앞쪽의 요단강에는 ‘알렌비다리’가 놓여있고 여리고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을 이어주고 있다.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여리고가 묻혀있는 언덕에서 남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의 여리고에는 해롯의 겨울별장이 있었다. 해롯은 추운 겨울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별궁에서 온화한 여리고의 날씨를 즐겼다. 신약시대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여행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예수께서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언제나 여리고를 지나갔다. 이곳에서 예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났고,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눈을 고쳐 주었다. 여리고 뒤쪽의 산 중턱에는 희랍정교회 소속의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다. 여리고가 한 눈에 잘 내려다보이는 이 산을 일명 ‘시험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을 이 산에 받았다는 전승 때문이다.

산의 중턱에는 여러 개의 동굴들이 있는데, 그 중 한 동굴에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전해온다. 현재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 전해오는 동굴을 중심으로 희랍정교회의 수도원이 세워져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해 오고 있다.

오늘의 일정

텔아비브 출발(12:30) 뉴욕 JFK 도착(22:05)

오늘의 관점

- 지난 11일간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 성지연수에서 얻은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 역사적 성지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있는 실존적 성지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지난 11일간 성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나라 이스라엘을 답사하였다. 여행 중 우리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땅'이다. 그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 왜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을까? 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질문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지난 9일간의 여행이 필요했다. 우리는 성지여행을 마치고 우리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가나안 땅을 떠나 우리 앞에 전개될 새로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는 그곳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의 글은 우리의 이해와 신앙적 결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1. 서론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표현은 성서 전체에서 2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모세 오경에서 15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5회 사용되었다.

"젖"과 "꿀"을 근동지방의 신화와 연결시켜 신의 특별 선물(special gifts of god)이나 신의 기호

식품(favorite diet of gods)으로 해석하려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주석가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땅의 비옥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다소 과장시켜 생산성이 넘치는 땅으로 나타난 독특한 표현이라고 해석하였다. 특별히 사막의 유목민들이나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러한 표현이 먹을 음식이 풍부한 땅을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 것은 성경 자체가 젖과 꿀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젖과 꿀은 대표적인 고단백질 음식으로 여겼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제공된 중요한 음식물 중에는 젖과 꿀로 만든 것이 포함되었다(삼하 17:28). 그것들은 또한 고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교역 물품들이었으며(겔 27:17)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봉헌되는 물건이기도 하였다(대하 31:5).

창세기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함께 보내는 선물에 포함된 물품이기도 하였다(창 43:11).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라는 성경의 수사적 질문(삿 14:18)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꿀은 단 것을 대표하는 식물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달콤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적 표현에 꿀을 활용하였다. 잠언에서 꿀은 즐거움과 건강함을 주는 선한 말에 비유되고 있다(잠 16:24).

그런가 하면, 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시 19:11; 119:103), 지혜(잠 24:13; 16:24) 혹은 연인 사이의 아름다운 감정(아 4:11; 5:1) 등과 같이 다양한 즐거움과 유익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분명히 젖과 꿀은 고대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값진 물건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였다(출 16:31).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인들에게는 젖과 꿀이 정녕 허락될 수 없는 양식이기도 하였다(욥 20:17).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지리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그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극히 힘들다는 점에서 이 표현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년 중 거의 절반 이상이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기후의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건마저 그 가능성이 희박한 땅이 이스라엘이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주변지역은 사막 내지는 준 사막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무대로 삼았었던 산간지방은 석회질 바위로 뒤덮여 있는 척박한 지역이고 보면 과연 성서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거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만큼

기름진 땅이었으나 험난한 역사를 겪으면서 본래의 아름다움은 파괴가 되고 지금과 같이 황폐한 현실이 된 것일까? 아니면 성서의 표현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이상적인 땅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한 해석상의 난제는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이었다.

이런 해석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서, 학자들 중에는 이 표현이 실제적인 땅의 비옥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 표현으로 보기도 했고, 혹은 유목민족들이 신화에서 연유된 축복과 이상의 땅을 소망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관한 대표적 표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쳐 이해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실제 현실과 더불어 이스라엘민족의 다양한 역사 경험과 신앙 속에서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주제라고 여겨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과 의미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 즉 (1)고대 근동의 지리적 차원, (2) 가나안 땅의 생활 경제적 차원, 그리고 (3)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적 차원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한 해석적 시도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관한 신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관한 보다 큰 신학적 문맥(context)을 찾아보려고 한다.

2. 성서에 나타난 땅 개념의 신학적 의미

A. 땅과 관련된 용어들

구약에서 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아다마’와 ‘에레츠’가 있다. ‘아다마’는 ‘붉다’(red)라는 뜻의 ‘아돔’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붉은 색을 띤 비옥한 땅을 의미한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산지에서 흘러내려 주변의 골짜기에 쌓인 충적토가 유명한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는 이러한 토양을 ‘테라로사’(terra rosa) 즉 ‘붉은 땅’이라고 부른다. ‘아다마’로서의 땅은 경작이 가능한 땅, 소유지로서의 객관적 가치가 있는 땅, 인간의 거주에 적합한 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다마’의 반대적 개념은 인간이나 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한 사막이나 광야 등이다.

땅에 대한 또 다른 용어는 ‘에레츠’이다. 이 용어는 비옥한 땅인 ‘아다마’와는 달리 땅의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창조와 우주적 관점에서 본 땅의 개념이다. 즉 ‘에레츠’는 하늘 혹은 바다와 반대적 개념으로서의 땅이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거나, 혹은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삼등분 된다. 이런 우주의 구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에레츠’ 땅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에레츠’의 땅은 정치적 개념을 내포한 땅으로서 인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사회조직 등으로 의미화 내지는 역사화 되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성서신학의 주제가 되는 땅 개념은 ‘아다마’이기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 개념인 ‘에레츠’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계시의 현장으로서의 땅이기도 하다.

성서에서 땅을 ‘에레츠’와 ‘아다마’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게 땅을 공간(space)과 장소(place)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공간이란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없는 완전 자유의 상태로서의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 자체도 없는 공백 상태의 땅이다. 반면에 장소로서의 땅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땅,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사건이 기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거쳐서 연속성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땅이다.

따라서 공간(space)의 추구는 역사로부터의 회피이지만, 장소(place)의 추구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였던 땅은 비옥성과 더불어 풍요를 보장하는 ‘아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기다리고 있는 ‘에레츠’이었으며,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조된 ‘장소’로서의 땅이었다.

B. 에덴으로부터의 추방과 가나안으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적합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에덴동산은 단순한 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미의 땅이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창2:8)하신 땅이었으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러한 조화로운 삶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방향으로 흐르는 풍부한 물 근원에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 2장 8절-27절 사이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에덴은 물이 풍부한 땅이었다. 에덴의 중앙 부분에서 발원하는 수원은 동산 전체를 적실 뿐 만 아니라 네 방향으로 흘러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풍부한 수원과 흘러 내려가는 강의 이미지는 단순한 물이기보다는 영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 것으로서, 에덴 안에서 누리는 완벽한 조화와 풍요로운 삶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동시에 땅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곧 에덴의 풍요로운 근원으로부터의 추방이었다. 인간에게 주어진 원천적 삶의 시작은 창조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땅인 에덴으로의 도입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실패는 그러한 본질적 삶의 땅으로부터의 추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인류를 사방으로 흩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구속역사를 시작하셨다. 새로운 역사는 갈데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창12:2-7). 여기에서의 새로운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 신학적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이 인류 구속사를 향한 부름 곧 에덴동산에서 범죄 하여 추방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안에서 이루어진 부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 전체를 향한 부름의 초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인간 전체에게 회복 될 에덴동산의 원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 땅의 신학적 의미

성서에 나타난 땅 개념에 관한 신학적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주제이었다. 그러나 땅(land)이라는 단어가 성서에서 쓰인 빈도수를 본다면 그것은 놀랄 만큼 자주 사용이 되었다. 땅을 구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마르텐스(Elmer A. Martens)교수는 '땅'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만도 2504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이며, 통계적인 수치만으로는 계약사상 보다도 더 중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성서에 나타난 땅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로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땅의 외형적 형태를 다루는 지형지리, 국경문제 혹은 지파별 땅 분배 등을 다루는 정치지리, 혹은 땅의 비옥성, 경제성, 종교-문화의 관련성 등을 주제로 삼는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땅을 단순한 인간 삶의 공간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나님과 땅과 이스라엘 백성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신학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땅의 신학적 이해를 위하여 성서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땅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사상이다. 그러한 성서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창조신앙이 그러한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뿔기세택의 축복에 화답하는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자"라고 표현되었다(창 14:19).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의 상대자임을 강조하는 출애굽기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출 19:5). 여기에서의 '세계'는 히브리어 에레츠'를 번역한 것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땅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실제적 주인이심을 보다 명백히 밝힌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레 25:23)는 이유 때문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한다는 희년 규정과 관련하여 나오고 있다.

성경에서 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근거를 제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의 실제적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라는 주장 다음에 제시된 이스라엘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지 땅의 실제적 주인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오히려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신분으로서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게르 & 토샤브)라는 신분은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장기 체류자를 의미하는데, 그런 신분으로서는 합법적으로 토지와 같은 재산권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록 가나안 땅을 소유하여 살고 있지만 그것은 정식 주민으로서의 재산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소유할 능력이나 권리조차도 없었다. 다만 궁극적인 소유주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분배받아 관리할 뿐이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영영히 주어진 것이다.

땅이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학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 (1)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선조들에게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전이나 종교의식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 (3)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삶의 형태가 요구된다. 히브리어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다. 단지 '말하다'라는 동사를 문맥에 따라 '약속하다'라고 번역할 뿐이다. 그러나 땅과 관련된 언급에서는 특별히 '맹세하다'(샤바아)라는 동사가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땅에 관한 약속(창 12:7; 13:14-16; 15:18-21; 17:8)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창 26:3-4, 24; 28:13; 35:9-12)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에게도 확인되고 있다(출 6:8).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은 약속이기보다는 맹세이었다. 그래서 데이비스(W. D. Davies)같은 학자는 '맹세의 땅'이라는 표현이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약속과 성취'의 역사적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지파 간에 분배된 토지가 양도 불가능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자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땅을 판 경우가 없다는 사실과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에 관한 문서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침묵에 의한 논증이다.

역사적인 증거로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들 수 있다(왕상 21장). 나봇이 왕명을 거역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되면서 까지도 자신의 땅을 아합 왕에게 내어놓지 않은 것은 재산의 양도 불가능성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17) 라는 율법 조항 역시 토지의 부동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토지의 양도의 불가능성은 이스라엘이 땅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적용되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하여 땅을 상실하였지만, 포로기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땅이 양도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하여 포로귀환의 소망을 선포하였다(렘 12:14-16; 16:14-15; 겔 36:8-15).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소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특별한 삶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요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있었다. 신명기에 제시된 규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신 12:1) 땅은 약속의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땅이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요구를 성실히 실행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거주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땅으로 인한 풍요와 번성을 더불어 누릴 수가 있었다(신 8:1).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땅에서의 저주와 축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졌다. 토지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들이 땅을 더럽힌다는 것이다(레 19:29; 민 35:29-34; 신 21:23). 이것은 여호와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불가능함으로 오히려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으로 그 표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땅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유형적 상징이 되고 있다. 땅이 더럽혀진다는 사고는 결과적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레 18:25, 28; 20:22)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서에서의 땅 개념은 단순한 외형적인 지리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경험과 신앙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이해될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개입의 행위 자체(deliverance)와 축복(blessing)으로 양분시키고, 이 축복의 내용 속에서 땅의 약속과 성취를 본 베스터만의 논리는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축복 자체가 구원행위에서 시작된 하나님 활동의 결과이자 지속적 연장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는 신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적합한 삶을 유지하도록 성서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적 입장

위에서 살펴본 가나안 땅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기초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해석적 입장을 다음 세 가지 관점-고대 근동의 지리적 측면, 가나안 땅의 생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A. 고대 근동의 지리적 입장에서 본 해석

고대 근동지방이란 보다 큰 영역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비옥한 반달형"이라 지칭되는 지역 안에 속하고 있다. 근동의 '비옥한 반달형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지방이 과연 어떠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고대 근동지방은 오늘날의 세 대륙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일부를 각각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에게해에서 아프카니스탄의 힌두쿠쉬 산지까지의 약 3200km에 달하는 지역이 동서간의 한계이고, 흑해와 카스피 바다 사이에 위치한 코카서스 산지에서 아라비아 반도 남서단에 이르는 지역이 남북간의 한계이다.

근동지방의 지리적 특징은 이 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가지의 장애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소들은 다른 지역과의 교류나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고대 근동사회의 역사 및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 가지 장애 요인들 중에 첫

번째 요소는 북부지역에 위치한 산지들이다. 이러한 산지들은 북쪽으로부터의 외적의 침입과 겨울철 동안 북쪽에서 불어오는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두번째 장애 요인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사막들이다. 이들 사막은 건조한 사막 기후의 영향은 근동지방의 대부분 농경지를 잠식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긍정적으로는 북쪽의 산지처럼 외적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 방어선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장애 요소는 근동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다섯 개의 바다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지리적 요소들은 육상 교통에 크게 방해가 되는 요인들로서, 근동지방이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원할 하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근동지방의 지리적 요인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만에서 시작하여 지중해의 동부해안을 따라 가늘고 길게 뻗어있는 비옥한 지역 곧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사면이 자연적인 방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문명의 요람지였다.

고대 역사와 문명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근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성서의 이해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창세기의 족장 역사를 비롯한 성서의 원역사(Proto-History)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당시의 문화 내지 역사 이해는 성서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비옥한 반달형 지역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동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지방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만에서 시작하여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한 지역을 가리킨다. 서부 지역은 지중해의 해안지역으로서 '레반트'(Levant)지방이라 부른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지역이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서쪽 지역인 레반트에 속하고 있으며, 비옥한 반달형 지역의 중심부가 아닌 서남단의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는 비옥한 반달형 지역의 최남단으로서,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해지는 사막지역이 되고 있다. 성서에서 브엘세바를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브엘세바 이남 지역에서 정착된 생활 근거지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분명 비옥한 반달형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비옥한 반달형 지역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역이었다. 여기에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평가하는 시각을 볼 수가 있다. 비옥한 지역의 중심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환경은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인간 거주가 가능한 문명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장이거나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망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단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막에 거주하는 자들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같은 입장에서 카수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사막의 유목민들이 그리는 이상적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부른 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적 상황에 입각한 객관적 판단에 의한 표현임을 확증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사막에서 지냈다는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그들에게 보인 가나안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임이 분명하였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의 혼동을 가져다주었던 것은 판단의 기준, 비교의 기준을 잘못 잡은 데에 있다. 가나안의 참모습과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하였던 사막으로 들어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 풍습 중 초막 짓기는 사막에서 가나안을 보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레위기에 의하면 초막절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나가 생활하는 것(레 23:43)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하였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인 것이다. 노트는 이러한 풍습의 의미를 “역사적 이유”(historical reason)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B. 가나안 땅의 생활 경제적 입장에서 본 해석

두 번째 관점의 해석은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인 ‘젖’과 ‘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가나안의 생활 경제적 측면과 직결시켜 보려는 입장이다.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대표적 요소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이 무엇인가를 규정지어 주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 두 가지 생산품은 가나안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목축문화와 농경문화를 대변하는 요소이다.

‘젖’이란, 성서에서 직접적인 증거들을 얻을 수 있듯이, 목축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목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경제적 수단이었다.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한 욥,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성서적 인물들은 목축업에 종사하였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사막에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축은 이스라엘 여건에 적합한 경제수단이 되었다.

목축경제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동물이었던 양들은 이스라엘 제사제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었던 제물이었다. 그런 면에서 ‘젖이 흐르다’는 표현 속의 ‘젖’은 목축의 주종을 이루는 양젖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목축에서 양을 키우는 일차적인 목적은 양을 잡아 고기를 얻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젖을 생산하여 그 젖으로 다른 유제품을 만드는데 있었다.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유제품들이 거명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일년에 평균 30-150 리터의 젖을 생산하며, 젖이 집중적으로 짜게 되는 시기는 2-3월경에 시작하여 3-4개월 간 계속된다.

이스라엘의 꿀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벌들에 의하여 채집되는 꿀인 ‘드바쉬’이다. 구약에서 언급되는 꿀은 대부분이 야생 꿀이다(신 32:13; 사 14:8; 삼상 14:25-29, 43). 시편 기자는 반석에서 나오는 자연의 꿀로 만족할 것을 노래하기도 하였다(시 81:16). 그러나 이러한 ‘드바쉬’로서의 꿀 이외에도 과일나무의 열매에서 얻어지는 즙으로서의 꿀이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과일 즙 형태의 꿀을 ‘아시스’라고 부르는데, 주로 포도, 무화과, 종려나무의 열매 등에서 얻어진다.

이스라엘은 과일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며, 자연적인 입지조건도 과일나무 재배에 적합하다. 산과 산 사이에 비가 올 때마다 씻겨 내려가 쌓이는 충적토는 밭농사에도 좋은 토양이 되지만, 경사진 산간 지역에서는 과일나무를 심어 기르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표현에 등장하는 ‘꿀’을 벌에게서 얻어지는 꿀인 ‘드바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나안의 경제적 입장을 고려할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과일나무에서 얻어지는 즙으로서의 꿀인 ‘아시스’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하겠다. 같은 입장에서 카수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젖을 생산하는 가축들을 위한 초지와 과실을 생산하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땅이라고 해석하였다. 모세에 의하여 파송된 열 두 정탐꾼들이 그 땅의 비옥함을 증거 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과일-포도, 무화과, 석류-을 가져왔을 때에도, 그 과일들은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는 증거임을 밝히고 있다(민 13:27).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생활 경제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땅에 적합한 목축과 과일생산을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땅의 비옥성을 과장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보다는 그 땅에 허락되어 있는 생산의 가능성들에

대한 진솔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볼 때,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가능성, 곧 각양의 은사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게 될 때 신앙의 활력을 얻듯이, 가나안의 가능성들인 젖과 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될 때 가나안에게 주어진 축복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C.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적 입장에서 본 해석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지시하셨고, 또한 그 땅을 그와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이삭, 야곱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 내용들로서 모세를 통하여 시작된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로 부각이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속에 깊이 축적된 거룩한 약속이며 하나님에 의하여 보증된 영원한 유산이다. 성서에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나 조건들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제시된 땅이다. 다시 말하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땅이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비교의 대상을 허용치 않는 절대적 땅, 지고의 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그 땅의 외형적 가치를 과장시켜 평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외관적인 조건으로는 다른 지역에 뒤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그런 외형적 조건이나 여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열조에게 맹세하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11장은 가나안을 애굽과 비교하여 그 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신 11:10-12).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얻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흡수하는 척박한 땅임이 명시되어 있다.

비록 자연 환경의 측면에서는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하늘의 비만을 의존하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애굽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여 사는 인간 중심의 지역인 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 초부터 세

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12) 라고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집중되어 있는 땅이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각자의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창세기 13장은 가나안 땅의 평가 기준이 외형적 조건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 들은 온 땅에 물이 넘쳐나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었다(창 13:10).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호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간지역의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두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창 13:14). 이 두 본문에서는 '눈을 들어 본다'라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롯의 경우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었고, 아브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롯이 선택한 요단 들은 외형적으로 물이 넘쳐나서 살기 좋은 환경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의 지역임을 성경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창 13:13). 그에 비하여, 아브람이 차지한 지역은 비록 생활에 불편한 산간지역이었지만 자손 번성의 축복과 더불어 그 땅이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확인되는 땅이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세계의 중심지로 보면서 이스라엘 땅을 땅의 일반적 용어인 히브리어 '에레츠'에 정관사를 붙여 '하아레츠', 곧 절대적 땅(the Land)이라고 이해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다른 나라나 땅과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다. 절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점에서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상대적 땅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히브리어 '에레츠'는 '아다마'와 달리 토양의 비옥성과 관계없이 의미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땅에 대한 표현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곧 '에레츠'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 의미의 땅 개념은 성서시대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살았던 과거 이 천년 동안에도 그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일어난 시온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 땅들은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늪지대로 바뀌어 있었다. 초기 이민자들은 이러한 불모지의 땅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개척하였다. 그러한 개척적인 용기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임을 받아들이는 신앙적 차원을 떠나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비록 외적으로는 황폐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신앙적 확신을 갖고 피와 땀과 눈물을 뿌렸을 때, 땅 밑에 감추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참 모습은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현대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막에 꽃을 피운 기적의 나라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여 그것은 숨겨져 있었던 가나안의 의미를 민족적 신앙과 땅에 대한 확신으로 도전하여 본래의 것을 되찾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테오도르 헤르첼을 비롯한 초기의 시온주의자들이 유대인의 본토를 아르헨티나나 우간다로 정하려 했던 시도는 땅에 대한 성서신학적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임이 사실이며, 그러한 제안과 시도를 거절하고 팔레스타인 본토를 고수하였던 유대인들의 정서는 수천년을 내려왔던 민족적 신앙 전승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스라엘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성서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땅의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의 땅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향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입장에서 본 해석은 구약 성서신학을 비롯하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된 땅으로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소유로 현실화된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에서 축복의 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축복성은 땅의 풍요로움이라는 외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신 11:12)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곳(신 12:9-10)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소유하여 자신들이 즐기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생활양식을 요구받는 땅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수단이었던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현대 비평적 입장에서는 구약성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나 실제 역사 경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에 그 기원이 있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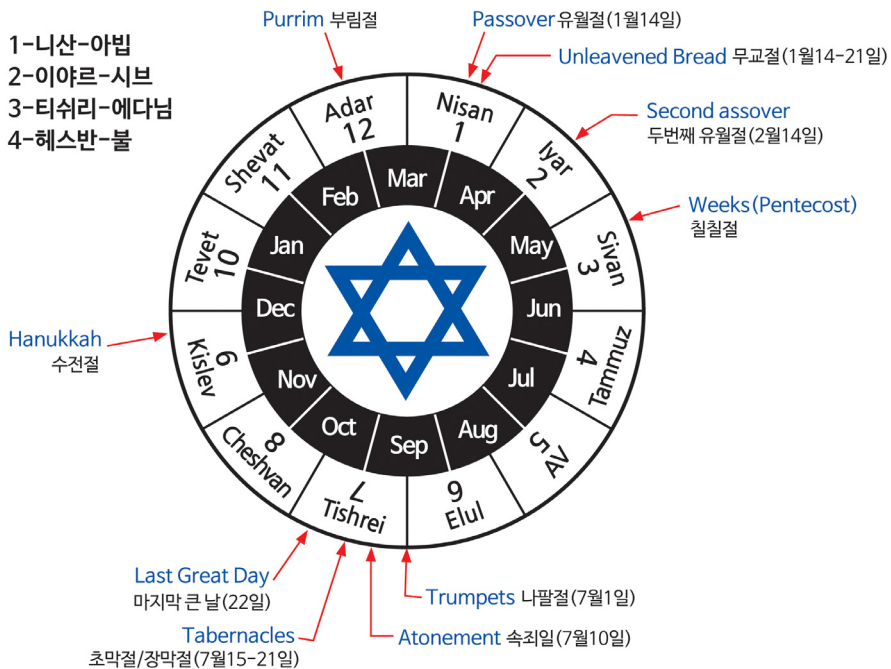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역시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유목민들의 상징적 언어와 신화적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가나안에 대한 그러한 표현은 신앙 고백적 요소를 강조한 내용이긴 하여도 고대 근동지방의 지리적 여건이나 가나안의 생활 경제적 상황에 근거를 둔 객관적 고백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허구 속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곧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만나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다.

3.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해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가나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과 성취의 복지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땅은 같은 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그리스도안에서 구원받은 삶은 곧 축복으로 주어진 가나안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살펴 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적 입장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 삶의 신앙적 원리를 조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가나안 땅의 의미에 관한 세 가지 방향의 해석이 보여주듯이, 가나안의 축복성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신앙적 수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신앙고백 위에 사막이라는 출발점에 서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오늘 삶의 속에서 주어진 가나안 뿐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세도 중요하다.

성지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롬!!



일 정 에 따 른 순 례 자 의 노 래

PILGRIM'S SONGS

1.24/2.7(화)	아벡/에벤에셀/실로/벤엘	1.29/2.12(주)	갈릴리 주변/선상예배
1 (Am)헤베누 살롬 알레이کم(당신에게 평안을) 2 (Ab)에벤에셀(감사하신 하나님) 3 (D)거룩한 땅 & (Eb)거룩 거룩 거룩(찬8) 4 (C)거룩한 성(나 어젯밤에 잘 때)		18 (C)심령이 가난한 자 19 (C)주 품에 품으소서(Still) 20 (C)할 수 있다 하신 이는 21 (D)갈릴리 바닷가에서 22 (A)많은 사람들	
1.25/2.8(수)	예루살렘/베들레헴	1.30/2.13(월)	가나/나사렛/사마리아
5 (Bb)주기도문(찬 635) 6 (D)오라 우리가 7 (C)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8 (D)저 들 밖에 한밤중에(찬23)		23 (F)예수님이 말씀하시니 24 (C)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1.26/2.9(목)	십자가의 길/예루살렘	1.31/2.14(화) 2.1/2.15(수)	네게브 사해/유다광야/여리고
9 (G)고난의 길(Via Dolorosa) 1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St.Anne Church) 11 (Bb)갈보리산 위예(찬150) 12 (Ab)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461) 13 (Bb)살아계신 주/Because He Lives (후렴)		25 (Dm)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26 (Eb)황무지가 장미꽃같이(찬242) 27 (G)여호와 나의 목자 28 (F)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찬73) 29 (D)목마른 사슴 30 (E)우리 함께 기도해	
1.27/2.10(금)	쉐펠라/브엘세바	DAILY	감사 & 결단
14 (F)소원(삶의 작은 일에도) 15 (Ab)주님이 주신 땅으로		31 (E)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32 (G)여기에 모인 우리 (찬620) 33 (F)예수님이 좋은 걸 34 (D)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35 (Eb)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36 (A)임재(하늘의 문을 여소서) 37 (Ab)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1.28/2.11(토)	엠마오/지중해 연안		
16 (G)엠마오 마을로 17 (D)샤론의 꽃 예수(찬89)			

1.

HEVENU SHALOM ALEICHEM

헤베누 샬롬 알레이chem(헴)



He-ve-nu sha - lom a - le-chem, he-ve-nu sha - lom a le - chem, he-ve-nu

헤베누 샬 롬 알 레 켄 헤베누 샬 롬 알 레 켄 헤베누



sha - lom a - le-chem, he-ve-nu sha -lom sha - lom shalom a-le-chem

샬 롬 알 레 켄 헤 베 누 샬 롬 샬 롬 샬롬알 레 켄

WE BROUGHT PEACE UPON YOU

We brought peace unto you,

we brought peace unto you, we brought peace unto you,

we brought peace, peace peace upon you.

당신에게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평안을, 샬롬....

* 이 곡은 알리야(Aliya)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던 고국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을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2.

에벤에셀 하나님

삼상7:12, 흥정식
made by musicday



3-1

거룩한 땅에 우리

Geron Davis

음네이션스 역

거-룩-한 땅 에 우리 서 있-네 -

천-군- 천 사 이 곳 에 -- 함께 해 -- -

찬-양- 해 - 주 예 수 -- -

거-룩-하 신 주 님 앞 에 우리 서 - 있 네 -

Holy Ground

We are standing on holy ground

And I know that there are angels all around,

Let us praise Jesus now,

We are standing in His presence on holy ground.

3-2

거룩 거룩 거룩

R. heber 사 J. B. Dykes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전능하신 주여 이룬 아침 우리 주를
거룩 거룩 거룩 2.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3.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 다 거룩 거룩 거룩 자 비하신 주여
벗 어 드 리 네 천 군 천 사 모 두 주 께 굴 복 하 니
보 지 못 하 네 거룩하신 이 가 주 님 밖 에 뉘 노
찬송합니 다 거룩 거룩 거룩 전 능하신 주여



성 삼 위 일 체 우 리 주 로 다
영 원 히 위 에 계 신 주 로 다
온 전 히 전 능 하 신 주 로 다
성 삼 위 일 체 우 리 주 로 다 아 멘

4.

나 어제밤에 잘 때

나 어제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5.

하늘에 계신(주기도문)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 6:9-13)

THE LORD'S PRAYER: IRREG.

A. H. Malotte

Arr. by Jae Eun Ha

보통으로

Bb F Bb Cm7 F7 Bb Cm F7 Bb Gm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거룩 하사 주님나

Dm Gm C Em D7 Gm Dm Bb F7 Bb

라 임하시 고 뜻이 이루어 지 이 다

Eb Bb Gm Cm7 Bb Edim(Eb) A Gm A

일용할 양 식 주시고 우리 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 시고 또

Bb F Cm C7 F F7 Bb Eb Cm7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 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Eb Cm7 Ebm Ebm7 Dm F Bb Eb Cm F7 Eb Bb Cm Bb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히 아 멘

6.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 여호와의 - 산에 올라 -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 - 주님의

도를 배우고 - 주님의 길로 행하리 -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

Chords: D, F#C#, Bm, Bm7/A, G, A7, Em, A7, D, G/A, D7, G, A7, D, D7, G, A7, D, F#, Bm, Em, A7, D, G, D.

7.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송정미 사, 최덕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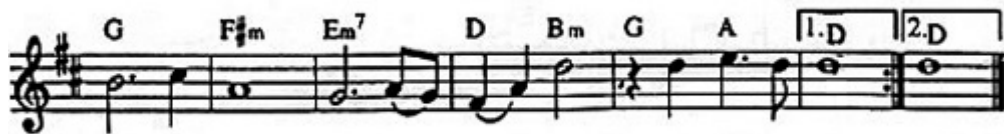
주 님 의 성 - 령 지 금 이 곳 에 임 - 하 소 서



임 하 소 서 주 님 의 성 - 령 지 금 이 곳 에



임 - 하 소 서 임 하 소 서 알 렬 루 야 알 -



렬 루 야 알 렬 - 루 - 야 알 렬 루 야 야

8.

저 들 밖에 한밤중에

1. 시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Traditional English Carol, 17th Century

(♩ 2:8)

THE FIRST NOEL: 8.8.8.8. REF.

W. Sandys' Christmas Carols, 1833

Arr. by J. Stainer, 1871

모듬으로

1. 저 들 밖 에 한 밤 중 에 양 뜰 에 자 던 목 자 들
 2. 저 동 방 에 별 하 나 가 이 상 한 빛 을 비 추 어
 3. 그 한 별 이 베 들 레 험 하 여 바 로 가 더 니
 4. 저 동 방 의 박 사 들 이 새 아 기 보 고 절 하 고

천 사 들 이 전 하 여 주 나 신 소 식 들 었 네
 이 땅 위 에 큰 영 광 이 나 타 날 징 조 보 였 네
 아 기 예 수 누 우 신 집 그 위 에 오 자 멈 췄 네
 그 보 배 합 다 열 어 서 세 가 지 에 들 드 렸 네

후렴

노 엘 노 엘 노 엘 노 엘

이스라 엘 왕 이 나 셧 네 아 멘

9.

고난의 길

Via Dolorosa



십자가를 등에서 고병정 들에이 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랑 들은 몰려왔네 죽음 의 길 건는 그를 보려 고 -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 하 면 서
들은 말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 고 더이 상 그 를 기 대 할 수 없 다



그들은 소리쳤네 - 자칭 메시아를 못 박 으라 고 사랑 하는 제자 마 지 모 두
자신 마 저 구 원 못 한 그는 메시아 일 수가 없 다 고 갈 보 리 의 그 길 만 이 전 경



떠 - 나 버 리 고 - 증 오 와 멸 시 의 비 웃 음 속 에 서 너와 나 를 위 한 그 애 절 한
구 원 의 길 인 것 을 그 누 구 도 이 해 하 지 못 했 지 만 너와 나 를 향 한 하 나 님 의



사 랑 때 문 에 주 님 은 그 길 을 걸 어 가 셧 네 - 갈 보 리 길 - 사 랑
고 난 의



길 십자가에서 흘 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 다와 땅 - 끝 가 - 거



- 구 원 의 강 물 이 되 어 온 세 상 을 덮 었 네 세 상 의 - 모 두 죄 를 대 속 했 네



모 두 비 웃 고 조롱 하 며 떠났 던 바 로 그 길 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 만 하



네 - 생 명 의 길 - 우 - 우 - - -



우 - 우 - - -

1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주하나 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2. 숲속이 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와
 3. 주하나 님 독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네
 4. 내 주에 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도 하리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하도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El, Cuán gran-de es El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El, Cuán gran-de es El

11.

갈보리산 위에

G. Benn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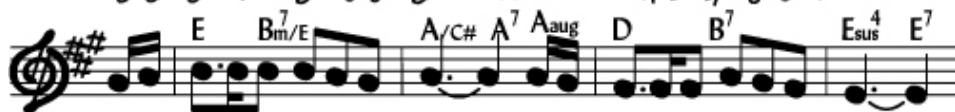
한국찬송가공회 역



1.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당한표 라 -
2. 멸시함 을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 다 -
3.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 니 -
4.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그날까 지 -



-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 세 -
 귀한 어린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다 -
 나를 용서하고 내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 세 -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 리 -



- 최후 승리를 얻기가 지 - 주의 십자가 사랑하 리 -



- 빛난 면류관 받기가 지 - 험한 십자가 붙들겠 네 -

12. 십자가를 질수있나

E. Marlatt & H. S. Mason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2.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3. 주께 네 혼 맡기 겠나 최후 승리만의 때
 4.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오리 저들 대답하였 다
 저가 회개하였 을 때 낙원 허락 받았 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용감 한 자였 날 처럼 선뜻 대답하리 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 아갈 동 안 사
 랑과 충 성 늘 바치 오리 다 아 멘

13.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원제: 살아계신 주

George O. Webster & William J. Gaither



1. 주하나 님 - 독생자 예수 - 날위하 여 - 오시엿 네 -
2. 주안에 서 - 거듭난 생명 - 도우시 는 - 주의사 랑 -
3. 그연젠 가 - 주빌때까지 - 주를위 해 - 싸우리 라 -



- 내모든 죄 - 다사하시고 - 죽음에서 부 활하신 나의 구세 주 -
 창기쁨 과 - 환신가 저고 - 예수님의 도 우심을 믿 으며살 리 -
 승리의길 - 멀고험해도 - 주님께서 나 의알길 지켜 주시 리 -



- 살아계신 주 - 나의참 된 소망 - 걱정근 심 - 전혀없 네 -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 사랑의 주내 갈길인도하니 - 내모든 삶 의기쁨 늘 충분하네 -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14.

삶의 작은 일에도

(원제:소원)

한용재

삶의작-은일-에도 - 그마음알-기원-하네 - 그길-
 그 좁은길-로가-기원-해 나의작-음을-알고 - 그분의크-심을-알며
 - 소망- 그 깊은길-로가-기원-하네 -
 저 높이솟-은산-이되-기보-다 여기
 오름길-한동-선이-되길 - 내 가난길-만비-추기-보다
 -는 누군 가의길-을비-취준-다면 -
 내가노-래하-듯이 - 또내가애-가하-듯이 - 살길-
 난 그렇게-죽기-원하-네 삶의한-절이-라도 - 그분을뵈-기원-하네
 - 사랑- 그

1.높은길-로가-기원-하네 -
 2.좁은길-로가-기원-하네 -
 3.깊은길-로가-기원-하네 -

15.

주님이 주신 땅으로

홍진호

(원제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 한걸음씩 -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 나를 두렵게 - 하지만

주님을 신뢰 함으로 - 주님을 의지 함으로 -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 큰 소리 외치며 -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그날에 - 주께서 말씀 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 그 땅을 취하리

니 이 산지를 취하리 니

16.

엠마오 마을로

엠 마 오 마 을 로 가 - 는 - 두 제 자
이 세 상 사 는 길 엠 - 마 - 오 의 길

절 - - 망 과 공 포에 잠 겨 - 있을 때
끝 - - 없 는 근 심이 앞 끝 - 막으 나

주 예 수 그 들 - 에 - 게 나 - 타 나 시 - 사
주 예 수 우 리 - 에 - 게 나 - 타 나 시 - 사

참 되 - - 신 소 망을 보 여 - 주 셧 네
새 소 - - 망 조 심을 믿 사 - 올 니 다

17.

샤론의 꽃 예수

예수 그리스도

I. A. Guirey, 1922

보통으로

Jesus, Rose of Sharon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보다 (마 2:1)

GABRIEL: 11.11.11.11.REF.

C. H. Gabriel, 1922

1. 샤론의꽃 예수 나의마음에 저룩하고 아름답게
2. 샤론의꽃 예수 이세상에 서 어느꽃과 비교할수
3. 샤론의꽃 예수 모든질병을 한이없는 능력으로
4. 샤론의꽃 예수 길 이피소서 주의영광 이땅위에

피 소 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 기 로
있 으 라 나 의 삶에 결 같은 은 헤 와
고 치 사 나 의 통하며 근 심하 는 자 에 게
가 득 해 천 하 만 주 님 앞 에 드 러

간 데 마 다 풍 거 나 게 하 소 서
사 랑 으 로 가 득 하 게 하 소 서 예수 샤론
크 신 힘 과 소 망 내 러 주 소 서
경 배 하 며 영 광 돌 릴 때 까 지

나의 주 여

의 꽃 나 의 맘 에 사랑 으로 피 소 서

샤론 의 꽃

18.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이 - 가난한 자 는 천국 이 - 저희 것이 요
한 자 복이 있나 니 땅을 기 업으로 받겠 네

애 통 하 는 자 는 복 있 네 위로 를 - 받을 것이 요 온유
의 에 주 리 고 목 마 르 자 는 저희 배 - 부 될 것이

요 긍휼 히 여 기 는 자 는 긍휼 히 여 김 받 게 네

마 음 이 청결 한 자 는 하 나 님 을 볼 것이 요

화평 케 - 하 는 자 - 는 하 나 님 의 아 들 이 라 일컬 네

의 를 위 하여 핍 박 받 는 자 천국 이 - 저 희 것 이 라

내 게 도 주 소 서 내 가 복 을 받 기 원 하 네 오 -

내 - 주 - - 여 주 소 - 서 아 - - - 멘

19.

주 품에

Reuben Morgan

Still

온누리교회 역

1. 주 품에 품으소서
 님 안에 나 거하리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낚향해와도 -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
 폭풍가운 데나의 영혼

2. (주)
 - 잠잠하게 - 주를 보 - 리라 -

Chords: C, G/B, A⁷, F, D/F#, G⁴_{sus}, C/E, F, D⁷_m, G⁴_{sus}, C/E, F, G, 1. C⁴_{sus}, C/E, F, G, A^m, 2. C⁴_{sus}, G/B, F/A, G, C, D.C.

20.

할수있다하신이

—* 이영호 詞 · 장욱조 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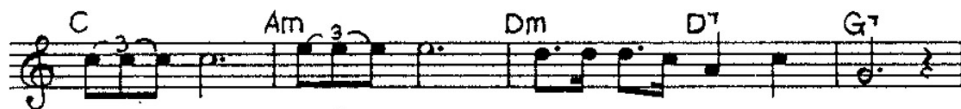
할수 있 다 하신 이 는 나 의 능 력 주하 나 님



의심 말 라 하-시 고 물결 위 걸 으라 하시 네
나를 바 라 보-시 고 능력 준 다 하-시- 네
죽어 말 라 하-시 고 십자 가 를 지라 하시 네



할수 있 - 다 하신 주 할수 있 다 하신 주



믿음만 이 믿음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사랑만 이 사랑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희생만 이 희생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믿음만 이 믿음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사랑만 이 사랑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희생만 이 희생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21.

갈릴리 바다가에서



갈릴 리 바닷가 에 서 -
사마 리아 우물 가 에 서 -



주님 은 시몬 에 게 물으셨 네 -
주님 은 여인 에 게 물으셨 네 -



사랑 하 는 시몬 아 년날 사 랑하느 나
사랑 하 는 여인 아 년날 사 랑하느 나



오 주 님 당 신 만 이 아 십 니 다 -

22.

많은 사람들



1. 많 은 사- 랑 들 - 창된 진 리를 모른 채 -
2. 무거운 짐진 자 - 다- 내 게-로 오 라 -
3. 형 제- 자매여 - 창된 행 복을 찾 거 든 -



주 님 곁을 떠 나 갔 지만 -
 내 가 너를 쉬 게 하 리라 -
 예 수 님을 만 나 보 세요 -



내가 만난 주 님-은 - 창 사 랑-이었고 -
 이길 만이 생명의 길 - 창 복 된-길이라 -
 그분으로 인하-여 - 창 평 안을 얻으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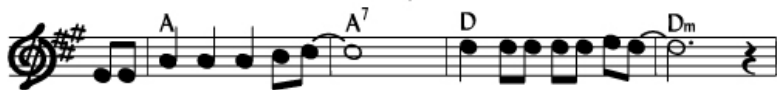
진 리 이 고 소 망 이었 소 -
 항 상 내 게 들 려 주 셸 소 -
 나 와 같 이 고 백 할 거 요 -



난 예 수가 좋 다오 -



난- - 예 수가 좋 다오 -



주를 사 랑 한 다던 - 베 드로 고백처럼 -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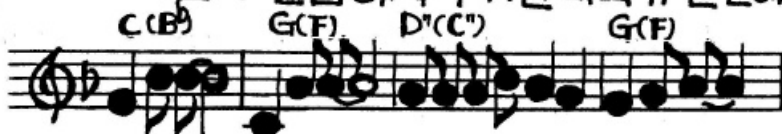
23.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변하여포도주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눈을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변하여포도주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눈을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하셔서 -



새롭게 - 새롭게 - 변화시켜 주소 서

24.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김인식

(원제: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어떤 시련이와도 능히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이겨낼 강한 팔이있어 전능하신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넘쳐날 거야 너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 열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25.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히브리 민요



1. 사막에샘이넘쳐 흐르리라 사막에꽃이피어 향내내리라
2. 사막에술이우거 지리-라 사막에예쁜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다스리는 그나라가되면은 사막이꽃동산되 리
주님이다스리는 그나라가되면은 사막이낙원되 리 라



사자들이 어린양과뛰놀고 어린이들 함께뛰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손꼽고 장난쳐도 물지않는



참사랑과 기쁨의그나라가 이제속히오리 라

26.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1. 황 무 지 가 장 미 꽃 같 이 피는 것 을 볼 때 에
 2. 하 나 님 의 아 름 다 움 과 그 의 영 광 볼 때 에
 3. 마 른 땅 에 샘 물 터 지 고 사 막 에 물 흐 를 때 에
 4. 거 기 악 한 짐 승 없 으 니 두 러 울 것 없 겠 네
 5. 거 기 죄 인 전 혀 없 으 니 거 룩 한 자 뿐 이 라

장 미 꽃 같 이 볼 때 에

구 속 함 의 노 래 부 르 며 거 룩 한 길 다 니 리
 모 든 괴 롬 잊 어 버 리 고 거 룩 한 길 다 니 리
 기 뻘 으 로 찬 송 부 르 며 거 룩 한 길 다 니 리
 주 가 주 신 면 류 관 쓰 고 거 룩 한 길 다 니 리

후렴

거 기 거 룩 한 그 길 에 점 은 구 름 없 으 니

그 길 에 없 으 니

낮 과 같 이 맑 고 밝 은 거 룩 한 길 다 니 리
 또 밝 은

27.

여호와 나의 목자



여 호 안 나의 목 자 내게 부 조 없 네
내 영 혼 소생 하 며 자기 이 조를 위 해
조된 의 지팡이 가 안위하 네 나
기쁨 을 머리 위 에 바르 시 기 조 띠



푸 르 른 초장의 에 나의 몸 누이시 네
외 의 길 인도하 니 끝자 기 두렵 없 네
주께 서 원수 앞 에 상으 로 배푸시 네
평 생 에 선하심 과 인자 함 따르 리 니



선 한 목 - 자 오 나 의 목 - 자 여



생 수 가 넘치는 곳 날인 도 하 - 시 네

28.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창조주

Unto the hills around do I lift up

J. Campbell, Duke of Argyll, 1877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시옵까
(시 121:1)SANDON: 10.4.10.4.10.10.
C. H. Purday, 1860

보통으로

1.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 라
2. 주께서 나 의 두가 는 곳 마 다 산 지 키 시 며
3. 여호와와 나 의 의 보호 자 시 니 늘 들 보 시 며
4. 여호와와 나 의 영 혼 지 키 사 들 보 시 며

날 돌 는 구 원 어 디 서 오 나 그 어 디 서
줄 지 도 않 원 깨 어 계 서 그 어 디 서
오 른 팔 들 고 고 어 보 호 하 시 고 늘 지 키
내 모든 죄 를 사 해 주 시 고 늘 지 키
네

하 이 늘 과 땅 을 지 은 여 호 와
이 낮 스 라 엘 을 키 시 호 이
이 에 제 로 해 부 가 터 상 치 못 는 하 이
이 제 로 해 부 가 터 상 치 못 는 하 이

날 도 와 주 심 확 실 하 도 다
쉬 지 도 주 고 살 피 하 도 다
또 밤 의 달 이 해 치 주 시 네
주 나 의 출 입 해 치 주 시 네
아 멘

29.

목마른 사슴

Martin Nystrom

올네이션스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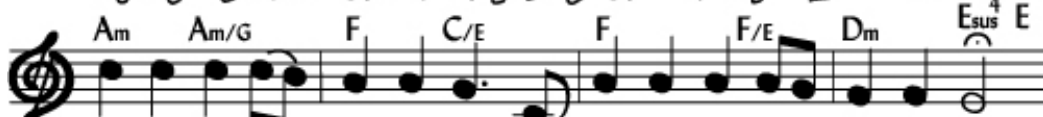
1. 목 마 른 사 슴 시 냇 물을 찾아 헤 매 이 듯 이

2. 금 보 다 귀한 나 의 주 님 내 게 만 족 주 셴 주



내 영 혼 주 를 찾 기 에 - 갈 급 하 - 나 이 다

당 신 만 이 - 나 의 기쁨 또한 나 의 창 보 배



주 님 만 이 - 나 의 힘 나 의 방 패 나 의 창 소 망



나 의 몸 정 성 다 바 쳐 서 주 님 경 배 합 니 다

30.

우리 함께 기도해

고형원

우 리 함 께 기도 해 주 앞 에 나 - 와 - 무릎 꿇 고 -

공 화 를 베푸 시 는 주 하 늘 을 향 - 해 - 두 손 들 고 -

하 늘 문 - 이 열 리 고 - 온 혜 의 빛 줄 기 - 이 땅 가 득 내 리 도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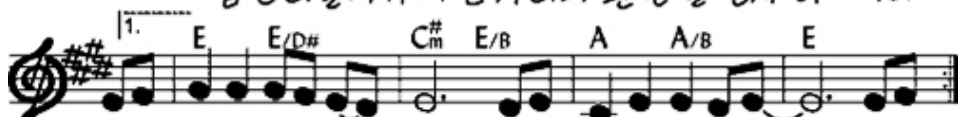
마 침 내 - 주 오 셔 서 - 의 의 빛 줄 기 - 우 리 위 에 부 으 시 도 록

3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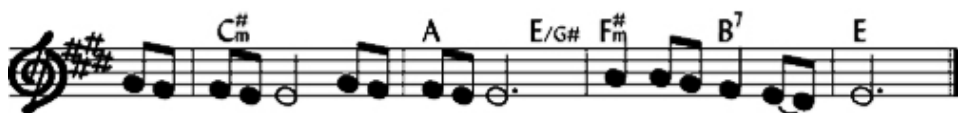
낮의 해와 밤의 달- 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

32.

여기에 모인 우리

Nancy Price, 1990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었지이다(엡 6:23)

경배와 찬양

WE WILL KEEP OUR FAITH ALIVE : 7.9.7.8.REF.

Don Besig, 1990

조금 빠르게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2.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기어렵더라도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 서 이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 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께 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될 치신다

주께서 이자리에

언제 나 주님만을 찬양 하며 따라가리니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옥새롭게 하리니
 고통과 슬픔중에 더욱 주님의지 하오니

시험을 당할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시험을 당할때도

후렴

이 믿음더욱 굳세라 주가지켜주신 다 어둔밤에도 주의
 밝은빛인도 하여주 신 다 하 여 주 신 다

33. 예수님이 좋은걸

이광무

예수님이 좋-은-걸 어떡합-니 가 -
 예수님이 좋-은-걸 어떡합-니- 가 -
 세 상-에 어 떤것 도 바 꿀 수-없 네 -

Copyright (C) 이광무.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3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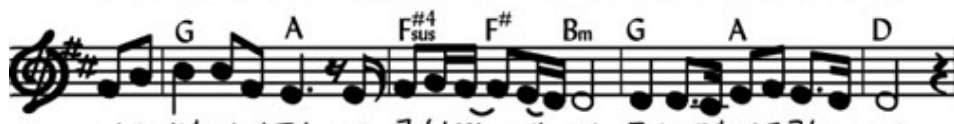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 다



이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양재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 다



이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서 주선모든은 해 나-는 말할수 없 네



내영 흥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35.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D Daug D Gmaj7 Em7 A7

나를 지으신 이가 - 하 나 님 나를 부르신 이가 - 하 나 님

D D/F# G Em D/A A7 D

나를 보내신 이도 - 하 나 - 님 - 나의 나 된 것 은 다 하나님은혜라 -

D Daug D Gmaj7 Em7 A7

나의 달려 갈 길 다 - 하 도 록 - 나의 마 지 막 호 흡 - 다 하 도 록 -

D D/F# G Em7 D/A A7 D D7

나로 그 십자가 - 품게 하시니 - 나의 나 된것은 다 - 하나님은혜라 -

Gmaj7 A7 F#m

한 량 없 는 은 혜 - 갚 을 길 없 는 은 혜

Am B7 Em7 A7 D

내 삶 을 에워 싸 는 - 하 나 님 의 은 혜

D7 Gmaj7 A7 F#m

- 나 주 저 함 없 이 - 그 땅 을 밟 음 도

Bm7 Em A7 D

- 나 를 불 드 시 는 - 하 나 님 의 은 혜 -

36. 하늘의 문을 여소서

(원제 : 잉 재)



37.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하 스테만

(원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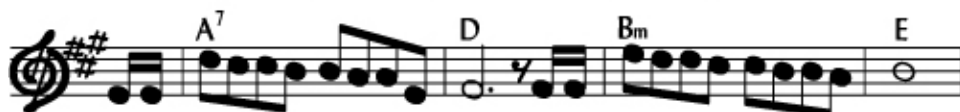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전리로 -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 위 주 소 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 게 하 소 서



하나 님의 사랑이 - 영원 히함 게 하리 -



십자 가의 길을 걷는 자에 게 순교 자의 삶을 사느기에 게



조롱 하는 소리와 - 세상 유혹 속에도 -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라 내 생 명 주 님 게 드리 리

A 팀 순례자 연극 처

* 가나다순(Last Name)

No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No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1	강병구 집사	347-404-0218	ksoorim@gmail.com	31	유원애 권사	718-807-6059	ewonae6341@gmail.com
2	강순애 권사	917-293-9279		32	이경희 집사	646-244-8883	kyunghee1961@gmail.com
3	강영자 집사	718-431-4604		33	이성실 권사	347-306-3536	ysl4924@gmail.com
4	강철웅 집사	917-885-7769	cwkang511@gmail.com	34	이숙자 집사	347-229-2887	v3472295451@gmail.com
5	김기준 권사	646-667-2652	jameskim53@gmail.com	35	이영훈 집사	347-229-2887	josephyongyi@gmail.com
6	김도윤 사모	646-239-8570	doyooukim@live.com	36	이영희 권사	718-440-5403	
7	김미영 집사	631-721-5605		37	이용찬 장로	347-306-3536	ysl4924@gmail.com
8	김보현 집사	516-603-3937	Bohyun447@hotmail.com	38	이주배 장로	678-538-8266	jbcommon@gmailcom
9	김신욱 사모	(51)988139336	sopko427@hotmail.com	39	이태근 집사	917-862-0727	lkm1960@hotmail.com
10	김숙희 권사	718-687-2696	suekzmaceny@gmail.com	40	이혜선 집사	917-328-3300	lkm1960@hotmail.com
11	김영희 권사	718-644-4292	youngheekim49@gmail.com	41	임금자 권사	917-387-3337	kumchayim@gmail.com
12	김원길 권사	347-956-0195		42	임재연 집사	917-364-0205	yeon1966@gmail.com
13	김인영 집사	334-557-5003	kiyoungno1@naver.com	43	장춘화 집사	917-846-6386	naishchristine@gmail.com
14	김정희 집사	917-902-6644	judyHKim56@gmail.com	44	정소진 성도	917-535-7455	shane12874@hotmail.com
15	김혜경 집사	718-216-2967	haekyung2156@gmail.com	45	정정숙 권사	347-479-6532	
16	김혜정 권사	917-292-0733	esther061980@gmail.com	46	정희정 집사	917-480-0285	donna13a@gmail.com
17	김훈주 집사	917-922-0454	v9179220454@gmail.com	47	제시카리 집사	201-519-3177	lee.jesica@gmail.com
18	문 희 집사	347-556-3305	jesusloveshee@gmail.com	48	조경애 권사	347-721-8413	kyungaeny@gmail.com
19	민현숙 집사	646-678-0674	monicawoo2@gmail.com	49	조석순 권사	(51)996451170	immanuel805@gmail.com
20	박맹춘 목사	(51)949276445	maeng_choonp@hotmail.com	50	조혜진 집사	646-335-3101	ashleyhyejin@hotmail.com
21	백대심 권사	718-343-3487		51	최병은 집사	917-352-5847	schoi1870@yahoo.com
22	석은정 권사	347-963-1383	saludoej@gmail.com	52	최원복 권사	347-906-1124	
23	성명남 집사	516-652-5952	myongnamsung@gmail.com	53	최임선 권사	201-655-4161	
24	송병창 장로	(51)941956377	abcsong47@gmail.com	54	하재희 권사	718-640-4614	
25	신디리 집사	201-294-2445	epcindylee@gmail.com	55	한연아 권사	917-558-3934	sikkchoi@gmail.com
26	신경주 집사	347-330-3776	whitebible@hotmail.com	56	허연행 목사	347-860-4468	bhur0123@hotmail.com
27	양현주 집사	718-300-0501	nyhyunjoo@hotmail.com	57	현숙경 집사	914-478-3262	anney0110@gmail.com
28	오루디아 권사	718-666-8656	Lydiaoh57@gmail.com	58	홍대순 장로	718-749-3020	thong82091@aol.com
29	오점례 집사	347-256-5861	Chomryeoh@gmail.com	59	황순해 권사	347-596-3409	Kshchoi@hotmail
30	유경왕 집사	718-506-8789	ekyung8139@gmail.com				

A 팀 방 배 정 표

이름	방번호	방번호	방번호	이름	방번호	방번호	방번호
오루디아 권사				김혜정 권사			
김기준 권사				정소진 성도			
강병구 집사				이영희 권사			
홍대순 장로				김인영 집사			
송병창 장로				정정숙 권사			
조석순 권사				김숙희 권사			
박맹춘 목사				김정희 집사			
김선옥 사모				양현주 집사			
신정주 집사				김미영 집사			
이주배 장로				김보현 집사			
신디리 집사				강영자 집사			
민현숙 집사				김영희 권사			
제시카리 집사				강철웅 안수집사			
하재희 권사				장춘화 집사			
이영훈 집사				이태근 집사			
이숙자 집사				이혜선 집사			
석은정 권사				임재연 집사			
백대심 권사				이경희 집사			
이용찬 장로				김원길 권사			
이성실 권사				최원복 권사			
한연아 권사				정희정 집사			
최병은 집사				현숙경 집사			
유원애 권사				김훈주 집사			
유경왕 집사				조경애 권사			
조해진 집사				강순애 권사			
임금자 권사				최임선 권사			
황순해 권사				김혜경 집사			
오점례 집사				성명남 집사			

B

팀

|

순

레

|

자

|

연

|

락

|

처

* 가나다순(Last Name)

No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No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1	강윤신 집사	516-974-6498	yskang@yahoo.com	30	이재순 권사	770-310-8719	mojaelee@hotmail.com
2	강축희 권사	347-266-5944	Chukhui27@gmail.com	31	이정석 집사	917-685-3377	tiffanyfootspa@gmail.com
3	곽코렌 집사	917-209-7200	Korenkwag@gmail.com	32	이준호 장로	516-639-8987	jubilee325@gmail.com
4	구영숙 집사	718-749-3059	skleeny@gmail.com	33	이진완 권사	347-578-4622	seokjinhwang@yahoo.com
5	권의숙 집사	010-8598-1959	samui0919@daum.net	34	이항립 권사	718-938-3101	dr.leecares@yahoo.com
6	김도윤 사모	646-239-8570	doyoonkim@live.com	35	이혜숙 권사	201-739-6818	jinhuhcpa@yahoo.com
7	김명자 권사	732-613-3177	nyyrk@hotmail.com	36	이호영 권사	347-368-4276	jn0302@gmail.com
8	김선중 권사	201-218-2425	sunkim49@gmail.com	37	장단심 권사	917-301-3660	stelladansimjang@gmail.com
9	김영길 장로	201-218-2425	bethel70@gmail.com	38	장민수 집사	516-384-4913	benchang1@yahoo.com
10	김윤섭 집사	302-588-1340	yoonsupkim@yahoo.com	39	정명숙 집사	352-875-7817	chung7@gmail.com
11	마이클 집사	347-244-4748	m-groysman@yahoo.com	40	정수영 집사	352-875-7817	spc727@gmail.com
12	문 회 집사	347-556-3305	jesusloveshee@gmail.com	41	정창규 장로	404-421-7880	pckchung531@yahoo.com
13	박상철 안수집사	516-661-0820	sanfordbakh@yahoo.com	42	조영숙 집사	347-668-0263	2graceyscho@gmail.com
14	박영미 목사	917-825-1959	pastorconstance@msn.com	43	조지연 권사	917-647-1988	jsc1717@gmail.com
15	박영일 장로	917-584-1212	daniel@smtadvancedeck.com	44	조홍숙 사모	248-227-5452	heung9762@yahoo.com
16	백홍식 권사	917-749-1429	nyspeedy@gmail.com	45	최경남 집사	646-239-6532	choikyungnam@yahoo.com
17	석성남 권사	646-526-5600	songnamsuk@gmail.com	46	최성호 장로	201-294-8922	shchoi52@gmail.com
18	석창호 집사	718-461-6212	changhsuk@gmail.com	47	최승혁 목사	678-482-9106	bryan.choe@gmail.com
19	선우옥 집사	917-254-1336	m-groysman@yahoo.com	48	최은모 권사	718-530-5159	momo.c315@gmail.com
20	손선에 집사	516-655-8974	sonyeson@gmail.com	49	최첼환 안수집사	917-567-3295	charleschoi1976@yahoo.com
21	오금세 집사	917-664-6780	juneoh731@yahoo.com	50	최춘희 권사	201-669-8455	shchoi52@gmail.com
22	오복현 권사	917-583-6171	bokhyunpark@gmail.com	51	허연행 목사	347-860-4468	bhur0123@hotmail.com
23	유기선 권사	646-645-5664	kyoo1956@yahoo.com	52	허옥순 사모	081-583-6525	oksoon55@hotmail.com
24	이모경 권사	678-468-0238	mokyunglee@gmail.com	53	허찬숙 사모	201-230-4268	chanshur@hotmail.com
25	이성기 권사	516-581-4023	lisapahk@gmail.com	54	홍양휘 권사	646-262-5976	
26	이성자 집사	646-284-1700	Sungia.Lee@gmail.com	55	홍종례 집사	516-554-7765	jongye.hong@wooriamericabank.com
27	이순실 집사	678-221-7898	Sslee17@gmail.com	56	황석진 장로	917-941-5061	seokjinhwang@yahoo.com
28	이은영 사모	917-388-6367	okminho123@gmail.com	57	황영순 권사	917-613-6101	yshwang7@gmail.com
29	이인숙 권사	516-375-6332	colleenilee@gmail.com	58	황홍섭 안수집사	917-656-7999	whojong@hotmail.com

B

팀

방

배

정

표

이름	방번호	방번호	방번호	이름	방번호	방번호	방번호
김도윤 사모				허옥순 사모			
이준호 장로				허연행 목사			
이인숙 권사				허찬숙 사모			
박영일 장로				최성호 장로			
오복현 권사				최춘희 권사			
황석진 장로				석성남 권사			
이진완 권사				석창호 집사			
박상협 안수집사				정명숙 권사			
이성기 권사				정수영 집사			
홍종례 집사				김선종 권사			
이성자 집사				김영길 집사			
이은영 사모				강윤신 집사			
손선예 집사				박영미 목사			
조지연 권사				최경남 집사			
이순실 집사				조흥숙 사모			
김명자 권사				선우 옥 집사			
이혜숙 권사				마이클 집사			
황영순 권사				이향림 집사			
황흥섭 안수집사				곽코렌 집사			
이모경 권사				구영숙 집사			
이재순 권사				오금세 집사			
김윤섭 집사				백홍식 권사			
장민수 집사				유기선 권사			
정창규 장로				홍양휘 권사			
이정석 집사				강죽희 권사			
최철환 안수집사				최은모 권사			
최승혁 목사				이호영 권사			
권의숙 집사				장단심 권사			
문 희 집사				조영숙 집사			



